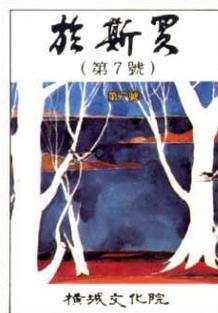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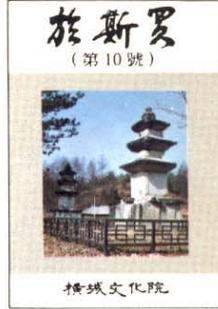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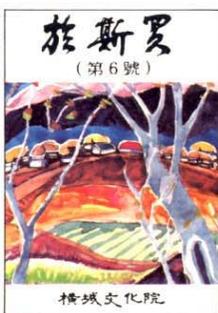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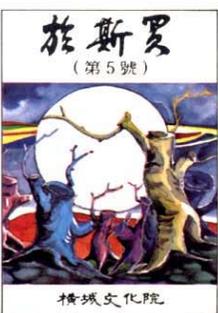


於斯羅

어 사 매

(第10號)



橫城文化院

/// 表 紙 說 明

【於斯買】

1. 高句麗時代의 橫城의 고을 이름을 於斯買라 稱함
2. 統一新羅時代에는 橫川으로 개칭
3. 朝鮮朝 太宗1年(1414)에 橫城으로 다시 改稱
現在에 이르렀음

어사매 10호 특집을 맞아 창간호부터 9호까지 내고향 횡성을 상징하는 구상·비구상의 표지화들을 한데 모았고,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횡성댐 수몰민들의 한(?)의 표상으로 중금리 삼층석탑을 표지 가운데 신기로 했다.

【중금리 삼층석탑】

- 강원도 유형 문화재 제19호
- 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중금리
- 신라 하대 작품 추정

橫城郡民憲章

우리 橫城은 우람한 泰岐山의 氣象과 悠悠히 흐르는 蟾江의 精氣를 받은 고장으로 豐饒를 謳歌하며 人情을 나누면서 子孫萬代가 살아갈 永遠한 삶의 터전이다.

이땅에 사는 우리는 先烈의 드높은 抗日 救國精神과 愛鄉心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郡民으로서 創意와 叡智를 한데 모아 살기좋은 새 橫城 建設의 主人으로 身命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첫 째 : 우리 郡民은 항상 反省하고 부지런히 배워 참되고 바른 사람이 된다.

둘 째 : 우리 郡民은 서로믿고 사랑하며 英才를 키우는 복된 家庭을 이룬다.

셋 째 : 우리 郡民은 어른을 尊敬하고 이웃을 아끼며 웃음이 넘치는 마을을 이룬다.

넷 째 : 우리 郡民은 地域特性을 살리고 科學的 研究와 實踐으로 豐饒로운 내고장을 만든다.

다섯째 : 우리 郡民은 正直, 秩序, 創造, 協同의 生活化로 맑고 밝은 社會를 이룬다.

여섯째 : 우리 郡民은 崇高한 3·1精神을 이어받아 나라에 忠誠하는 國民이 된다.

황성군 노래

방 직 현 작사
노 명 석 작곡



1. 태 기 - 산 뽕 은 즐 기 덕 고 - 의 정 기 모 아
2. 운 암 - 정 청 란 아 래 황 성 - 교 빛 거 있 고
3. 교 통 - 의 심 장 부 로 사 방 뽕 은 동 맥 의 길



앞 들 - 의 넓 은 옥 토 부 강 을 자 랑 하 고
태 풍 - 루 반 송 터 는 옛 일 을 아 되 는 듯
경 향 으 로 사 통 오 달 거 마 가 즐 비 하 고



동 서로 - 구 비 친 강 꾸 준 히 - 흐 르 는 곳
낙 낙 장 송 넓 은 숲 에 흥 익 정 신 가 득 한 곳
전 통 의 - 산 업 정 신 부 흥 을 - 꾀 하 는 곳



아 름 다 운 이 - 강 산 에 빛 나 는 우 리 황 성

橫城의 象徴



군의 꽃 : 함박꽃

해설

- 군의 꽃 : 함박꽃 (芍藥花) Paeonia Albiflora Pail ○ 지정일시 : 1986년 6월 1일
- 학명 : Paeonial Albiflora Pail ○ 꽃말 : 순박

— 군의 특색과 관련성 —

- 꽃말 "순박"은 군민의 순결하고 고운 마음씨를 상징하고
- 녹색의 넓은 잎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말하고
- 탐스럽고 화려한 꽃은 군민의 높은 기상과 용기 밝은 미래를 기원
- 강한 번식력은 즐기자게 뻗어가는 군민의 강인한 정신력을 뜻한다.



군의 새 : 백로



군의 나무 : 느티나무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轉換期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 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業績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의 正統性을 이어 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藝術을 확고한 傳統 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 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 意識과 史觀을 바로 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 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年 10月 20日

斯 羅 誌

(第10號)

橫城文化院

發刊辭

횡성문화원장	尹 載 宅	13
--------------	-------	----

祝 辭

횡성군수	김 남 성	14
횡성군의회의장	이 일 영	15
횡성교육청교육장	김 순 렬	16

詩

고 향	김 양 수	18
우리에게 고향이라는 곳은	강 정 식	20
믿음으로 가는길	진 용 근	22
넋가의 추억	김 성 기	24
돌 이야기	배 진 흑	28

「特 輯」 — 於斯買 創刊 10號 特輯 —

蠙江의 흔적을 찾아서	정 재 영	30
-------------------	-------	----

漢 詩

오문시 성화 횡성읍 과처 봉송시	김 종 만	64
계가아 재 공직	송 인 석	65
축 광복절	김 태 진	66
고 향	조 광 식	67
갈망 신조국	김 기 원	68

郷土史 巡禮

취석정, 취석시비 건립의 향토사적 의의	최성침	70
조충묘 지명	신종원	78

隨筆

우리 신혼여행 가래울로 가자	최정희	92
방부제 시대	권용환	94
고향을 그리며	전인석	99
6.25 전쟁과 폭격에 돌아가신 할머니	곽영기	101
횡성사람	김세기	108
나의 고향	임교순	111
고향, 어머니의 품	한경숙	115
나의 귀거래 分辭	임일진	117

小 說

동지 설달 꽃 본듯이	정재영	122
-------------------	-----	-----

於斯買 總目次

(창간호~9호)

文化院 行事

會員 名簿

編輯 後記



제11회 태풍문화제



가장행렬



일본군에 항거 장면



씨름대회



군민 노래자랑



모래가마 들기



연날리기 대회



태풍예술제

發 刊 辭



橫城文化院長 尹 載 宅

우리 고향에서 발간하는 향토지를 가꾸어 보자고 여러 문화동호인의 뜻을 모은지 10여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사매 10호」를 펴게 되어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우리 고향의 흙내음이 듬뿍 담긴 이 「어사매」는 오늘도 우리 선조의 혼이 깃든 고향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의 흔적을 찾아 내어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문화 유산들이 소홀해짐을 직시해 볼 때 고향을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군민의 참여가 아쉬워 집니다.

우리 횡성은 살기 좋고, 인심 좋고, 개성이 뚜렷한 고장입니다.
「어사매 10호」 발간을 맞이하여 지역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고향에 모래알 하나, 낙엽 하나도 귀중한 유산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조상의 얼과 예지의 혼이 살아 있는 향토지로 꾸준히 성장되길 기원합니다.

祝 辭



橫城郡守 金 南 星

郷土文化를 꽃 피워온 於斯買 第10集의 發刊을 祝賀하면서 그동안 地方文化 發展을 위하여 힘써온 橫城文化院과 文化界人士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해거름없이 文藝誌를 發刊해온 편집관계자 여러분께도 크나큰 聲援을 보냅니다.

특히 금번 第10集에는 橫城人 모두의 삶의 源流이며 郷土史의 큰 자취이기도 한 蟾江의 흔적을 찾는 뜻깊은 기획을 하고 이 文藝誌를 통하여 소개 함으로써 郷土史에 대한 깊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郡民에게 郷土愛를 심어주게 된 계기가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文化院의 노력이 앞으로 어쩔수 없이 故郷을 떠나야 할 橫城뎌 수몰지역 住民에게는 사라져갈 삶의 흔적과 뿌리를 文獻에 기록하는 뜻깊은 일이 되리라 믿어 그 의미가 더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文化院이 앞으로도 이처럼 郡民의 文化的 욕구와 갈증을 해소해준은 물론 모든 郡民이 참여하는 文化의 열린 광장으로써 더욱 發展해 나갈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橫城人의 郷土사랑과 文化的 정열이 함축된 文藝誌의 發刊을 다시한번 祝賀드리며 우리 文化界와 文化院의 무궁한 發展을 기원합니다.

祝 辭



橫城郡議會議長 李 日 寧

어렵고 힘들었던 계유년도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지나갔고 희망과 보람찬 갑술년 새 아침의 문턱에서 어사매 10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 어사매 10호 발간이 있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향토문예지인 어사매를 발전 시켜온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예술의 자유 등을 성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 힘은 그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창의력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역사속에서 보아도 예술이 창조력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문화가 자주성을 찾았을 때 나라가 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문예중흥은 민족중흥 이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밀려오는 변화와 도전의 물결속에서 개방된 국제화 시대를 피해 갈 수 없는 시점에 있어 정서함양과 정신문화 발달이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되는 때라고 하겠습니다.

이런때에 군내 유일한 문예지인 “어사매” “제10호”를 발간하는 것도 군민의 정신문화를 신장시키며, 애항심을 고취시켜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찬연한 갑술년 새해에는 온 군민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더 많은 군민의 참여와 사랑으로 향토문화를 꽃피우는 훌륭한 한해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어사매 10호의 발간을 다 시한번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江原道橫城教育廳教育長 金 順 烈

郷土 文藝紙 “於斯買” 10號 特輯을 發行하게 된 것을 祝賀드리며 앞으로 더욱 發展하여 郷土文藝振興과 傳統文化 繼承을 위해 큰일을 先導하기에 不足함이 없기를 祈願합니다.

歷史속에 文化의 흐름은 물과 같아서 깨끗한 生命의 물이 흐를 때 싱싱한 고기는 활개치며 노는 것이니 汚染되지 않은 우리의 固有 文化가 精神文化를 淨化시키는 役割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韓民族의 얼과 精氣는 오래도록 살아 숨쉬며 命脈을 이어갈 것입니다.

어제의 傳統文化는 우리의 삶을 깊고 은은하게 해주며 오늘의 現代文化는 높고 高尚한 아름다움을 追求하는 것이니, 이 둘이 調和를 이룰 때 또 하나의 跳躍을 期待하며 矜持로운 文化人의 자리를 構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과 空氣등 自然의 汚染은 크게 근심하고 念慮하면서도 文化와 精神의 汚染은 比較的 疏忽이 여기는 風土속에서 “於斯買”는 橫城人의 矜持와 自負心과 故郷의 愛着을 키워 오랜 後代에까지 자랑스럽게 이어질 것을 믿어 疑心치 않습니다.

끝으로 온갖 어려운 여건하에서 알찬 “於斯買” 10號를 만드시기 위해 애쓰신 橫城文化院長님을 비롯한 모든 분의 勞苦에 感謝를 드리며 다시 한번 “於斯買” 10號 特輯 發行을 온 橫城郡民과 함께 祝賀를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詩

- ♣ 고향 / 金 亮 洙
- ♣ 우리에게 고향이라는 곳은 / 강 정 식
- ♣ 믿음으로 가는 길 / 진 용 근
- ♣ 냇가의 추억 / 김 성 기
- ♣ 돌 이야기 / 배 진 후

故 郷

이따금씩 내 살 속을 헤집고드는
燦爛한 빛 한줄기,
어머니의 큰 希望이여!
아버지의 所重한 꿈이여!

내 故郷 山田里에서 갖고온
聖火에 다시 불을 지피면
詩 한 줄처럼
내 가슴을 적시는 그 때의 破片,
그 破片에 맞아
나는 失神한다.



金 亮 洙

오동잎만한 꺾그만 追憶을 흔들며
 그 귀퉁이에 서 있으면
 나는 깊은 江이 되고
 흐르는 江이 되고
 아!
 鄉愁 때문에
 노을이 탄다.
 내가 품어온 빛을 훑쳐간
 하늘이 수줍어 한다.
 하늘 속에 또 故鄉이 있을까?
 그 故鄉 속에 또 내가 分明있다는 말인가!

金亮洙/○ 1953년 靑星 산전리 출생

- 1984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당선, 아동문학평론추천
- 강원아동문학, 한국아동문학, 푸른나무동인회원
- 저 서 : 생각하는 배나무
- 근 무 처 : 춘천군 북산면 추곡국교

우리에게 고향이라는 곳은



강 정 식

사람이 태어나서
철이 들때까지 살다가
형편따라 이사를 가면
그때부터 고향이라는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네

생활에 쫓들려
가끔 잊기는 할지언정
아주 버린 것은 아니라네

내 고향은 농사꾼
가뭄 끝에 소나기 내리면
논배미마다 벼 크는 소리
서걱서걱 들리는 곳

내 아버지는 땅 마련 위해
달밤에도 밭일 논일 하였는데
왜 어렵게만 살았을까

詩

우물가 오지항아리 마다
감자 썬 구린내가 코를 찔러도
그래도 좋았으니 그 마음이

시간을 쪼개 시계처럼 사는
도시 사람들도 저마다
고향이 있으면만
그 곳 한가히 찾아 갈
그런 여유가 없는가 보네

-
- 강정식/○ 1941년 평성군 공근면 상동리 어영골 271번지 출생
○ 홍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1989년 전국 금융인 문학 특상 수상
○ 1990년 “한국시” 및 “한때문학” 작품 당선으로 문단 데뷔
○ 한국 문인협회 회원
○ 강원 문협 및 홍천 문협 회원
○ 현재 농협 중앙회 홍천군지부 재직

믿음으로 가는 길

진 용 근

때로는 걷다가
때로는 뛰고
넘어지면 쉬다가
일어나서 또 가고
때로는 울다가
때로는 웃으며
그러면서 가는 길
멈출수도 없는 길
얼마나 험한지
얼마나 먼-지

詩

앞만보고 가야하는

믿음으로 가는 길

걸어온 길 돌아보면

부끄러운 발자욱이

때로는 길목 막아

걸림돌이 되어도

구비구비 돌아서

가야하는 나의 길

건다가 뛰다가 울다가 웃으며

끝까지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

진용근/○ (주)영진 사장(씨이관 소재)

- (주)동아 프레스 사장(팝 소재)
- 교민신보(한글판 주간신문 24면) 편집인 및 발행인(팝, 씨이관)
- 씨머 타임즈 잡지 발행인
- 씨머 타임즈 여행사 사장
- 한인록 발행인(년 1회 500PAGE)
- 국내 일간신문, 잡지 지국 및 보급소 운영
- 씨이관 해병전우회 설립

넋가의 추억



김 성 기

모래밭에 주먹 파묻고 두드려
별거벗은 모래성 쌓으며
꿈은 몰라도 꿈 속에서
보급자리 터를 찾는
한 마리 들새가 되었다.

청솔가지 나뭇단으로 묶인
어머니의 무거운 업동설한이
목 휘도록 자꾸만 일어서는 밤
군인 간 아버지께
침 찍어 새기는 서툰 글씨로
동심 돌우는 밤
다락에 넣어 둔 겨울 양식은
잠든 누이의 얼굴에서 가물거리고
관솔다발로 묶인 이숙한 밤은
새벽이면 저자바구니에 담겼다.

詩

소꿉놀이 손바닥에서
한 올씩 곱질로 짜여지는
한 자락 하늘이 있어
산천이 푸르른 이파리에 덮히고
초여름 눈부신 햇살을 이고
까치알을 품었다.

天地에 눈 덮여
불기 없는 저녁나절 불안한 시간
아랫목에 쪼그린 오누이는
칭송가지 지피는 아궁이에서
맴게 깔리는 연기에
시린 마음 띄워 올리곤,
서로의 마음을 엮어
무지개 그려 놓고
어둠도록 돌렸다.

영기의 구애

탄생의 어린 숨결에
겹질은 한 올씩 풀어지고
기다림 모르는 채
모래밭을 달렸다.

속살이 보이게 찢어진 이웃들이
떠나고 남은 자리
칼날처럼 숨죽인 달빛으로
뒷산에서 짓어대던 밤
울타리 옆 빈 집 토담에선
약사발에 뜬 소문
어둠은 자꾸 덮여도
두 가닥 걸린 밧줄이 되어
걸어잠근 문고리에서
기다리던 새벽

詩

쏟어모은 것털
가슴에 가득 안고
햇살 한 줄기 골라
허물어진 모래성 위로 오르는
까치의 날개가 있었다.

김성기/○ 출생지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가담1리

○ 경 력 :

- 1946. 8. 6 일생
- 춘천 교육대학 졸업 (67)
- 78. 강원일보 신춘문에 동시 당선
- 78. 아동문학평론지 동시 추천 완료
- 한국 아동문학인협회 회원
- 강원 아동문학회 상임 이사
- 강원 초등국어교육학회 이사
- 현재 원주시 장양국민학교 근무
- 현재 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제학

돌 이야기



배진옥

우리들이 살아가는 앞강에는
물보다 돌이 더 많아서
돌을 눌러 밟았더니
날더러 돌이 되라 하여
조금더 힘차게 눌러 밟았더니

나의 발만 아프고
돌은 무표정이라
결국 나는 돌이 되고 싶다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밟혀도 무표정의 원형 그대로인.

배진옥/○ 흥천문학 초대 회장

- 흥천문화원 부원장 지냄
- 문학세계 신인상
- 발원문학 편집장
- 시집 視角
- 평성 감천면 감천약방

創刊 特輯 (第 10 號)

蟾江의 흔적을 찾아서

— 鄭 才 永 —



蟾江의 흔적을 찾아서



鄺 才 永

I. 탐사를 시작하며

「橫城縣邑 治峽中開拓 晃然昭曠水綠山平別有一種難刑之清氣 境內又多世居 士大夫」

이처럼 靑華山人 이중환(李重煥)은 일찌기 그의 저서 택리지(擇里地)에서 우리 고장 횡성을

「횡성현은 두메속에 터가 활짝 열려서 환하게 밝고 넓으며 물이 푸르고 산이 평평하여
형용하기 어려운 별스런 맑은 기운이 있다. 또 지경안에는 여러대를 살아 온 사대부가
많다.」

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선택된 땅 횡성을 오늘에 있게 한 횡성의 젖줄인 섬강의 發源地부터 끝점까지, 어제와 오늘의 역사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약속된 땅이 될 흔적을 낱낱이 살펴 봐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사료 돼 橫城郡 文化院誌「於斯買」10호 特輯으로 다루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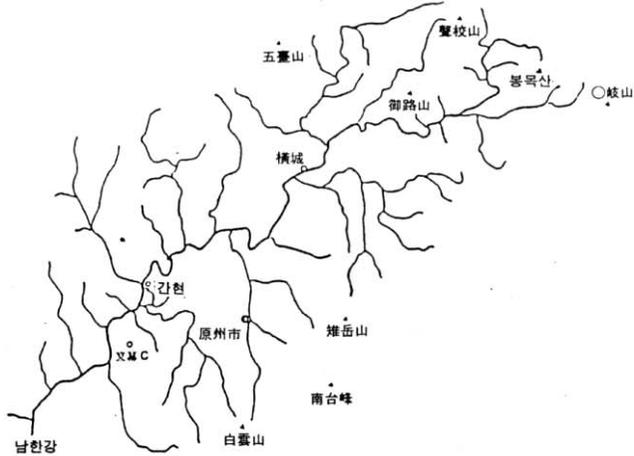
더군다나 몇년이 지나 횡성댐이 完工되면 수하(水下)5개리는 영영 물속에 잠기게 돼, 이 시점에서 수몰예정지에 산재해 있는 有形, 無形문화재들을 記錄, 文書化 해놓지 않으면 어떤危機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 이 일을 앞당겨 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글도 섬강의 대체적인 모습을 전반적으로 다루기는 하되, 곧이어 물속에 잠기게 될 水下 5개리에다 좀 더 무게를 실어 살펴 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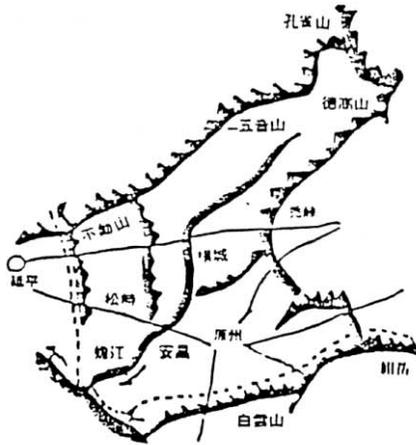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충분한 시간과 준비과정을 거쳐 밀도 있게 접근해 보기로 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다.

또한 집필 형태도 완전한 르뽀 형태로 쓸 것이냐, 보고서 형식으로 쓸 것이냐에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했는데, 역사성도 살리고 또 읽는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르뽀 형식으로 역사현장에 접근해서는, 史的記述은 보고서 형식으로 쓰기로 했다.

그리고 탐사내용은 편의상 1,2,3부로 나누어 쓰고, 1부는 발원지에서 수몰되지 않는 마지막 포동리까지의 내용을, 2부는 수몰예정지 전부를, 3부는 댐밑에서 황성 끝점까지 나누어 쓰기로 했다.



〈섬강개념도〉



〈大東與地全國〉

II. 섬강의 흔적

1. 발원지에서 마무리까지

1) 발원지를 찾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섬강의 발원지를 찾아 가던 날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날이라고 방송에서 야단법석을 떨던, 오지계도 추운 날이었다.

문화원에 도착하니 벌써 원주 문화방송 「영서한마당」촬영팀은 오늘 촬영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작년 문화방송 창사 특집 다큐멘타리를 만들었던 김 성호 PD, 지 영 카메라 담당 등 낯익은 얼굴들이라 무척 반가웠다.

촬영을 많이 한 팀답게 등산가들 뺨칠 정도로 중무장들을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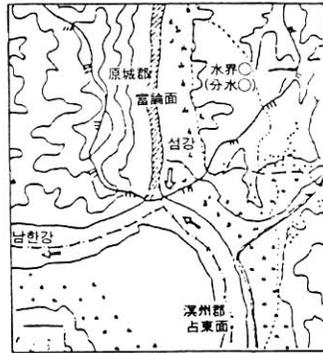
우리 탐사팀 세사람은(필자, 권용환 부원장, 조임식 사무국장)황성군 정밀지도를 펼쳐 놓고, 섬강의 발원지를 찾아 갈 코스를 면밀히 살펴 보았다.

「한국 하천연구학회」 회장님이신 이 형석 님의 논문은 사실 충격에 가까웠다. 몇 년 전 직접 섬강의 발원지를 답사하고 발표한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글학회에서 펴낸 "새한글사전"에는 '섬강은 강원도 황성군에서 시작하여 한강으로 들어 가는데 강 길이는 92.6km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는 「황성군 청일면 봉명리 수리봉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남한강으로 들어감」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학원사 발행 "세계대백과사전"에는 「황성군 청일면 및 감천면에서 발원하여 길이 92.6km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동아출판사에서 발행한 "원색동아대백과사전"에도 「남한강의 지류 길이 92km, 황성군 태기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다 남한강으로 유입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현재 문헌에 나와 있는 기록들은 한결같이 1918년 조선총독부 임시 토지 조사국에서 9년간 실측 조사 발표한 "조선지리지자료"를 아무 검증없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형석님은 비교적 소상하게 발원지와 섬강의 길이의 오류에 대해 그의 글에서 그것들은 바로 잡고 있었다.



섬강의 길이는 103km

지구의 표면상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實測과 圖上計測이 있다.

도상계측의 경우에는 일정한 축척에 따라 평면으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경사도와 폭포 등의 길이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특기할 점은 실측의 경우나 도상계측의 경우 모두 오류의 요소를 갖고 있으며 다만 어느 편이 정확한 실체와 가깝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많은 장비, 인력, 경제력이 소요되는 실측보다는 도상계측으로 정확한 섬강의 길이와 발원지를 조사했다.

조사 자료는 1 : 50000지도와 1 : 25000지도를 곡선자 (curve meter)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실측 발표된 "조선지리지 자료"의 결과와 대비했다.

그리고 섬강이 남한강과 만나는 합류점이며 섬강의 하구인 원주군 부론면 흥호리 동매 부락 서쪽 지점에서 길이가 가장 긴 곳을 발원지로 잡고 측정했다.]

이런 측정 결과 이형석님은 발원지는 이제까지 문헌마다 통일되지 못하고 태기산, 수리봉으로 무책임하게 논의 되었는데, 섬강의 발원지는 정확히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봉막 부락 서남쪽 계곡의 샘이며 정확한 섬강의 길이는 기존의 문헌에 기록된 92km보다 10여 km가 더 긴 103.5km로 밝혀졌다.

이처럼 이 형석님의 글은 이제껏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던 태기산 발원지를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아마 횡성사람 열이면 열 모두가 섬강의 발원지는 횡성의 대표적 산이라 할 수 있는 태기산 일거라는데 의심을 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터였다.

내 짧은 지리 지식으로는 도상측측은 불가능하고 또 전문계측자료도인 곡선자도 없는 터라, 실측으로 확인할 도리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전문측량팀을 초청해 측량해 볼 수 없는 처지라 나는 태기천과 유동천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태기산과 봉복산 2부 능선까지의 길이를 실측해 보기로 했다.

다행히 두 하천이 물길을 따라 도로가 나 있어 자동차 미터기로 재기는 안성마춤이었다. 그 작업을 하던 날도 눈이 무척 많이 쌓여 있어 여간 조심해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같이 동행한 집사람은 걱정이 되어 다음에 도로사정이 좋을 때 조사 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형석님의 논문에서 밝힌 사실을 받아 들일 수 없어 다소 무리였지만 직접 확인 작업을 했다.

걱정이 된 집사람은 조수석에 앉아 기록을 해주었다.

먼저 합류점에서 태기산 기슭까지 차로 조사를 했다. 신대리 봉복사 절 입구 태기산 기슭까지 거리는 정확히 9.1km였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합류점에서 속실리 봉막 부락 입구 봉복산 기슭까지 거리를 재었더니 17.2km가 나왔다.

두지점의 거리는 놀랍게도 8.1km라는 20리가 넘는 거리였다.

그러므로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껏 문헌에 아무런 사실 조사도 없이 무책임하게 발표되었던 섬강의 길이와 발원지가 사실이 아니란 것이 명확히 증명된 것이었다.

이런 사전 검증 단계를 거쳤기에 그날 아침 발원지를 찾아 나서는 산행은 모두다 자신감이 차 있었다.

더군다나 5년전 이 형석 회장님을 모시고 발원지를 찾아 나섰던 김 성호, 지 영, 한 대회씨가 정확한 샘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장담 해 우리는 한층 더 고무 됐다.

한치재를 넘자 함박눈은 눈개눈으로 바뀌어 더 한층 겨울의 정취를 더 해줬다.

그 옛날 태기왕이 직접 다녀 갔다는 어답산은 나뭇가지마다 하얀 눈 꽃이 만발 해 동화 속의 나라 같기만 했다.

어제 미리 이장님을 통해 연결이 된 탓인지 속실의 두 토박이 김덕순(63세)씨와 강 성백(64세)씨를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흔들리는 차간에서 마을에 얽힌 지명유래를 푼 재미있게 들었다. 두 분이 들려준 마을에 얽힌 지명유래는 다음과 같다.

「아마 이야기의 내용으로 봐서 동학혁명이 한창이던 시절같다. 동학군에 쫓기던 세 사람이 속실 입구인 내촌엘 접어 들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고을 원님, 그리고 스

님 한 사람, 이름을 예계라 불렀던 기생

그들은 지칠대로 지쳤고, 언제 쫓아 오는 적군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지 몰라 모두들 제정신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혼자 몸뚱이도 피신하기 어려운 처지에 둘 씩이나 군식구가 붙은 원님의 마음은 오죽 했으랴!

그들은 내촌을 조금 지난 고개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했다. 그래서 그 고개를 눈물고개라 부르게 되었는데 지금은 임도가 개설돼 고개라 부르기에 너무 낮았다.

마침내 원님의 마음을 읽은 스님은 일행을 먼저 보내고 앞 소에 몸을 던졌다. 그래서 그 소는 중소가 되었다.

그후 당거리까지 올라간 원님과 기생 예계는 누가 그런 주장을 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예계로 하여금 그 소를 뛰어 넘게 해 뛰어 넘으면 원님이 기생을 데려가고 그렇지 못하면 데려 가지 않기로 얘기가 된다. 마침내 예계는 있는 힘을 다해 건너 뛰었지만 실패해 그마지 소에 빠지게 된다. 아름다운 예계 이름을 따서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그 소를 예계소로 부르며, 혼자 남은 원님은 천신만고 끝에 고개를 넘어 홍천땅 청량리 삼년대에 이르게 된다.

그때 원님이 넘었다는 고개는 봉막 부락 입구에 있는데 원님이 고개라 부르며, 원님은 홍천땅 삼년대에서 삼년을 살다 갔다고 한다.」

두 노인네는 어릴적 어른들한테 들었다며 직접 보기라도 한 것처럼 실감나게 얘기를 이어 갔다. 강원도에선 홍천 서석 풍암에서 동학군의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또 그 곳에는 동학 기념비까지 건립된 것으로 봐 이 마을 전설들은 어찌먼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날도 운무산은 이름에 걸맞게 산 꼭대기 장군바위까지 구름이 실기죽 걸려 있었다.

스파크까지 박은 스노우타이어 였지만 MBC 취재 차량은 거평식품을 지나 봉막 마을 입구의 오르막길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일행은 차에서 내려 밀어 봤지만, 우리들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워낙 해발이 높은 지대여서인지 봉복산은 입구에서부터 눈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거기에다가 방송국팀들은 대단히 무거운 카메라와 밧데리까지 둘러 메어 초작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속실리 현지 노인네 두 분도 이렇게 눈이 빠졌는데 어떻게 그 험한 발원지까지 가겠느냐고 불평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옛날 같으면 나무꾼이라도 다녀 길이 있을텐데 요즘에는 아무리 산골이라도 연탄 보일러 아니면 기름보일러를 사용해 나무꾼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 길은 없고 원시림같은 숲 속을, 우리는 물줄기를 따라 무조건 위로 올라 갈 수 밖에 없었다.



〈섬강의 발원지 탐사 운무산〉



〈섬강의 흔적 발원지 탐사작업〉

분명 내가 소지한 지도에는 봉막 골짜기에만도 5호가 살고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집이라곤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김 덕순씨 얘기로는 벌써 6.25이후 부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도는 1918년 일본인들이 만든 古地圖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두분 노인들이 예전에 집터였다고 가르쳐 주는 곳에는 돌담 흔적과 밤나무, 우물터 등이 있었지만 울창한 참나무와 소나무들이 뿔뿔이 들어 차 있어 내눈에는 집터였다는 걸 실감하기 어려웠다.

간간이 어떤 산짐승인지 종류는 알 수 없지만 눈위에 선명히 찍힌 발자국이 빈산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었다.

눈 속에 반쯤은 파묻힌 시누대(山竹)가 더 푸르르고 청아해 보이는 것은 겨울의 정취때문일 거라며, 부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은 산에 취해 풍월(?)을 읊고 계셨다.

한 때는 산 넘어 신대리에서 마을 사람들은 정초부터 대보름까지 전국 각지에 북조리를 벌려 고 겨우내내 이 시누대와 씨름하며 겨울을 보냈었다.

이젠 그것도 서양문물에 밀려 우리들에게서 자취를 감춰 가고 있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계곡의 물은 꿈꿉 얼어 붙어 있고 아주 세밀히 주의를 기울여야 간신히 흐르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어 발원지 샘을 찾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

그렇게 산속을 두서너 시간 헤맨 끝에 우리들은 드디어 발원지 샘을 찾을 수 있었다.



<발 원 지>

일명 돼지쌈이라고 불렀는데 산돼지들이 와 물을 먹고 가곤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 졌다고 했다. 또 그 쌈은 일년내내 마르질 않았다고 그 당시 이 집터에 한문을 배우러 다녔다는 강성 백씨가 증언해 주셨다.

옛날 해방전에는 이곳까지 내촌 사람들이 밤마실을 다니곤 했는데, 화전밭에서 나는 조인절미와 메밀 부치기가 정말 일미였었다며, 그렇지 않아도 목마르고 허기진 우리들을 더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참쌈이라 그런지 발원지 돼지쌈은 얼지 않고 미지근했다.

우리들은 너나없이 쌈에 얹드려 마른 목을 축였다.

정말 물 맛은 가히 일품이었다.

기념촬영을 끝내고 나니 오후 2시가 넘었다.

아쉬운 마음이 많았지만 우리들은 배도 고프고 다음 일정도 있고 해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속실리 섬강 발원지를 중심으로 한 동네의 지명 유래와 사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지명의 유래

- **내 촌** : 속실리 입구에 있는 마을로 마을 안에 있다고 해 내촌이라 불리었으며 원님이 전설이 깃든 「중소」, 「눈물고개」, 「절골」 등이 있다.
- **황장곡** : 옛날 궁궐에 쓰이던 소나무가 많이 생산되던 곳으로 옛날에는 2개반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집도 없으며 송어 양식장만 한군데 있다.
- **봉 막** : 운무산과 봉복산 사이에 있는 마을로 6.25때까지는 몇 집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집도 없다. 봉막의 유래는 토종벌을 많이 쳐서 그렇게 불리게 되었고, 산삼이 많이 난다는 심박골, 단풍나무골, 원님이 넘었다는 원님이 고개가 있다.

○ 주요 사적지

- **울무성지(운무성지)** : 울무성은 덕고산에 속한 운무산에 있는데 성을 쌓은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구전되어 오는 얘기로는 고구려 때 쌓은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그 까닭은 진한의 태기왕이 신라군에게 패하여 도주할 때 지르매재를 넘을 때 말안장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울무성으로 갔다고 구전되고 있다. 울무성은 돌로 쌓은 성으로써 그 크기는 2정보 정도이다. 또한 울무성은 문바위와 선바위를 기간으로 하여 수리봉을 둘러 쌓은 성이며, 성내에는 우물, 농경지 등이 있다. 그 위치는 속실리 사무소에서 안속실(내촌)을 지나 눈물고개를 넘어 예계소를 거쳐 원님이재

를 넘으면 문바위와 선바위가 있는 곳에 도달한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곳곳에 남은 성돌에는 돌이끼가 무성하고 온갖 잡초와 이름모를 녀굴로 가리어져 쉽사리 알아보기 힘들다.

울무성을 오르기 위하여 오던 길에서 예계소에서 황정골로 들어가서 약 12km쯤 올라가면 지르매재가 나온다. 바로 이 재가 신라군에게 패한 태기왕이 넘던 고개이며, 이 고개를 계속 내려가면 청일면 신대리가 나온다.

또 이 곳에는 장군의 투구를 닮은 바위가 산 정상에 우뚝 솟아 있으며 또 몇십명은 죽히 피난할 수 있는 동굴이 있는 피난굴이 있다.

· **용수굽이** : 속실리에 있으며 용의 모양을 한 바위가 점점 변하여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용수굽이라 불리게 되었다.

· **추모사** : 춘당1리에 있으며 이 마을에 거주하는 김해 김씨의 씨족 종친간의 우애와 신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된 사당으로 매년 종친들이 모여 조상에 대한 감사의 추모제를 지냄

· **속실리 서낭당** : 속실리 내촌 눈물고개 부근에 있는 서낭당으로 매년 음력 7월 1일 당제를 지내는데, 특이한 것은 다른 곳의 당제는 대개가 정월달에 행해지나 이 곳은 옛날 심메마니들이 산삼을 캐러 가기 전 산신제를 이 때 지냈는데 이는 산삼의 열매를 봐야 산삼을 캐던 관습에서 유래된 듯함.

그래서 당제는 7월 1일로 굳어져 지금까지 전해 내려옴

2) 유동천의 흔적

봉북산에서 발원한 유동천은 춘당리를 거쳐 버들골을 휘감아 돌며 버덩말을 적시며 농거리를 지나 태기천과 합수된다.

버들골은 유동천에 위치한 마을로 옛날 내를 따라 버드나무가 무성했으며 수렵생활이 근간이었던 선사시대의 유물인 고인돌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곳 역시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곳으로 생각된다. 유동천 주변의 마을 유래와 사적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마산** : 춘당 2리 4반에 있는 산으로 옛날 연장골 산등성이 땅 속에서 용마가 나왔는데 원래 용마는 땅 속에서 나오면 즉시 장수를 만나 그 장수가 용마를 타야 하는데 장수를 못 만나 마산에 가서 슬피 울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산을 마산이라 부르게 됐다.

· **주주리 고개** : 유동리와 춘당리 경계에 있는 고개로 부근의 경치가 절경이어서 임금님께서서

지나다가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해서 주주리고개로 불리게 됨

· **미레기 고개** : 유동리에서 감천리로 가는 경계의 고개로 미레기 마을에 미륵불이 있었는데, 이 미륵불이 움직이는 해는 흉년이 들었다고 함.

· **모래재** : 유동3리에서 초현으로 가는 지름길로 고개가 있었는데, 바위가 사암으로 이루어져 늘 모래가 굴러 떨어져 모래재라 불림

· **능상골** : 유동리 뒷산인 덕봉산 남서쪽에 있는 산골짜기로 수많은 골이 형성되어 있어 아흔 아홉골이라 했다.

아주 오랜 옛날 삼국시대에 임금님이 승하하셨는데 능을 쓸 자리를 탐문하기 위하여, 유명한 지관들이 이 곳 덕봉산까지 와서 이 부근에 반드시 명당자리가 있을 것이라 믿고 이곳 저곳을 찾다가 능상골에 이르러 형세를 보니 골이 99골이라 골이 100골이라면 천하에 둘도 없는 명당자리인데 한 골이 부족하여 능을 쓰지 못하겠다고 땅을 치며 탄식하였다고 한다. 이 후부터 이곳을 능상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 **버들골** : 유동리 버덩말로 옛날 이 곳에는 버드나무가 무성했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

· **애고지** : 유동1리에 있는 동네로 상당히 험한 산골로 옛날 어느 도인이 마을에서 평창쪽으로 가는데 너무나도 애를 써서 넘어서 애고지라 부르게 됨

· **농거리** : 유동3리에 있으며 옛날에는 이 곳에 썩이 많이 솟아 항상 땅 위가 질퍽하여 논 같았다하여 농거리라 불리게 됨

· **개울말** : 유동리 뒷편에 있는 마을로 개울가에 동네가 있어서 그렇게 불려 졌으며 보를 중심으로 보둑개라는 작은 마을도 있다.

· **달룽재** : 유동1리에 있으며 이 마을에 가려면 작은 고개가 있는데 고개 모양이 달래 머리를 닮았다 해 그렇게 불리게 됨

· **여우박 골** : 유동리에서 봉덕으로 가는 곳에 여우굴이 있어서 밤이면 여우가 많이 출몰해 그 마을에 갔다가는 해지기 전에 그 곳을 떠나야 했음

· **새우개** : 초현리에 있는 마을로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버덩말** : 유동2리에 있으며 바닥이 넓어 버덩말이라 불리게 되었고, 6.25 당시에는 비행기가 뜨고 내렸다고 함

· **수아지** : 초현리 본 동네 아랫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마을 입구는 몹시 좁으나 안쪽은 넓음. 약 300 년전 경주 김씨가 판서 벼슬을 하직하고 이 곳에 와 숨어 살았는데 수아지의 뜻은 誰我知로 「누가 나를 아랴」였다.

- **소군리** : 유평리에 있는 마을로 옛날 태기왕이 이 곳에서 군대를 주둔시켜 훈련을 시켰다고 해서 그렇게 부름.
- **꼭고개** : 유동리에서 봉덕으로 넘어가는 가장 높은 고개로 현재는 길을 넓혀 자동차가 왕래한다.

○ **유동천의 전설**

· **버덩말 고인돌 전설**

유동2리 버덩말에는 마을 한가운데 고인돌이 있는데 이 곳에 얽힌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옛날 이 마을 한복판에는 한 평 정도 되는 넓은 바위가 아래 위로 짝을 지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고인돌인줄 모르고 농사짓기에 불편하다고 생각하여 의논한 끝에 고인돌을 치워 버렸다.
 그랬더니 그 날 이 후 부터 버덩말에 살고 있는 여자들 중 바람을 피우는 여자가 많아져, 그 까닭을 도인에게 물으니 고인돌을 치워 부정을 타서 그렇다는 말을 듣고, 먼저의 돌을 찾아 옛 모습 그대로 놓았더니 마을이 평온해졌다고 함

· **오늬소(오누소)의 전설**

청일면 유동리 버덩말 앞 유동천에는 옛날에 깊은 소(沼)가 있는데 지금은 그 아래 농용수 보를 막아 본래의 깊은 소 형태는 없으나 아직도 그 곳은 수심이 2m정도 됨

옛날 이곳 버들골에는 10대의 오누이가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오누이간에서 우애가 좋고 효성이 지극하여 이 가정을 모두 부러워 했다.

이 소 위쪽에는 높은 벼랑이 있고 그 위에는 해마다 진달래꽃이 유난히도 곱게 피어 많은 사람들로 부터 탄성을 자아 내게 했다.

하루는 오누이가 너무 진달래꽃이 아름다워 한 송이 꺾으려고 하다 그만 실족해 누이 동생이 소에 빠지고 말았다. 이를 본 오빠는 앞 뒤 가릴 것 없이 동생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 들었다 들다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애뜻한 오누이의 우애를 기리며 소 이름을 오늬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은 버들골에 살던 오누이가 소를 몰고 이 소(沼)를 지나는데 난데없이 커다란 이무기가 나타나 소를 끌고 물 속으로 들어 가려 했다.

당시만 해도 농사짓는 집에서는 소가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기에 오누이는 소 고삐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했으나 그만 소와 함께 물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다고 한다.

· 학이 나온 산

청일면 유평리 앞 산에는 옛부터 명당자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곳이 있었다. 옛날 이 곳에 안동 김씨가 상을 당하여 좋은 명당자리를 찾다가 마침내 이 곳까지 오게 되었다. 지관으로부터 천하 명당자리란 말을 듣고 김씨 문중에서는 기쁨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옛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손이 잘되고 안되는 것은 순전히 조상의 묘자리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명당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곧 복을 받는다는 것과 같이 생각하던 때라, 천하명당에 자리를 쓰게 됐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런데 산역을 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데 난데없이 중년의 한 사내가 나타나 다짜고짜 더 이상 땅을 파면 큰일 나니 그냥 그 깊이에다 모시라고 신신 당부를 했다.

사람들은 별 미친놈 다 보겠다는 듯 일손을 멈추고 그 사내를 쳐다 봤다.

“절대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다 쓰도록 하십시오.”

“뭐요? 아니 지금 판 것은 고작 두 자 밖에 안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산을 쓰란 말이요?”

“글쎄 더 이상 묻지 말고 땅 파는 일을 중지 하십시오.”

“나 원 참 아 이 속에 감춰 둔 보물이라도 있소? 괜히 안달이구려”

사람들은 행색이 초라한 이 사나이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계속 삽질과 곡괭이질을 계속해 나갔다.

“여보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조금 더 파 내려가면 넓적한 돌맹이가 나올텐데 그 이상은 파 내려 가지 마시오. 만약 내 말을 안 들으면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생길거요.”

정말 얼마를 더 파 내려가니 딱딱한 돌맹이가 드러났다. 사람들은 하도 신기해 일손을 놓고 주인 얼굴을 바라봤다.

“계속 파 내려 가시오. 두 자도 안 되는 깊이에다 어떻게 산을 쓰겠소. 곡괭이로 내리쳐 돌맹이를 깨고 더 파 내려 가시오”

사람들은 주인이 그러는지라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돌을 깨 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깨진 돌사이에서 시뻘건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는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갈라지며 커다란 학이 하늘로 날아 올랐다. 그런데 학의 눈은 곡괭이에 찍혀 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던 후부터 이상하게 이 안동 김씨 집안에서는 한 대에 한사람씩 애꾸눈이 생겼다고 전해지고 있다.

○ 유동천의 인물

· 박정수(朴正洙)

박 정수는 청일면 고시리 사람으로 비록 가난한 농부였지만 정의감과 공명심이 강하여 마을의 어려운 일에 두팔 걷어 붙이고 뛰어 들어 온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한 몸에 받았으며, 동학군이 일본 침략자들과 싸운다는 정보를 듣고 아무 미련없이 가정과 농사일을 떨쳐 버리고 동학군에 가담하여 왜병들과 용감히 싸웠으나, 불행하게도 왜놈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왜병들은 동학군의 근거지를 알아내려고 그에게 모진 고문을 가했으나, 그는 목숨을 걸고 이에 굴복치 않았다. 극심한 고문에 마침내 그는 쓰러져 졸도를 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불구자가 되었다.

그는 고향에 돌아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생을 보내다가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하고 한을 간직한 채 일생을 마쳤다.

· 정 문재(鄭 文在)

청일면 신대리 새터에 살던 정 문재는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으나 성격이 활달 호방하며 무예에 남다른 재주를 지녀 부친으로부터 전수받은 총포술에 능통하며 농한기에는 사냥을 즐겼다. 27세에 이르러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동학도들의 싸움이 벌어지자 그는 자진해 화포를 들고 동학군에 가담하여 횡성, 원주, 흥천등지에서 동학군을 이끌고 수많은 일본군들을 물리쳤다. 그러나 전투 도중 불행히도 하복부에 관통상을 입어 귀가 하였다.

그는 고향에 돌아와 가족들의 정성으로 건강은 회복 되었으나, 부상의 후유증으로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불편한 몸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다 조국광복의 모습도 보지 못한 채 81세의 나이로 별세 하였다.

청일면 신대리 새터 마을에 그의 묘소가 있으며 지금도 신대리마을 사람들은 그의 뛰어났던 화포술과 용맹스럽던 무용담을 자랑스레 이야기 하고 있다.

3) 갑천(甲川)의 흔적

봉복산 봉막에서 발원한 섬강 본류와 태기산에서 발원한 태기천이 만나는 곳은 초현리와 유평리를 사이에 둔 양짓말 합수머리이다. 이 곳 부터 甲川이 비로소 시작되는 셈이다.

옛날에는 계천(桂川)이라 불리는 내 였으나 진한의 마지막 왕이었다고 하는 태기왕이 천여 리 동진길에 찌든 갑옷을 이 내에서 씻었다 하여, 그 후부터 계천을 갑내 또는 갑천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처럼 갑천은 태기왕의 한이 서린 역사적인 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짓말 합수머리에서 만난 갑천은 새우개라는 비교적 넓은 농경지에 물을 대주고 밤골을 지나 갑천면 소재지인

구릿들에 이른다. 여기에서 비교적 규모가 꽤 큰 안매일 내와 잔골 내가 합수되고 또 규모는 작지만 밤골 골짜기 삼형제 고개에서 발원한 밤골내와도 합류하게 된다.

이 물은 구릿들의 농경지를 적서 주고 이어 가금방에서 들이 넓기로 유명한 아랫장터 들판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포동리 끝머리라 할 수 있는 마무리에 이르게 되면 이제 부터는 내가 아니고 댐이라는 인위적인 곳에 가두김을 당하며 내로서의 전과정을 마무리 할 것이다.

이처럼 몇 년후면 갑내를 낀 갑천면은 황성댐으로 인해 반동강은 물 속에 잠기고, 일부분만 물위에 남아, 갑천면의 명맥을 유지해야 할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특히나 갑천은 내가 이제껏 나서 자란 고향이라, 물 속에 잠기게 될 산과 들 그리고 동네 심지어는 이름없는 고살길과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라도, 이 번 탐사 여행에서 남다른 감회를 느낄 수 있었다.

여기서는 물속에 잠기지 않는 고향마을을 개략적으로 되짚어 보기로 했다.

○갑천의 지명과 그 유래

- **밤골** : 한자로 표기하면 울동리가 되며 옛날 이 동네에 밤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부러 진듯 하며, 작은 마을로는 장말과 창촌이 있다.
- **진고개** : 밤골 건너에 있는 동네로 여기서 매일로 넘어 가는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가 길어서 진고개로 불러 진듯 함.
- **안매일** : 갑천면 소재지인 매일 건너편 마을로 아랫말 옷말 검두골의 자연부락이 있다.
- **구릿들** : 매일에 있는 동네로 갑천면의 소재지이다. 마을 뒤로 높이 547m의 구릿봉이 솟아 있다. 구릿들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고유한 우리 마을 이름을 일제침략기 억지 춘향으로 광물의 일종인 구리銅자를 써 銅坪이라고 억지를 써 부르고 지금도 체를 하는 일부 사람들이 동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원래 구릿들의 고유한 이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밝혀 둔다.

- **아랫장터** : 시장인 구릿들 아래에 있는 마을로 행정명은 포동리에 속한다 직선거리로 따져 500m는 족히 되는 넓은 들을 가지고 있으며, 옛날 이곳에도 장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나 확인 할 수는 없었다.
- **참샘물** : 아랫장터 갑내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참샘이 마을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불러 지게 되었으며 예전에는 꽤 여러집이 살아 제법 마을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한집도 살지 않는 빈 동네임
- **잔골** : 매일 3리에 있는 마을로 골이 길어서 그렇게 불리어 졌다 함

○ 갑내의 사적 및 전설

· 매일리 층훈탑

갑천면 매일리에 있는 이 층훈탑은 6.25당시 마을의 젊은이들이 오직 내 조국 내 고장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의용경찰을 조직 마을 치안을 위해 힘쓰던 중 패주하던 북한 공산군 대부대에 접전하다 장렬히 조국에 몸을 바친 7명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1965년 지방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높이 4.55m의 콘크리트 7층탑을 세웠는데, 1984년 횡성-서석간 확포장공사로 갑천고등학교 입구로 이전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추원각(追遠閣)

갑천면 매일리에 있으며 갑천면 초대 면장으로 면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정난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웠으며 이 비각은 1932년에 건립되었는데 관리 소홀로 지금은 다 허물어져 가는 형편임

· 이시영(李時永)효자 정려문

갑천면 매일리에 있는 효자 정려문으로 당시 주석대효(主釋大孝)로 불릴만큼 효행이 돈독했던 이시영에게 나라에서 내린 효자 정려문이 남아있다.

· 구릿들의 전설

옛날 매일리에는 이씨 문중 사람들과 조씨 문중 사람들이 집단으로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었다. 두 집안의 세력이 엇비슷해 자연히 집안의 이해득실을 앞세워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았던 것 같다.

그러다 봄 농사철 가래질을 하기위해 내의 물을 대려고, 계천에 나가 보 막을 위치를 가지고 서로 집안의 이해 관계가 얽혀 옥신각신 다투게 되었다.

그도 그럴것이 원래 논농사라는게 물이 제대로 대어 지지않으면 패농 하게 됨은 뻔한 이치라 서로 쉽사리 양보를 하지 않았을것이다.

그때 마침 계천 건너 안매일에서 아주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 계천을 건너 그들의 눈발이 있는 들판으로 접어 들어 기어 가더니 머리를 구릿봉 쪽으로 틀어 산으로 사라졌다.

이를 지켜 보며 구렁이 뒤를 따라 가던 양쪽 집안의 사람들은 구렁이가 지나간 자리에 왕겨를 뿌리고, 그 흔적대로 보를 막고 수로를 내니 어느집 농경지 할것없이 고루 물을 댈 수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그 일 이후 두집안의 친밀도는 더욱욱 무르익었을것이다.

그후부터 이 들판을 구릿들이라 불리게 되었고, 구렁이가 올라 갔다는 산은 구릿봉이 되었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소나무가지로 만든 보는 60년대 까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콘크리트보가 만들어져 예전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 갑내의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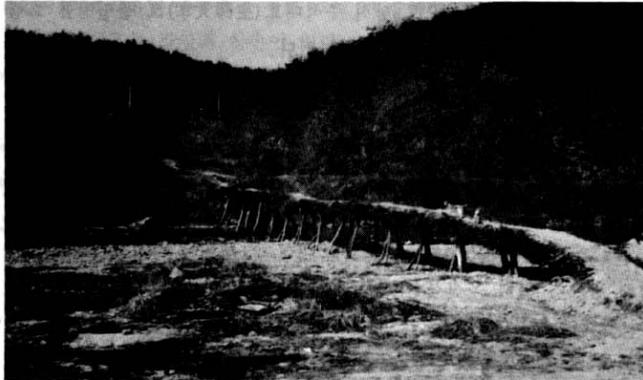
· 김치정(金治正)

김치정씨는 잔골에서 50대의 장년으로 한문서당을 마련 해 10여명의 문하생을 가르쳤는데 학식과 덕망이 높아 인근 주민들로 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은 유생이었다.

황성에서 만세운동이 일어 난다는 소식을 접한 김치정씨는 제자인 신건수씨를 대동하고 한달음에 황성읍으로 달려와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이에 놀란 일본 헌병들은 비폭력 인 군중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이때 선두에서 만세를 부르던 김치정씨도 그만 아깝게 왜놈 총탄에 쓰러졌다. 그후 김치정씨의 사망소식을 들은 잔골마을 사람들은 황성까지 나가 시신을 운구하여, 일경의 눈을 피해 안매일 박해운씨 자택옆 동산에 정성껏 안치했다.

나라를 위해 이처럼 몸을 바쳤지만 당시 일본 헌병과 경찰 눈이 무서워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드러내 놓지 않아 알려지지 않다가 신건수씨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 졌다.



「중금리에서 삼층석탑으로 건너가는 흙다리」

2. 물속에 고향을 두고 (황성댐 수몰 예정지)

1) 역사의 고장 花城

황성댐으로 인해 몇년 있으면 물속에 잠기게 될 수하(水下)리 일대는 너무나 황량하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집들은 전혀 손질을 안해 퇴락 할 대로 퇴락했고, 마을길들은 우마차나 다닐 정도로 협소하고 비포장 상태였다.

마치 우리의 60년대 초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영화 촬영장의 세트 같았다.

화전교 밑의 내는 끽끔 얼어 붙어 있었다. 예전 같으면 썰매를 타는 아이들이 꽤 보일만도 한데 어디에도 썰매타는 아이들은 없었다.

TV와 오락기가 우리네 농촌 아이들을 자연에서 모두 빼앗아 갔으리라.

사무국장님이 열심히 사람을 모아 주셨기에 최 동섭(60세)씨네 사랑방에는 마을 분들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댐 보살관계 때문에 하도 많은 사람들과 부대껴서인지 그들은 낯선 방문객들을 매우 꺼려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우리는 왜 수물지의 유·무형 문화재를 발굴, 보존, 기록문서화 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그들에게 자세히 말씀 드렸다.

우리의 얘기를 들은 그들은 연실 고개를 끄덕거리며 최대한 협조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더군다나 그 자리에 참석한 이장 유승무(53세)씨, 이원희(57세)씨 박운선(65)씨는 비교적 마을의 내력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이라 우리들은 이적지 몰랐던 사실들을 그분들에게서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구전으로 전해지고 확실한 문헌으로는 기록 되어 있지 않은 화성군터에 대해 먼저 물었다. 그들은 비교적 논리정연하게 화성군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이곳이 역사적인 고장이었다는 사실을 정리 해보던 다음과 같다.

우선 그들은 1974년 경지정리때 무더기로 나온 유물에 대해 얘기 했다. 1975년 화전리 농경지 정리를 하는데 불도저 삽날에 다수의 석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 출토 된 유물들은 돌 도끼, 돌 칼, 돌 화살촉, 돌 그릇, 빗살무늬 토기들이었다고 한다. 우리가 직접 본것은 돌 칼과 돌 화살촉이었는데 돌 칼은 길이가 15cm정도의 청석으로 만든 것이었고, 날카롭기가 요즘 쓰는 칼 못지않게 예리 했으며 가운데 구멍이 두개 뚫려 있었다. 또 돌화살촉은 붉은색 돌로 만든것으로 아주 정교 했다.

그 당시 좀 관심을 가지고 발굴 했으면 상당히 귀중한 유물들을 찾을수 있었을 것이라는게 그분들의 공통 된 의견이었다.

지금도 마을 사람들이 동헌터라고 부르는 이 원희씨 집 앞 논과 밭에서는 많은 토기 파편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그 다음 화성군터 였다는것과 관련된 지명들이 다수 있었다. 첫째는 화전리 앞에 있는 국민학교 인데 왜 하필 동네 지명과는 상관이 별로 없는 花城국민학교로 했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화전리에는 감사골이 있는데 옛날 감사가 이곳을 방문했다. 그곳을 넘었다해서 그렇게 불리어 진다고 하며, 개울 건너에는 지금도 불탄 쌀이 발견되는 군량골이란 동네와, 부동리에 있는 옛날 감옥이 있어서 가막골로 불려지는 동네, 또 화전리 입구 망루처럼 생긴 망본산이

있는데 구전에 의하면 여기서 망을 보았었다고 한다.

또한 화전리 뒷쪽에 능님이라는 무연고 묘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확인 해보니 일반 서민들의 분묘 같지는 않는 꽤 큰 규모의 폐묘가 1기 있었다.

비석처럼 보이는 돌이 있어 살펴보니 아주 오랜 세월 방치 돼 거의 글자를 식별 할 수는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이곳에 고을을 다스리던 관청이 분명 있었을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

1987년에 발간 된 향토지에는 화성의 유래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花城이라고 이름 지은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갑진년이라고 하는 설이 있음. 갑진년 이전 그 당시의 화성군청은 뒷면에 험한 어답산이 있어 당시의 반란군들의 은익처로 이용 될 염려가 있어 화성군청이 지금의 횡성읍으로 이전 하였다고 함. 그후 그자리에 학교를 건립하고 화성군의 이름을 따서 花城학교라 이름 붙이게 되었고, 그 당시 화성군의 군수는 이범웅씨 였다고 함

위의 문헌을 살펴보면 그리 오래지 않은것 같은데 확실한 고증을 거치지 못한 사실이라 그 진위를 판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쨌었던 이곳이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터 잡고 살아 온 역사적인 고장이었던것만은 확실한것 같다.

우리는 고인돌이 원형상태로 보존 돼 있다는 증금리로 향했다.

증금리도 화전리나 별로 다르게 없었다.

집들은 퇴락 했고 몇년째 방치 돼 페인트칠은 모두 벗겨져 을씨년스럽기만 했다. 그래도 집집마다에는 꽤 좋은 승용차들이 차고에 들어차 있었다.

고인돌이 있다는 능머루는 전문가가 아닌 내눈에도 한눈에 이곳이 먼 옛날 수렵생활을 하던 적지로 보여졌다.

고인돌은 현재 증금리 이장을 보는 정일화(42세)씨 집앞 밭에 있었다. 옛날 수렵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빙 돌아 가고 밭에는 돌멩이 하나없는 사질 양토였다.

주변 상황으로봐 자연석이라고 절대 볼 수 없는 여건이었다. 정일화씨가 중학교를 다닐 무렵에는 이런 고인돌이 4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밭가운데 바위가 농사 짓는데 가로 고치기 때문에 석수장이를 불러 바위를 깨 냈다고 한다. 바위를 깨 내자 그 안에는 개울돌을 둥그렇게 쌓아놓고 그 가운데에 돌 칼, 돌 화살촉이 놓여져 있었다고 한다. 그때만 해도 그런것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해 집안팎에 그 유물들이 텅굴다 모두 없어졌다고 한다.

다만 그곳에서 30m떨어진 밭머리에 고인돌로 보이는 바위가 1기 거의 원형 상태 그대로 보존 되어 있었다.

얼마전 강원대학교 최 교수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조사를 해 갔는데 그분 얘기로 고인들이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수몰 되기전 화전리와 이곳 능머루를 전문가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발굴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들은 어두운 능머루 별관을 되짚어 올라왔다.

2) 골타데이에서 마을까지(小地名 由來)

옛말에 상전벽해(桑田碧海)란 말이 있다. 아마 오늘의 수몰 예정지 수하 5개리 두고 한 말인 듯 싶다.

어느누구가 이곳이 물속에 잠기리라 짐작이나 했겠는가? 그런데 이번 탐사를 하면서 나는 이곳 지명유래를 살펴 보면서 몇번이나 무릎을 치며 신기함에 놀랐는지 모른다.

내 어릴때도 사람들은 마무리 아래를 水下라 했고 신대, 갑천리를 水上이라 불렀다. 그 당시는 별 뜻 없이 옛날부터 그렇게 불려졌으니 그렇겠지 했는데, 묘하게도 횡성댐 물속에 잠기게 될 동네가 수하가 됐다. 글자 그대로 물밑동네란 뜻이다. 몇백년전 아니 더 이전 우리 조상들은 먼 훗날 이곳이 물속에 잠기게 될 것이라는걸 정말 예상 했었던 말인가?

그런 이름은 또 있었다. 포동리에는 마무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묘하게도 댐의 물이 이곳까지 마지막으로 들어 찬다는 사실이다. 내가 듣기로는 평화의 댐에도 마무리란 마을이 있다고 한다.

그 밖에도 부동리에는 새말이란 동네가 있는데 그곳까지는 물이 안차며, 부동리에는 삼거리로 넘어가는 곳에 턱고개가 있는데 물이 그 고개 턱까지 들어 찬다는 것이다.

그리고 탐둔지에서 대관대리로 넘어가는 곳에 무리고개가 있는데 그곳도 댐과 무관하지 않는 지명 같았다.

이처럼 수몰 예정지 곳곳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나 신기한 지명들이 여러곳 있어, 「桑田碧海」의 교훈을 다시한번 되 새기게 했다.

필자는 이곳을 다섯차례 정도 방문 하면서 머지않아 물속에 잠기게 될 부락명을 유래가 있건 없건 아주 작은 골까지 이글에 신기로 했다.

편의상 댐의 가장 윗쪽인 포동리부터 지명이름을 살펴 보기로 했다.

○ 포동리(浦洞里)

옛날에 작은 나무가 있었던 곳으로 그렇게 불려 진듯 하나 지금 현존하는 마을 사람들 기억으로는 나무터나 나뭇배를 기억하는 이가 없었다. 이곳에는 마무리, 부엉바위, 조고리골, 고래골 등의 작은 마을이 있다. 이 마을 마무리가 횡성댐 마지막 수몰지이다.

· 마무리 : 포동리 중심마을로 횡성댐 수몰 마지막 지점이 된다. 예전에는 迎日鄭氏 집성촌으로 50여호 되었으며 타성들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마을 한가운데 열녀 鄭俊蕸의 처 강

름 김씨부인의 열녀각이 있다.

- **부엉바위** : 한자로 「휘암」이라고 부르는데 마을 뒷산 바위 절벽에 부엉이가 서식해서 그렇게 불러 졌으며 이곳 역시 수물지이다.
- **조고리골** : 부엉바위 마을 뒷편에 있는 긴 골짜기로 첫째골 둘째골등이 있는데 골짜기가 길고 매우 험하며 자연 경관이 매우 뛰어난 옛날에는 5집정도 사람이 살았지만 지금은 한집도 없다. 옛날 이 마을에는 해마다 벼농사 밀거름으로 쓰이는 갈(참나무나 떡갈나무의 잎)을 꺾으러 매년 음력으로 5~6월경 산엘 올랐다. 어느해 마을 갈꾼들이 갈을 꺾으러 이 골짜기에 올라보니 백낮에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 먹고 조고리(저고리)만 남겨 놓아 갈꾼들은 혼비백산하여 산을 내려 왔고 그후부터 그곳을 조고리골이라 불렀다. 이곳은 주위경치가 아름답고 옛날에는 절도 있었으나 지금은 소실되어 없고 탐과 선불(立佛)만이 남아있다. 옛날 진한의 태기왕 융성기에는 휴양지로도 이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전 해 올 정도로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 **건넌골** : 마무리 건너에 있는 마을
- **지르넘이** : 고래골을 질러서 가는 길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게 됨
- **고래골** : 마무리에서 정금을 넘어가는 고래 고개가 있고 고래골에는 망데이골, 반상골, 갈골, 작은석꽃이, 큰석꽃이, 논골등의 작은 골이 여럿 있다.
- **빈굽이** : 마무리에서 아랫장터를 넘어가는 고개로 몹시 험하며 아래는 낭떨어지로 깊은 보가 있다. 고개가 빙 돌아 구부러져 그렇게 불러 졌으며, 마무리 고개 초입은 굽재이라 불렀다.

○ 화전리(花田里)

횡성의 옛이름인 화전 또는 화성으로 불린 동네로 옛날 이곳에 횡성을 다스리던 관청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1974년 농경지 정리때 석기 시대 유물이 다수 출토 되기도 한 곳이다. 동헌터가 있었다는 버덩말과 그 뒤편 땅뚜루라는 자연 부락이 있다.

- **버덩말** : 화전리 중심마을로 넓은 들판이 있어서 그렇게 붙여진 듯 함
 - ※ 동헌터 : 버덩말 이원회씨 집터를 중심으로 옛날 이곳에 동헌터가 있었다고 전해 짐. 다수의 돌칼, 돌도끼, 돌화살촉, 토기들이 출토됨.
 - ※ 감사골 : 동헌터 뒤에 위치한 골짜기로 옛날 이곳에 관청이 있을때 이곳을 감사가 방문하고 넘어갔다고 전해짐
 - ※ 능넘어 : 버덩말 뒷편 작은 고개로 그 고개 위에는 옛날 능이었다고 전해지는 규모가 제법 큰 폐묘가 1기 있고, 비문은 알 수 없지만 마모가 심한 비와 상석 비슷한 것이 덩굴고 있다.

- **땅뚜루** : 지도에는 땅뚜루라고 표기되고 있는데 이곳 사람들은 한결같이 땅뚜루라고 부른 확실한 지명유래는 아는이가 없었다.
- **모재기** : 땅뚜루 뒤편에 속한 마을로 마을 위치가 모가 저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 진듯하며, 갑천 가는 시멘트 다리가 놓여져 있다.
- **화전나루터** : 옛날 다리가 없던 이 마을에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던 나루터가 있었는데 화성 학교 위와 모재기 다리 위에 나루터가 있었다. 배 규모는 20여명의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규모였다고 한다.

○ 구방리(舊坊里)

횡성에서 서석가는 도로를 따라 오른쪽에 있는 마을로 넓은 구방들을 끼고 있으며, 양지말, 응달말, 새말, 음곡, 다래말들의 작은 마을이 있다.

- **양지말** : 마을이 양지쪽 사향한 곳에 자리잡고 있어서 그렇게 불려짐
- **응달말** : 구방리 중심으로 화성 국민학교가 있고 마을이 음지에 위치함
- **새말** : 구방리중 가장 뒤편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로 이곳만은 유일하게 물에 잠기지 않음
- **음곡** : 땅뚜루 개울 건너 마을로 이 마을 역시 음지쪽에 자리잡고 있어 한자로 쓰다 보니 그렇게 불려 진듯함
- **개골고개** : 구방리에서 횡성쪽으로 가려면 작은 고개가 있는데 고개 이름을 따서 이 부근 마을을 흔히 개골이라 부른다. 확실한 지명유래는 알 수 없었다.

○ 부동리(釜洞里)

부동리는 여기서는 가마골, 또는 감악골로 불려 진다. 한자로는 가마 **솥**자를 써서 그렇게 표기 하고 있으나 마을 유래에 있어서는 옛날 감옥소가 있어서 그렇게 불리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음. 더러는 동네 모양이 가마처럼 생겨서 그렇게 불려 졌다고 하나 어떤것이 확실한 유래인지 고증할 길이 없어 두가지를 다 소개함

- **가막골** : 부동리 중심지로 옛날 이곳이 횡성을 다스리던 관청이 있을 때 죄인들을 가두어 두던 감옥이 있어서 그렇게 불려 지게 되었다는 설과 동네모양이 가마 처럼 생겨서 그렇게 불려 졌다는 2가지 설이 있음. 아무튼 이 곳에 물이 담기게 되니 큰 가마솥이 됨은 정한 이치가 되는 셈이다.
- **웃마을** : 구방교 위에 위치한 마을로 들이 넓고 동네가 집단으로 들어차 있다.
- **아랫마을** : 부동리 아래에 위치한 마을로 마을이 아래에 있다해서 그렇게 불려 진 듯함.
- **생깃말** : 옛날 향교가 있었던 곳이라 해서 행교말 또는 생깃말이라 불리는데 화성군터와 무관하지 않은것 같다.

- **숫대배이** : 화성정에서 부동쪽으로 가는 산길으로 옛날 마을을 수호하는 숫대가 있었다는 설과 이곳을 일명 형장터라고도 하는데 효수대가 있어서 그렇게 불려 지게 되었다고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음.

○ **중금리(中金里)**

중금리는 옛부터 중금리로 불리던 곳으로 중금리 유래는 두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이 마을 주변에 금이 많이 생산 돼 그렇게 불려 지게 되었다는 설과 다른 하나는 금이 많이 생산 되었던 정금의 쇠김과 사금이 많이 났던 사기막과 중간에 위치 했다해서 중금이라고 불렀다는 얘기가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었음.

자연 부락으로는 중금리 중심지인 능머루, 군량골, 탐둔지, 대문동, 짝바위, 양짓말, 건넌말 등이 있다.

- **능머루** : 중금리 중심지로 아마도 화전리 능넘이와 연관이 있는듯 함.

※ 산수골 : 능머루 맞은편 골짜기

※ 말무덤 : 옛날 이곳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죽은말을 묻었다고 함

※ 애숲둔지 : 이 마을에서는 지금도 상당수의 기와 파편이 출토 됨

※ 솔모종 : 소나무를 모종해서 길렀던 곳에서 유래 됨

- **군량골** : 이 마을에는 옛날 군인들의 양식을 보관했던 창고가 있는듯함. 지금도 탄화 된 쌀이 다수 발견되곤 함

※ 돌서낭당 : 돌로 된 서낭으로 옛날에는 두개의 바위가 있어 짝 바우라 불렀음. 예전에는 치성을 드리기 위해 금줄을 매고 매우 신성시함.

※ 숲밭 : 굴양골 바깥쪽 마을로 옛날 이 마을이 어담산이 바로 보이면 안 좋다고 해 이 마을 바깥에다 액막이로 산 오리나무를 심었다고 함

※ 쟁골(장골) : 골짜기가 상당히 깊으며 불탄골, 농골, 제비집골, 알가쟁이골, 아홉다랭이골등이 있다.

- **턱골** : 이 마을에서 삼거리로 넘어 가는곳에 위치 했고, 이곳 턱밑에 까지 횡성댐 물이 차오름

- **뒷골** : 능머루 뒤에 있는 마을

- **탐둔지** : 능머루 개울 건너 있는 마을로 옛날에 이곳에 큰 절이 있었으며 지금은 탐만 두개 남아 있음.

※ 물위고개 : 능머루에서 사기막으로 넘어 가는 고개로 물위라는 말이 댐과 관련이 있는 듯 함.

- ※ 진골 : 능머루 건너편에 있는 골로 골짜기가 깊어서 그렇게 부른듯 함.
- ※ 드렁골 : 탐둔지에 있는 지명으로 논두렁이 많아서 그렇게 불렀다 함
- ※ 큰셋자리 : 지붕을 엮었던 새 가 나던 곳에서 유래 된 듯 함. 그위에 작은 셋자리도 있음
- 대문동 : 능머루 위에 있는 동네로 옛날 부자였던 진앙(陳央)의 전설이 있는 마을 임
- 사기막 : 현재 횡성댐 건설예정지로 옛날 이곳에는 대규모 사금 광산이 있었으며, 여기서 채취한 사금은 능머루 개울가에 금방아가 있어서 금을 가공했음. 지도에 사기막으로 표기 돼 있어 혹 사기같은 그릇을 구운 곳이 아닌가 생각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그메기라고 불러야 옳을것 같다.
- 구만리골 : 능머루 위 벌판으로 들이 넓어서 구만리는 실히 된다고 과장해서 그리 불렀든것 같음
- 빙골 : 능머루 있는 골로 옛날 절터가 있고 절골이라는 작은 골이 있음.
- 속섬 : 부동리 밑 능머루 보밀에 있는 섬으로 밤나무가 많고 논밭이 꽤 많아 예전에는 2가 구나 살았었는데 지금은 한집도 없으며, 더군다나 모래와 자갈 채취로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은 간 곳 없고 흡사 물 가운데에 아스콘 공장을 세워 놓 듯 함.

3) 花城의 사적

○ 중금리 3층 석탑

갑천면 중금리 탐둔지라는 마을에 있으며 이탑은 동서 2기의 탑으로 전설에 의하면 이곳에 신라시대 거찰이 있었는데, 도둑이 너무 들끓어 관에서 불태웠다는 설이 있고, 또다른 일설에는 임진왜란때 탐둔지에서 쌀 씻은 물을 하류로 보냈더니 하류에 있던 왜군들이 쳐 올라와 절과 동리를 불태웠다고 한다. 그런데 문헌에 보면 수백리 밑에 왜군들이 진을 치고 우리 군대와 싸웠다는 기록이 있는걸로 봐서 쌀씻은 물이 그곳까지 갔으면 그럴만도 하다. 어찌됐건 본당이 모두 불타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남아 있는 탑의 규모로 봐 상당히 큰 절이었던것만은 사실인것 같다.

이 탑들은 신라 하대 작품으로 추정되며, 전체 높이가 약 5m로 2층기단으로 되었고, 상층기단의 각면이 2매의 면석으로 되어 있으며, 4우(隅)에 팔부신상이 양각되어 있는게 특징이다.

1977년 12월 6일 강원도 지정문화재 19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댐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어디론가 이전해야 할 것 같다.



〈중금리 3층석탑〉

○ 중금리 고인돌

감천면 중금리 능머루 정일화씨 앞밭에 있으며 원래는 4기가 있었는데 30여년전 농경지 정리로 3기는 파손되어 없으며, 지금은 1기만 발머리에 남아 있다. 그 당시 고인돌 해체시 고인돌 밑에는 동그란 개울돌을 빙 둘러놓고 돌칼, 돌 화살촉 같은 부장품을 매장 한게 출토 됨. 지금 남아 있는 비교적 보존 상태가 원형에 가까워 문화적 가치가 높을것 같으며 완전히 수물 되기전 전문가가 말아서 제대로 발굴 작업이 이루어 졌으면 함.

· 복성정지(福星亭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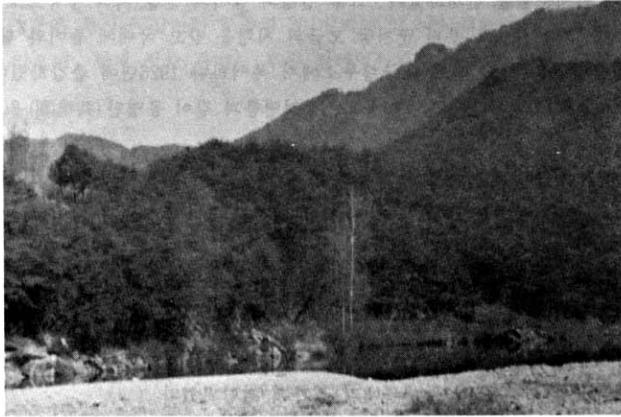
화전리 버덩말 앞 보 건너편에 있었던 정자터로 지금은 물이 빙 굽이 돌고 있지만 그 당시는 그곳이 깊은 연못으로 되어 있었으며 산밑에 정자가 있었다고 전함. 이 곳은 대문동에 살던 진양(陳央)이 면학을 위해서 지어 놓았던 정자로 본 가에서 노비를 일열로 세우켜 음식을 날라다 먹었다고 하니 그의 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그후 어떤 관리의 모함으로 그는 극형에 처하게 되었고 그당던 재물은 모두 나라에 빼앗기고 말았다.

그후 복성정도 자취를 감추고 말았으며, 그 당시 그를 따르던 노복들이 그의 은혜를 못 잊어 하며 그를 사모하는 「영세불망비」를 세우고 헤어졌다고 하는데, 몇백년전 마을 사람들에 의해 그비가 발견 되었으나 관리 소홀로 어느해 장마에 유실되어 지금은 그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 화성정(花城亭)

화성정은 1977년 부동리, 구방리, 중금리, 화전리에 거주하는 노인회원 23명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금을 기초자금으로 하여 4개 부락주민들의 모금을 가지고 옛복성정 자리 위인 구방리산
인 계천강가 벼랑위 숲밭에 건립한 정자이다. 이 화성정을 건립하는데는 6개월이 소요 됐으며,
이 좋은 명당자리는 화전리에 거주하는 유효준씨가 회사를 했다.
주변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길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쉬어 가고 있다.



〈복 성 정 지〉



〈화성정 전경〉

4) 花城의 人物

○ 최양옥 (崔養玉. 1893년 12월 5일~1982년)

애국지사 최양옥은 1893년 황성군 갑천면 화전리에서 출생하여 원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중등학교에 입학 하였다. 중학교 재학중 3.1운동이 일어나자 고향인 황성으로 내려 온 그는 동지들을 규합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후 일경의 감시의 눈을 피해 중국으로 망명한 그는 만주에 가 이동녕, 박은식으로 부터 군자금 모금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들어와 활약하다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7년을 언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26년에 출감하였다.

출감후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안창남, 이용화, 김정연등과 같이 공명단(共鳴團)을 조직하고 단장이 되었다.

그후 독립운동자금 모금을 목적으로 동지들과 함께 서울발 춘천행 기차를 정지 시키고 일본인들로 부터 막대한 돈을 탈취했으나, 이를 추적한 일본군과 천마산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 그만 그들에게 체포되어 10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다.

광복후에는 인천형무소장등을 지내다 퇴임후 고향인 갑천면 전촌리에서 가족도 없이 외로운 나날을 보내다 1982년 노환으로 별세했다.

공명단 활동으로 건국훈장 국민장을 받았다.

1993년 그의 애국심을 기리는 비가 대관대리 길가에 건립되었다.

○ 김씨 (鄭俊齋의 처)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해에 갑천면 포동리에는 강릉 김씨 부인과 남편 정준제씨가 살고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전라도 지방 곳곳에서 굶은 장정들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의병으로 출전하였다. 이때 정씨도 김씨 부인을 타관 객지에 홀로 남겨두고 출병했다. 정씨는 용감하게 싸우면서 많은 전공을 세웠으나 불행히도 싸움터에서 부상을 입었다.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집을 찾아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김씨부인이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찾아 가 보니 남편의 모습과 기력은 말이 아니었다.

부상당한 팔과 다리는 치료를 하지 못해 썩어 들어 갔고, 입은 의복은 갈래갈래 찢겨지고 피에 젖히고 음식을 먹지를 못하여 피골이 상접한 가련한 모습이였다.

김씨 부인을 본 김씨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김씨 부인은 남편의 수족을 주물러서 정신을 차리게 한 후에 마을에서 밥을 얻고 남비를 빌려다 죽을 만들어서 남편에게 권하여 먹게 하였다. 정씨는 김씨부인의 지성과 정성어린 간호의 보람도 없이 그날 밤 고열이 나고 몸이 뒤 틀리며 마침내 운명을 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김씨부인은 비통함과 슬픔을 참을 수 없어 며칠간을 통곡하여 지내다가 남편의 시신을 마을로 부터 한적한 곳으로 옮긴 다음 남편의 시체와 더불어 장기간을 동속하였더니 시

체가 말라 가볍고 깨끗해지자 손수머리에 이고 며칠이 걸려 수백리길을 걸어 고향인 감천면 포동리 마무리에 마을에 돌아와서 문중 소유림인 포동리 고개 동산에 장사를 지냈다. 장사를 지낸 후 남편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묘소 옆에 움막을 만들고 시묘를 살면서, 날마다 치마폭으로 돌을 날라다 묘소 돌레에 화담을 쌓으면서 3년 시묘를 지냈다. 그후 이 소문이 널리 퍼지자 유림에서 김씨 부인의 정성을 가상히 여겨 열녀로 추천하여 조정에서 정씨 문중에 교지를 하사하여 열녀 정문을 건립케 하였다. 이때 건립된 정문은 횡성군 감천면 포동리 301번지에 있으며 해마다 음력 9월 9일이면 9일 차례를 드리고 있으며, 현재 정문 관리는 후손 정의영씨가 정성들여 보살피고 있다.

○ 광채상(郭采象)

광채상은 감천면 추동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넉넉치 못한 생활중에서도 평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한 효자였다.

조식으로 끼니때가 되면 부모의 진지는 쌀밥으로 따로 떠서 부모님이 드시게 하고 남은 가족은 잠곡밥을 먹으면서도 누구 한사람 불평이 없도록 가르쳤다. 그는 대관대리에 있는 큰 소(沼)에 나가 틈을 내어 낚시를 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일 쏘가리가 두마리 밖에 안 잡혔으며, 그는 그것으로 저녁과 아침 식사 때 반찬을 만들어 부모를 모셨다.

또한 소의 물은 아무리 비가 와도 늘거나 흐르지 않았으며 가물어도 마르지 않았다. 광채상의 효심에 하늘이 감동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이 소에서 아무리 낚시질을 해도 고기는 물리지 않았다. 그는 80세가 되어 작고 하신 부모의 묘소에서 3년동안 시묘를 했으며 그러는 동안 부인 김씨는 집에서 남편 대신 농사일을 하며 아이들을 정성껏 키웠다.

이 소문이 널리 퍼지자 유림에서 광채상의 효행을 추천하여 효자 교지를 하사 받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부모가 돌아 가시자 소의 고기는 잡히지 않았으며, 그가 낚시질 하던 바위는 쏘가리 바위라고 불렀는데 6.25때 파괴되었다.

현재 추동리에는 광채상의 효자 정문이 남아 있다.

5) 花城의 전설

○ 대문동(大門洞)과 복성정(福星亭)의 유래

감천면 중금리에는 자연부락명으로 대문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동쪽과 북쪽으로는 나즈막한 동산과 웅장한 산이 둘러섰고, 서쪽과 남쪽으로는 마을중 최고의 기름진 옥담이 넓은 돌을 이루고 있으며 약 100호의 농가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이 곳 대문동은 지금으로 부터 450년전 전국에서 손 꼽히는 부자가 그 부력을 천하에 떨치던

진양(陳央)이란 사람의 가대였다.

이 집 주위에는 4대문을 달았고 담장을 일곱겹으로 쌓았으며, 역시 일곱문을 들어서야 안채에 이르렀고, 진양의 호사는 진시황의 사치 못지 않았으며 자택 주위에는 노비들의 거처를 두었다. 본동의 대문으로 부터 700m떨어진 곳의 정원에는 연못이 있었고, 연못에는 유선(遊船)을 띄우고, 이 유선에선 밤낮 흥겨운 주연이 벌어졌다.

그러나 진양은 워낙 성품이 온순했으며, 재력이 있다하여 가난한 사람이나 타인을 억압하거나 업신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을 내일처럼 보살 피 주었다.

그리고 여기서 3km쯤 떨어진 곳에 福星亭이라는 정자를 하나 세웠는데 계천 강가의 산밑에 있었는데 정자 밑에 연못까지 있어 그 정취가 근방에서는 비길데가 없는곳이었다.

여기서 진양은 주로 면학 독서로 소일 했는데, 그가 들 음식이 식지않기 위해 본가에서 부터 노비들이 일렬로 계주식으로 음식을 날랐다고 전해지고 있다. 다소 과장이 섞였겠지만 그 당시 그의 부가 어느정도인지 짐작할 만 하다.

이때 한양의 어느 관리가 찾아 와 보고서 그의 영화에 놀라 그를 모함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상소문에는 「한나라에 두 임금에 있을 수 없거늘 진양은 평민으로 제왕의 행세로 백성위에 군림 해 그 호사가 말 할 수 없으니 그의 목을 베어 천하의 계(戒)로 삼음이 좋다.」라 하였다. 임금은 이 상소를 읽고 크게 노하여 자세한 것을 알아보지도 않은채, 그를 극형에 처한 후 재산은 몰수하여 국유화 하였다.

이때 그를 섬기던 노비들은 옛주인의 은덕을 잊지 못해 그를 사모하는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를 세우고 헤어졌다고 하는데 오래전 마을 사람들 손에 의해 복성정터 부근에서 그 비가 발견 되었으나, 어느 해 홍수 때 유실 됐다고 한다.

그런데 진양이 조정에 미움을 산 것은 그의 이름 때문이라고 한다. 진양이라고 불러야 할 것을 사람들이 모두 진왕이라고 불러 마치 그가 陳가 성을 가진 왕으로 자처한 것으로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란다.

그렇게 해서 진양이 살던 동네를 지금도 대문이 있던 동네라 해서 대문동 또는 그 안쪽 마을을 대문안골이라 부르며, 진양이 낚시를 즐겼다는 독지병은 부동리 좌편 강가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곳도 머지않아 물속에 잠겨 진양의 자취는 더이상 우리 모두 볼 수 없으리라.....

○ 장독바위 전설

감천면 부동리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구전에 의하면 연대와 성명은 알수 없지만 이곳 부동 장독바위 부근에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부자집 뒷산에는 효험이 좋은 약수가 있어 각종 질병이 있는 환자들이 병을 치료 하고자 봄부터 가을까지 찾아 오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 당시만해도 부동리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몇 집 되지 않았고 가난하여 침식을 제공할 수 없

는 처지라, 자연이 집이 크고 부자니까 이 집으로만 사람이 몰려 들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부자집 주부와 하인들은 손님 접대하는 일로 하루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고 고달프기만 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일년내내 그 지경이니 그들로서는 손님이라면 칠팔머리를 뒤흔 흔들 정도였다.

여름철 어느 날인가 이 부자집 때문에 탁발 스님이 찾아 와 시주를 청했다. 큰 며느리가 나가서 스님을 맞이했다. 스님은 부처님께 공양할 시주를 청하러 왔다고 정중히 말했다. 그러자 큰며느리는 시주는 얼마든지 할테니 소원을 들어 달라고 간청을 했다. 그러면서 큰며느리는 우리집 뒷편 산에 효험이 좋다는 약수가 있어 질병 치료 차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손들이 하나같이 우리집으로만 몰려 와 죽겠으니 어떤 방도가 없느냐고 물었다. 스님은 큰며느리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매우 난처한 안색을 하며, 방법은 있으나 가르쳐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큰며느리는 손님에 년덜머리가 난 터수라 스님을 졸랐다. 많은 시주를 받은 스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서는, 비방을 가르쳐 주고는 홀연히 자리를 떴다.

스님이 가르쳐 준 비방은 개를 잡아 그 피를 집뒤편 약수에 뿌리고, 개 가죽을 약수위에 덮고 쌀서되 서흙을 놓고 절을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별로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 속으로 큰며느리는 무척 좋아했다. 그러나 기회가 오지를 않았다. 사람이 오질 말아야 개를 잡고 피를 뿌리고 가죽을 덮어 절을 해야 했는데 여름 내내 사람이 끊이질 않고 찾아왔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자 사람들의 발길은 뜸해지더니 그마저도 끊어졌다.

큰며느리는 몰래 하인들을 시켜 개를 잡게 하고는 그 피를 약수에 뿌리고 개가죽을 약수 바위에 덮어 씌우고는, 스님이 말한대로 쌀을 놓고 절을 했다. 그런데 며느리가 삼배째 절을 하는데 맑던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으르렁거리고 검은 구름이 용틀임하더니 장대같은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개울물이 넘치고 때아닌 11월에 장마가 시작됐다. 산골짜마다 황토물이 쏟아져 내려와 강으로 모이니 마을 앞 부동천은 마침내 독을 터치며 마을로 물이 쏟아져 들어 왔다. 순식간에 이 물은 부자집을 흔적도 없이 쓸어가고 말았다.

장마가 멈추고 물이 준 뒤에 부자집 큰며느리는 자기 집이 있던 곳을 바라보니 고래등 같은 큰 집이 있던 자리는, 강물이 흘러가는 물길이 되어 있었고, 그 물 가운데 우뚝 남아 있는 것은 장독대로 사용하던 장독 바위뿐이었다. 그리고 그 많던 논밭은 강변 돌밭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후 부자집 가족은 어데론가 떠나갔다. 장독 바위는 부동교 아래쪽에 아직도 남아 있으며 그 넓이는 2평정도 되며, 바위옆에는 그 집에 있던 나무로 추정되는 아름드리 나무 그루터기가 있고, 실제로 부동리 논밭은 지금도 한자 이상만 파도 온통 개울 모래뿐이라 한다.

Ⅲ. 탐사를 마치며

이번 탐사에서 우리가 거둔 수확이라면 이제껏 각종 문헌이나 자료, 심지어는 황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잘못 알고 있던 蟾江 발원지의 정확한지점과 섬강의 길이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과, 황성담 수물지에 대한 이제까지 어떤 조사 활동에서도 별로 언급 되지 않았던 밀도 있고 역사적인 시각으로 그 곳에 다가가 봤다는 것일 것이다.

앞에서도 자세히 밝혔듯이, 섬강의 길이는 기존의 문헌에서 언급한 것보다 10km 더 긴 103km 라는 것이 도상계측과 실측에 의해 밝혀졌다.

그리고 섬강의 발원지도 태기산이 아닌 청일면 속실리 봉막부락 봉복산 중턱 돼지샘이란 것이 우리 탐사팀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수물예정지에는 水下를 비롯한 꽤 많은 지명들이 수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과 이런 마을 이름이, 몇 백년 전부터 불리어 졌다는 사실에 신기함을 넘어 어떤 경이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이제껏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花城의 유래들을 군량골, 가마골, 동헌터 花城학교 등의 지명과, 화전리에서 출토된 유물과 중금리 고인돌 등의 유물과 관련지어 확실한 연대나 성명 등은 밝힐 수 없었으나, 이 곳이 먼 옛날 이 땅을 다스리던 고을이었음을 여러가지 정황으로 알 수 있었다.

수물지 작은 골짜기에서 큰 마을 이름까지 유래가 있던 없던 나름대로 한 군데도 빠짐없이 챙겨 봤다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탐사를 마치며 원고를 마감하려고 하니 너무나 미진하기만 하고, 열의만 앞세워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하고 그들에게 다가섰던 내자신이 부끄럽기만 하다. 또한 원래 계획에는 3부로 화라지에서 황성 끝점 곡교리까지 섬강을 따라 탐사할려 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댐 까지만 탐사가 이루어졌다. 이 부분은 수물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다.

끝으로 이 일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재택 황성문화원 원장님 그리고 탐사에 끝까지 동참해 주시면서 많은 도움주신 권용환 부원장님, 조임식 사무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 내고향 일이라며 기꺼이 탐사활동에 많은 도움 주신 현지 주민께 정말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參 考 文 獻

- 정 재영, 「고향」 성광사, 1987
김 승기, 「횡성의 맥」 강원일보 출판국, 1983
강원도지 편찬위원회, 「江原道誌」, 단기 4292
횡성군지 편찬위원회, 「橫城郡誌」, 강원일보 출판국, 1986
횡성 교육청, 「橫城郡誌」, 國際출판 인쇄 주식회사, 1968
강원일보사, 「태백의 음면」, 강원일보사 출판국, 1975
조 동걸, 「橫城과 3.1運動」, 현대인쇄 문화사, 1972
오 지영, 「동학사」, 문선각, 1973
이 중환, 「택리지」, 을유문화사, 1993
이 홍식, 「국사 대사전」, 삼영출판사, 1984

鄭 才 永

- 小說家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 조사위원
- 횡성문화원 이사
- 횡성문학회 회장

漢 詩

- ♣ 五偏時聖火橫城邑過處奉送時 / 金 鐘 萬
- ♣ 戒家兒在公職 / 宋 寅 錫
- ♣ 祝光復節 / 金 台 鎮
- ♣ 故 鄉 / 趙 廣 植
- ♣ 渴望新相國 / 金 基 元

五倫時聖火橫城邑過處奉送詩



鶴山 金 鐘 萬

五倫聖火共歡迎
到處官民擅友情
雲開槿域光留碧
月出禾城影滿清
滄海龍飛和氣動
德山虎距雨風晴
大市小州加玉鏡
今朝奉送感懷生

五倫時聖火橫城邑過處奉送詩

오륜의 성화를 한가지로 환영하니,
도서관민은 우정을 함께 나눴도다.
구름이 근역에 열리니 빛은 푸른데 머물렀고,
달은 화성(횡성)에 나니 그림자는 맑은데 가득하도다.
창해에 용이나니 화환 기운이 움직이고,
덕고산에 호랑이가 앉았으니 비바람이 개였도다.
큰 시, 작은 고을에 옥경을 더했으니,
이제 아침 받들어 보내니 감회가 새롭도다.

鶴山 金鐘萬 / ○ 本籍：橫城郡 遇川面 山田里 29番地

- 出生：1913年 5月 19日
- 漢詩 白日場에 多數 入賞(全國)
- 著書：鶴山漢詩集
- 住所：원주시 태장2동 우성아파트 101동 408호

戒家兒在公職



宋寅錫

每思正義又忠良
廉直持心暫莫忘
處事公明權勿濫
對人溫敬禮無傷
污貪爲富反招禍
清白雖貧是有芳
以道齊家安守分
自然應保一門光

公職에 있는 家兒를 警戒함

每樣 正義롭고 忠良함을 생각하고,
清廉하고 正直한 마음 가짐을 暫時도 잊지 말라.
處事는 公明해야하니 權力을 濫用하지 말며,
對人關係는 溫敬해야하니 禮儀를 損傷시키지 말라.
汚邪와 貪戾로 因하여 富貴해지면 도리어 災禍를 招來하고,
清白하면 비록 貧寒하여도 名聲이 있느니라.
仁道로써 齊家하고 安樂하게 分數를 지키면,
自然히 應當한 한 家門의 榮光을 保全하리라.

宋寅錫 / ○ 屯內面 永浪里에서 出生

○ 漢文修學

祝光復節



金台鎭

慶祝歡聲達古今
興心更起豁胸襟
民生確固成中富
國力增強斥外侵
戶戶揚旗無限樂
人人置酒有情尋
開來福祉皆安堵
光復吾邦泰運深

光復節을 祝賀함

慶祝하는 歡聲이 古今에 통달하니,
興心은 다시 일어나 胸襟이 열리도다.
民生은 確固하여 中富를 이루고,
國力은 增強하여 外侵을 排斥하도다.
家家戶戶 太極旗를 날리니 無限히 즐거워,
사람마다 酒宴을 베풀고 有情함을 생각하도다.
福祉文化가 열려 오면서 國民은 모두 安堵하니,
光復한 우리 나라에 泰運이 깊도다.

金台鎭 / ○ 명주군 연곡면 삼산리에서 出生

- 漢文修學
- 橫城鄉校典校歷任

故 鄉



趙 廣 植

山明水麗是吾鄉
 文物生光倍昔香
 濟弱扶傾良俗厚
 救危積善道心長
 務農輔國恒垂範
 敬老思親必守常
 人皆樂世雖安堵
 魔線中分恨不忘

故 鄉

自然의 景觀이 아름다운 우리 고향에,
 文化가 發展하니 어찌 옛과 비길소나,
 弱한者를 救濟하고 美風良俗을 지켜주며,
 危殆로움 막아내어 積善을 하니 道德心이 드높도다.
 農事에 誠實하며 每事에 垂範하고,
 敬老孝親 至極하니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구나.
 무릇 世上의 모든 사람들이 便安하게 즐긴다해도,
 恨맺힌 分斷된 三八線은 언제나 없어질까?

南隱 趙廣植 / ○ 橫城邑 靑龍里에서 出生
 ○ 漢文修學

渴望新祖國



金 基 元

強推改革萬人迎
逐斬簪纓世道清
悖德貪官臻猝富
不仁政客習專橫
朝堂逆賊難民斲
草野良農排憤聲
淨化更新吾祖國
後孫必讚是英名

· 新祖國을 渴望함

군세계 改革을 推進하니 萬人이 기뻐따르네,
마침내 高官들을 斬首하니 세도는 맑아지리라.
悖德한 貪官汚吏들은 벼락부자가 되고,
不仁한 政客들은 專橫을 길들였네.
朝堂(政府)의 逆賊들이 國民을 괴롭히고 猖獗하니,
草野의 어진 百姓들은 憤怒를 말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네.
國政을 淨化해서 다시 우리의 祖國이 새로워지면,
後孫들은 반드시 이 英特한 사람을 칭찬 하리라.

金基元 / ○ 橫城邑 介田里에서 出生

- 弘益大學校 法科卒業
- 陸軍中領 退役
- 韓國漢詩協會會長

鄉土史巡禮

♣ 醉石亭 醉石詩碑 建立에 鄉土史的 意義 / 崔 聖 琛

♣ 趙冲 墓誌名 / 신 중 원



(취석정 전경)

醉石亭, 醉石 詩碑 建立의 郷土史的 意義

附 : 醉石의 生涯와 思想



橫城文化院 郷土史研究委員 崔 聖 琛

I. 緒 言

江原道 橫城郡 書院面 鴨谷里 水洞(물골)에 位置한 醉石亭 및 醉石 詩碑는 아직 學界 및 一般에게 그리 널리 알려진 亭子 및 詩碑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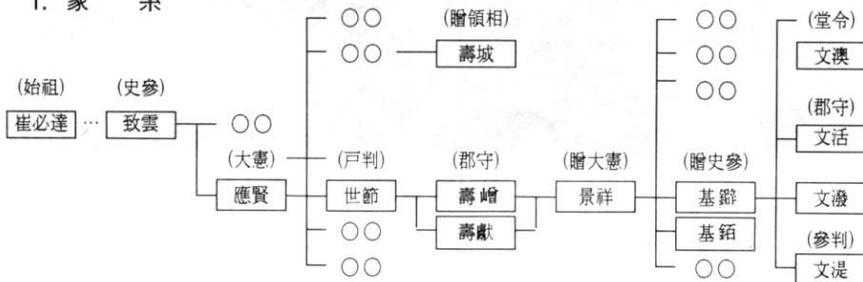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를 發表하려고 하는 것은 醉石은 17世紀에 이미 뛰어난 많은 詩作을 發表하였으며(現在 595首 保存(全 11卷中)韓國文學史에 끼친 貢獻이 크기 때문에 이를 再照明하여 文學史 全體 敘述에 均質性을 考慮하면서 둘째는 資料面에서 595首란 300余年前에 한 사람의 作品으로 決코 적지 않은 量이요, 셋째는 壬·兩亂을 겪고 난 궁핍한 時代에 살던 一般 선비들의 風流와 갈등 그리고 意識의 變化를 살펴 볼 모델로 醉石의 生涯와 詩世界를 우선 澤한 것이다.

醉石은 丙子胡亂(1637~)을 겪고난 窮乏한 시대에 橫城郡 書院面 鴨谷里 山村에 隱居한 崔文潑(1607~1673)이란 선비의 雅號이고 '醉石詩集'은 그의 漢詩 595首를 실은 遺稿集이다.

參考로 도시 醉石의 家系를 적어본다.

〈醉石公(諱文潑)의 生涯와 思想〉

1. 家 系



2. 生涯

西紀	王朝	年	于支	歲	概 要
1607	宣朝	40	丁未	1	原州 鋤谷에서 父基躋 母元氏의 第三子로 出生
1615	光海	7	乙卯	8	沒齒 轉學喜文詞의 稱을 받음
1633	仁祖	13	乙亥	29	生進科 入格
1639	"	17	乙卯	33	原州古毛谷(現書院面鴨谷水洞)定着
1640	"	18	庚辰	34	醉石亭建立(水洞溪上結小亭)
1653	孝宗	4	癸巳	47	眞率會序文作
1654	"	5	甲午	48	雅號 "醉石" 盤石에 彫刻
1658	"	9	戊戌	52	醉石詩集 11卷 編輯 修書
1673	顯宗	14	癸丑		卒(墓 原州郡好諸面 光格里 東幕)

3. 思想的 側面

가. 文學思想 : 儒家的思想 佛教的思想 道仙的思想

나. 隱逸思想 : 安分無求聖人之心也 行道濟世聖人之志也

愚請以說辨之何者 輔君澤民雖聖人之本心

窮居樂道 亦聖人之所不得已也 ……… 略

豈可枉道 而循人銜玉而求 售哉茲非聖人持己之心乎



II. 醉石亭 復元の 由來

醉石이 33歲 되던 해에 書院面(當時 原州 古毛谷面)鴨谷 水洞(물골)에 定着 隱居하기 始作했다. 이듬해 34歲 詩에 “醉石亭”이란 亭子를 지었다. ‘水洞溪上 結小亭’이란 詩기 이 事實을 뒷받침 해 준다 ‘別紙’

이 考證에 따라 1984年 7月 15日 醉石亭을 後元하고 (玄板은 玄石 崔圭夏 前大統領이 썼음.) 800餘萬위 資金を 들여 江陵崔氏 鴨谷崔氏宗親會에서 竣工式을 가졌음.

III. 醉石 詩碑를 세움

醉石은 醉石亭을 짓고 ‘眞率會’란 詩會를 만들어 詩人들을 招待하였으며, 〈題琴〉이란 詩를 例로 들겠다.

平生詩酒愛鳴琴(평생에 詩와 술과 거문고 좋아하여)
心在高山流水深(마음은 ‘고산유수’곡속에 깊이 빠졌네)
一曲峨洋時彈罷(한가락 ‘아양곡’타고 난들)
世間何者是知音(세상의 어느 누가 이 소리 알아줄까?)

그의 高邁한 人品과 詩作을 自身의 天分으로 알고 살았던 意識과 生活態度를 길이길이 紀念하기 위하여 1991年 6月 16日 江陵 崔氏鴨谷 宗親會에서 500餘萬원을 드려 自然石을 위에 올려 놓고 詩身은 烏石으로 하여 臺石에 얹어 놓다.

〈山中偶吟〉 碑에 彫刻

醉石은 結局 詩酒와 더불어 一生을 보낸 그분이기애 ‘醉石’이란 雅號를 쓰고 ‘功名不若三杯酒’라고 술을 讚揚하기도 하였다. ‘醉石詩集’ 三卷 그 책속에 595首를 珠玉같은 詩가 담겨 傳한다.

果然 醉石은 處士의 詩人이었다. 다시 말하면 朱子學을 國是로 삼던 朝鮮王朝의 名分때문에 道學派나 詞章派들은 詩를 載道之器로 보는 卽, 詩를 社會敎化의 한 手段으로 보는 傾向이었다.

그러나 醉石은 爲己의 個人的인 性情의 表現 卽, 道德的인 問題를 떠나서 단순히 느낀대로 表現하는 危機之詩를 쓴 風流詩人이었다. 벼슬을 斷念하고 雲林에 隱居하여 自身의 孤獨과 悲哀를 詩心으로 달래며 朱子學的인 載道文學觀과는 關係없이 사립을 닫고 自己의 世界를 自身의 목소리로 읊었다.

어려서부터 詩才가 있었던 그는 8살에 널리 배워 글짓기를 즐겼다. (沒齒 博學 喜文詞)란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늦게 29歲時 生員에 入格한 醉石은 登科 課程과 節次에서의 까다로움에 失望, 四兄弟中 三兄弟가 文科에 登第하였음에도 惟獨 혼자 道를 굽히기는 싫다 하고 33歲以後 鴨谷山村에 隱居하였다. 그때의 風流와 隱居思想은 陶潛의 영향이었다.

醉石은 壬·丙兩亂 이후의 가장 어려운 時代에 飢寒과 病苦로 심한 精神的 갈등을 겪었던 詩人이었고 그가 남긴 '醉石詩集'은 시골에 묻혀 살던 수많은 이름없는 선비들의 意識과 生活態度를 代表하고 오늘에 그것을 알려주는 貴重한 資料라 하겠다.

끝으로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共通된 生涯가 다 그렇듯이 醉石 역시 가난과 病苦의 연속이었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醉石詩集 11卷의 記錄된 詩의 數量(現在三卷)을 推算한다면 아마 2,500首는 되리라.

그는 詩를 사랑하고 藝術을 위해 살다간 無名의 詩聖이었다. 나는 이분의 清雅한 詩心을 사랑하고 싶고 그 遺志를 길이 繼承하고 싶은 一念에서 醉石詩碑를 세우는데 微力하나마 努力하였다.

IV. 鄉土文化(史)의 創造的 繼承

이제 鴨谷里마을(江陵 崔氏集姓村)은 醉石公의 후예로서 그의 고매한 人品과 선비精神 그리고 詩作을 통한 '閑'의 멋, 鴨谷里 마을을 끝없이 禮讚한 精神的 資產을 求心點으로 하여 宗族의 번영과 鄉土文化—民族文化 形成에 박차를 加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鄉土文化 운운하면 케케묵은 잠고대인양 타기하는 버릇이 多分히 있다.

고루하고 편협한 思考라고 보고 있다. 近世以後 西洋文化에서 배운 것은 科學文明이었다. 그러나, 東洋文化의 우수성을 또한 잊을 수 없다.

事實, 科學主義的 能率性이 組織을 통한 生産性을 높이는 보편적 眞理이기는 하지만, 人間の 意識과 感情이 科學主義的 能率性의 原理에만 종속되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生活因習에 익혀진 鄉土色 짙은 傳統文化를 本體로 삼고 科學文明을 活用할때, 공동의 유대가 形成될 수 있는 것이다.

舊韓末 以來로 國權을 잃은 無力한 知識人들에 依한 無價値한 것으로 評價되었던 鄉土의 傳統文化의 價値를 다시 認識하면서 오늘의 科學文明을 活用の 次元에서 부리면서 鄉土文化의 本體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고 본다.



< 취 석 시 비 >

일찌기 日本은 日本文化의 素材가 地方 卽 郷土에 있음을 깨닫고, 民族文化의 뿌리는 郷土에 있고, 郷土文化의 뿌리는 다시 住民의 生活속에 傳承되어 있음을 알고, 郷土文化의 根源을 밝혀 郷土民에게 알리기 위한 郷土史 研究의 郷土誌 편찬을 國策事業으로 삼았었다.

文化的으로 다른 民族과 같을 수 없는 自我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民族이 어느 民族에게도 通用될 수는 科學主義, 普遍性에만 熱心히 充實하여 科學文明만이 存在하는 社會를 만들었다면 그 社會는 精神이 빠진 社會일 수 밖에 없고, 科學主義에 依한 解體된 個人들의 機械的 集合以上の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人間이 人間의 일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郷土文化 - 傳統文化의 復古性에 求하고자 하는 理由를 다시 생각해 볼 必要가 이 點에 있는 것이다.

하나의 社會가 存續하여 發展한다는 것을 郷土文化의 保存과 繼承을 통하여 社會와 文化의 一貫性과 連續性을 發展이라는 變化에 投入하여 社會와 文化를 함께 人間化해 나가는 것이다.

人間이란 物理的 刺戟에만 反應을 나타내는 一次元的 存在은 아니다. 言語와 文字를 使用하여 意味를 만들어 意思를 傳하고 받으면서 서로가 理解하며 合意된 慣習에 따라 살아가는 社會的 存在이다.

이러한 社會的 存在인 人間은 그들에게 오랫동안 익숙해온 生活樣式에 담겨 있는 意味 構成體인 郷土文化를 그들의 人格體안에 再構成하여 文化的 同質性을 人格의 基盤으로 삼아 自我의 모습을 形成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人格이란 그 自體가 社會的인 存在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世代를 잇는 人格體안에 內在하는 郷土文化의 一貫性은 충격적인 外來文化에 對해서는 비판적일 수 밖에 없다. 先世代와 後世代가 一貫성있게 맺어질 수 있는 文化는 郷土文化 - 傳統文化에서만 可能하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直面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가피한 科學文明의 충격을 받아 社會 全般이 變하면서 우리 國民에게 強要하는 낯선 生成文化와 文化感覺마저 있다. 生成文化에 精神없이 쫓아가다 보면 人格의 解體에까지 이르는 文化的 悲劇 現場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다.

元來 教育이란 革新的인 것이 아니라 모든 人間에게 確實한 옛것(傳統文化 - 郷土文化)을 가르쳐서 動物의이 되기 쉬운 人間을 文化的 人格體로 키우는 것이다.

만약 韓國의 教育이 韓民族의 傳統文化 卽, 郷土文化를 가르치는데 소홀하고 西洋文化를 가르치는데만 치중한다면 韓國人의 文化的 自我를 分別시키는 것을 促進하는 教育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點에서 郷土文化, 傳統文化의 創造的 繼承이야말로 教育現場에서 再評價되어야 할 充分한 理由가 있는 것이다.

醉石 詩集에서 拔萃

〈水洞溪上結小亭〉

洞裏煙霞興自挑 마을안 저절로 피어나는 연하 속에
小堂新起此東臯 소당이 동편 언덕에 새로이 지어졌네
流觴曲水寒波靜 잔 띄울 물에는 물결도 잔잔하고
乘鶴仙臺醉石高 승학대 절벽아래 취석바위 높네,
白日正長彭澤柳 한 낮에 팽택류 무럭 무럭 자라니
青春進入武陵桃 푸른 봄이 이 무릉도원으로 다들어 온듯 ...
梅生己得居山樂 이미 산에 사는 즐거움을 얻었으니
免見虛間毀譽嘈 세상에 험 뜯음을 면할까 하네.

〈東隣夜確〉

兩三茅屋不成隣 대어섯 초가집 떠엄 떠엄 있는 곳
隔水依山有幾人 물 건너 산 기슭에 몇사람이나 사는가?
夜深小確春聲急 밤이 이슬하도록 방아소리 급하니
知是田家患食貧 농가에 때거리가 떨어진 계지.

〈聞國恤痛哭〉

註 孝宗(17代)의 하음을 듣고
罔極昊天我聖君 끝없이 넓고 큰 나의 성군이시여,
十年耕鑿總聖恩 십년 밭갈고 물마심이 다 군은이 읊니다.
孤臣此夕終無緣 고신은 이 저녁에 끝내 인연이 없어
痛哭蒼梧日暮雲 창오땅 해지는 구름을 향해 통곡하나이다.

〈三月初一日病吟〉

遠山飛雪近山雨 먼산에 눈 날리고 가까운 산에 비가 오는데
春色猶慳杜宇枝 봄빛은 도리어 진달래가지에만 인색한가?
不識造化無窮意 모르겠네, 조화의 그 무궁한 뜻을 ...
萬絲垂揚綠一枝 만가지 수양버들 일시에 푸르러 지건만.

〈山中偶吟〉

社鶉聲裡但青山 두견새 우는 소리뿐인 푸른 산속에
人影難逢寂寂間 사람이라곤 그림자조차 만날수 없는데
唯有庭花相對笑 오직 뜰에 핀 꽃들이 마주보고 웃으면서
不言終日慰幽閑 말없이 하수종일 나의 한가함을 달래 주네.

〈自慰呈姜相〉

人隨富貴不隨貧 사람은 부귀를 따르고 가난은 따르지 않는데
誰問山村老病身 누군가 산골의 늙고 병든 이몸을 찾겠는가?
唯有東風無世態 오직 동풍만은 그러한 세태에 아랑곳 하지 않고
棘籬茅屋亦青春 가시 울타리 띠집에도 봄을 푸르게 하네.

〈蔽幕夜吟〉

草屋簾條只數椽 쓸쓸한 초옥엔 다만 서까래 두어 개
不點欹埃冷無氈 불 못땀 벼풀어진 굴뚝... 방이 차도 담요도 없어
貧病日添眠不得 가난과 병이 날로 더해 잠 못 이루고
臥着星月五更天 누워서 별과 달의 새벽하늘을 바라보네.

〈窟巖楓葉〉

赤葉千林錫剪楓 숲은 울긋 불긋 비단을 썰어 놓은 듯
淺深秋色染霜風 열게 질게 가을빛이 상풍에 물들었네
山人不覺光陰變 산 사람 세월감을 깨닫지 못하여
錯認巖花二月紅 바위산에 단풍보고 봄 꽃으로 알았네.

〈山居感吟〉

居山本欲避于戈 산에 삼은 본디 난리를 피하려함이었기에
却厭峯巒四面遮 도리어 봉만에 사연이 막힌것이 싫어졌다네
萬壑雲煙封客路 만골짜기에 구름과 연기는 나그네의 오고감 막아

一村鷄犬少人家 한 마을에 온통 닭과 개뿐 ... 인가는 드물어
 田園易茂流民散 전원은 쉽게 거칠어져 유민되어 흩어지고
 歲月還催疾病加 세월은 점점 빨리 돌아 질병만 더해 가는데
 自恨哀年生計拙 노경에 생계마저 응졸함을 스스로 한탄하면서
 閉門終日古吟哦 하루종일 문 닫고 고통스레 시나 지어 읊조리나니

1991. 6. 3. 崔 聖 深 拔萃



<돌위에 새긴 취석소의 친필>

■ 崔聖深 연보

出生 : 橫城郡 書院面 鴨谷里 169

學歷 : 臨時敎員 養成所, 初·中·高 敎師, 資格考試合格

經歷 : 敎師, 校監, 校長('89. 8. 3 停年), 橫城郡校掌議, 바르게 살기 書院面 委員長, 敎育行政諮問
委員, 郡兒童善導委員.

褒賞 : 大統領 冬栢章

趙冲 基誌銘



江原大學校博物館長 辛 鍾 遠



〈조충분묘전경〉

I. 序 言

近日 紹介者는 江原道 當局의 의뢰를 받아 趙冲의 誌石을 조사할 기회를 가졌다. 이 글은 그것에 대한 所見을 記述하고 아울러 同 墓誌銘을 소개하는 것이다.

원래 趙冲의 墓地는 開城郡 上道面 蓮洞 乾坐¹⁾ 太祖王妃 齊陵 西麓에 있었던 것이나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失跡되었었다. 도굴이 성행하던 일제시대에 同墓도 수난을 당하여 誌石만 地表에 남아있던 것을 1926년 崔某氏가 발견하여 묘를 찾게 되었고 아울러 墳墓도 再修하였다. 해방 후 38선으로 남북이 갈리게 되자 橫城의 宗中은 장차 통행이 두절될 것을 염려하여 1948년 江原道 橫城郡 隅川面 正菴里 望白 右麓에 遷墓하고 誌石도

* 江原大學校 歷史教育科 副教授

1) 墓誌銘의 「承天府 乾雜山麓」.

옮겨 묻었다.²⁾ 1988년 10월 同 墓域을 整備할 때 誌石이 드러나 다시 誌石을 볼 수 있게 되었다.

誌石은 靑石製로 가로 89cm, 세로 55cm, 두께 4cm이다. 裏面은 거칠게 다듬었고 前面에만 銘文이 있다. 前面 윤곽에는 정교한 唐草紋을 새기고 그 안쪽으로 테두리 선을 그었다. 전체 네 조각으로 갈라져 서너 곳이 깨어져 나갔다. 현재 남은 부분도 파여진 곳이 많아 상당 부분 판독이 불가능하다. 글씨는 縱線을 그어 새기고 朱書하였는데 한 字 크기는 1cm 정도, 1行 41字 전체 50行이며 本文은 47行이다. 橫線을 긋지 않은 관계로 글씨의 橫列은 맞지 않으며, 第34行의 경우 중간 부분「垓州之戰」4字的 사이는 크게 벌어져 41字가 되지 않는다. 字體는 晉體 小楷이며 筆力이 遒勁하고 風格이 古淡하다.

墓誌銘의 내용은 (1) 先代 家系(1~4行), (2) 趙冲의 生涯(4~30行), (3) 人品과 逸話(30~39行), (4) 家族關係(39~42行), (5) 撰者와 銘(42~47行)의 순서로 되어 있다. 撰者는 起居郎(從5品) 知制誥 尹于一인데 《補閑集》에서도 확인된다.³⁾

II. 趙冲의 家系

趙冲의 本貫은 橫川縣(橫城)이다. 曾祖는 閩門祇候 正臣이며, 祖는 閩

2) 趙衡鎮 編, 1980, 《橫城趙氏世譜》, pp.20~21. 이하 「족보」는 이 책을 가리킴. 遷墓에 참가했던 門中 老人 몇 분이 生存하고 있음.

3) 崔滋, 《補閑集》卷上, No. 50.

趙文正公器識德行文武兼備……尹直講于一作墓銘 畧曰 公德行耶文學耶政事耶可無愧顏閔季路之徒歟 入而相出而將 半百年前功名富貴何云云
同書 序 및 卷下, No. 36에도 尹于一이 등장한다. 同書 卷中, No. 45에는 「前翰林尹于一」로 나오며 卷上, No. 11에는 任濡의 門下에 文正公(趙冲), 文安公(龔升旦), 文順公(李奎報)……尹亞卿于一 등이 同年及第한 사이였다고 한다. 한편 李奎報의 《東國李相國集》에는 尹儀를 비롯 同年及第한 上記 人物들이 나오므로(卷5, 11) 柳在泳의 지적처럼(譯註補閑集, p. 21, 1981, 圓光大 出版局) 尹于一은 尹儀와 同一人인 듯 하다. 趙冲과 尹于一의 이러한 관계를 적은 것이 墓誌銘 第42行의 내용이 아닌가 한다.

門祇候追贈司空尙書左僕射 時彥이다. 父는 文景公 永仁인데 《高麗史》에 立傳된 인물이다.⁴⁾ 永仁의 妻는 尹灌(灌)의 孫이요 尹彥頤의 子 尹子固의 딸인데 坡平尹氏 족보에서도 확인된다.⁵⁾ 墓誌銘에 의하면 永仁의 卒年은 神宗 5年(1202 AD)이다. 趙永仁의 長子는 準이며 登第하였고, 崔忠粹의 사위로서 神宗 3年에 戶部侍郎·右諫議大夫(모두 正4品)를 除授 받았다.⁶⁾ 同 5年에는 右承宣(正 3品) 同知貢舉로서 進士 黃克中 等を 試取하였다.⁷⁾ 永仁의 次子가 冲이다. 趙冲의 妻는 崔誼의 딸이다. 補1) 슬하에 아들 셋과 딸 다섯이 있다. 長子의 이름은 伯琪이며⁸⁾ 春官試에 擢第하여 考功員外郎(正6品)이 되었고 이어 武職으로 나아갔다. 高宗 30년(1243 AD)에 韓環 等 82人을 試取한 바있다.⁹⁾ 次子는 叔昌으로 大學에 들어가 7齋의 하나인 經德齋에서 공부하고 延禧宮錄事가 되었으며, 《高麗史》에 立傳된 인물이다.¹⁰⁾ 第3子는 光定公 季珣이다. 長女는 字劃이 불분명하나 任濡의¹¹⁾ 아들에게 시집 간 것으로補2) 임혀질 수 있다. 次女는 安劉佐의 아들에게 第3女는 兵部郎中 徐氏의 第2子에게 시집 갔다. 第3子 季珣과 第4, 5女는 趙冲이 卒할 당시 어려서 官職이나 通婚기사가 없다고 하겠다. 족보에 의하면 季珣의 妻는 崔忠獻의 딸과 寄允肅의 딸이며, 季珣의 아들 忭은 《高麗史》趙冲傳에 付傳되었는데 妻는 金方慶의 딸이다. 이상의 家系를 圖示하면 [表 1]과 같다.

4) 列傳, 卷12.

5) 朴龍雲, 1977, <高麗時代의 海州崔氏와 坡平尹氏 家門 分析> 《白山學報》23, p. 144.

6) 《高麗史》世家 卷21, 神宗 3年 12月 丁未條 및 同 列傳 卷42, 崔忠獻傳 참조.

7) 《高麗史》選舉志 卷1, 科目1, 選場 해당 年月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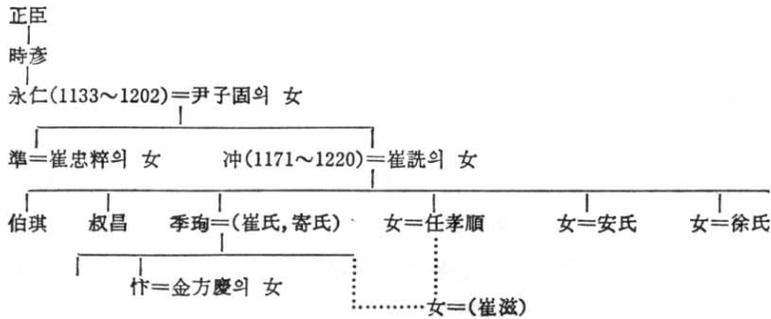
8) 趙承宣伯琪 文正公之子 弱冠擢第 不數年腰犀爲襪衣使…(補閑集 卷下, No. 8).

9) 三十年 六月 右承宣趙伯琪 取詩賦韓環等二十人 韻詩六十人 明經二人(高麗史, 選舉志 卷2, 國子試).

10) 列傳 卷43.

11) 《高麗史》列傳 第8, 任濡傳에 「四關文閣所學皆當世名士若趙冲李奎報金敏俞承且其尤者也」라고 하였듯이 이들은 考試官과 門生의 관계이다. 崔忠獻 墓誌에 의하면 任濡의 一子는 崔忠獻의 딸을 妻로 맞이하였다 「女則適平章事任濡之子」(朝鮮金石總覽 上, p. 445).

[表1] 趙冲의 家系



Ⅲ. 趙冲의 生涯

趙冲이 弱冠에 登第한 것과(明宗 20年, 1190 AD) 高宗 7년(1220 AD)에 50세로 죽은 것으로부터 逆算하면 그의 生年은 明宗 元年(1171 AD)이 된다. 태어나자 한달만에 어머니의 죽음을 당하였고, 점차 성장하자 그는 어머니를 그리는 정이 지극하여 집안에서 孝童으로 불리었다 한다. 蔭叙를 받아 刊定都監判官에¹²⁾ 나아가게 되는데 아버지 趙永仁으로 인한 入仕 즉 父蔭을 받았다고 보여진다.¹³⁾ 大學에 들어가서는 여러번 考藝試에서 우등을 차지하여 上舍에¹⁴⁾ 오르게 된다. 明宗 20년(1190 AD)에 進士科에 及第하였는데 같이 급제한 인물은 모두 30인이었다.¹⁵⁾ 그 가운데 李奎報는 趙冲 집안과 각별한 친분을 유지한 듯 하니, 李奎報가 30세때 趙永仁에게 守令職을 구하는 詩가 있고 趙冲의 誄書도 썼다.¹⁶⁾ 及第後 內侍府에 屬籍

12) 《高麗史》百官志2, 諸司都監各色條 및 同書 食貨志3, 權務官祿條의 「刪定都監」을 이르는 듯 하다.

13) 金龍善, 1987, 《高麗蔭叙制度研究》(韓國研究院), p. 13.

14) 上舍는 國學內的 7齋를 가리킨다. 許興植, 1981 《高麗科擧制度史研究》 pp. 32~33 참조.

15) 《高麗史》選舉志 1, 科目 1, 選擧 해당 年月條에 「政堂文學李知命知貢擧左承宣任濡同知貢擧取進士 賜皇甫緯等三十人」 및 《高麗史節要》 卷13, 明宗 20年 5月條, 李奎報의 〈同年宰相書名記〉(東文選 卷67) 참조.

16) 《東文選》 卷11, 〈上趙相詩〉: 《東國李相國集》 年譜 및 《東文選》 卷116.

되었다가 이어 閣門祇候, 尙食局奉御로 오르고 다시 戶部員外郎, 工部郎中이 된다. 明宗 26년(1196 AD)에는 金나라에 使臣으로 가게 된다. 熙宗 5년(1209 AD) 國子監祭酒로서 秋穎秀 등 66人을 試取하였는데 《高麗史》에는 秋永壽로서¹⁷⁾ 人名表記가 다르다. 熙宗 7년에는 大司成 同知貢舉로서 進士科의 姜昌瑞 등 28人을 선발하였다.¹⁸⁾ 高宗 3년(1216 AD)에는 樞密院 副使·吏部尙書·上將軍·翰林學士承旨가 되었는데, 文臣으로서 上將軍을 兼한 예는 文克謙이 있었으나 오랫동안 폐지되었다가 왕은 趙冲이 文武를 겸한 人才라 하여 특별히 除授하였다고 한다.¹⁹⁾

고려 高宗 즉위 후 北方 대륙에서는 蒙古가 興起하여 女眞族인 金을 제압하기 시작했으며, 이 때 滿州에서는 契丹遺種이 일어나 大遼收國을 세웠다. 거란의 乞奴는 金山 등과 더불어 高宗 3년에 고려를 침입하였다. 고려에서는 參知政事 鄭叔瞻을 行營中軍元帥로, 趙冲을 副元帥로 삼아 從軍시켰으나 鄭叔瞻은 敗退하고 오직 趙冲만 군사를 독려하여 整肅하였다. 高宗 4년에 元帥를 鄭邦輔로 代置하였으나 이렇다할 성과가 없자 趙冲은 罷職 당하였다. 다시 趙冲을 西北面兵馬使로 삼아 大勝하였다. 高宗 5年 西北面元帥 趙冲, 兵馬使 金就礪 等軍에게 敗한 丹賊은 江東城으로 들어가 據點을 삼았다. 이 때 蒙古는 元帥 哈眞과 札刺로 하여금 군사 1만명을 거느리고 丹賊을 친다는 명목으로 고려에 와서는 兄弟의 盟約과 軍糧을 요구하는 등 무례하였으나 趙冲은 時宜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여 和解를 해나갔다. 이듬해 趙冲과 蒙古의 연합군은 契丹賊을 粉粹하였다. 哈眞은 契丹의 婦女와 孩童 六百餘口를 우리에게 돌려 주었는데 趙冲은 이들에게 州縣의 田土를 주어 살게 하였으니 소위 「契丹場」이 그것이다.²⁰⁾ 趙冲 등이 凱旋할 때 崔忠獻은 그의 功勳을 猜忌하여 迎迓의 禮를 停止한 것으로 보

17) 選舉志 2. 國子試 해당 年月條.

18) 《高麗史》 選舉志 1, 同年條에 「十月 門下侍郎李桂長知貢舉 大司成趙冲同知貢舉 取進士姜昌瑞等三十八人…」으로 나오므로 墓誌銘 14行 第1, 2字를 補入하였다. 다만 《高麗史》에서는 38人이라고 하여 그 숫자에 차이가 있다.

19) 《高麗史》 列傳 卷16, 趙冲傳.

20) 同上, 金就礪傳.

아²¹⁾ 이들 사이가 원만치 않은 듯 하지만, 앞서 趙冲이 西北面元帥가 된 것은 崔忠獻의 上奏 때문이었다는 墓誌銘의 기사를(19行) 보면 오히려 崔忠獻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趙冲이 崔忠獻의 墓誌銘을 쓴 사실²²⁾ 참고해야 할 것이다. 趙冲의 人品은 蒙古의 援兵이 올 때 東眞 군사 2萬을 거느리고 온 完顔子淵과 蒙古 元帥 哈眞이 趙冲에 대해 恭敬한 《高麗史》 趙冲傳과 金就礪傳의 일화에 잘 나타난다.

戰役을 마친 후 그는 守太尉·門下侍郎平章事·修文殿大學士·判兵部事를 除授받았다. 末년에 趙冲은 獨樂園을 만들어 士大夫들과 琴酒로써 즐기다가²³⁾ 金 貞祐 8年(1220 AD)에 50세를 一期로 生을 마쳤다. 그는 文正公 謚號를 받고 高宗廟에 配享되었다.

이상 略述한 바와 아울러 趙冲의 年譜를 작성하면 [表 2]와 같다.

[表 2] 趙冲 年譜

西紀	王	干支	年齡	官 職 · 官 階	品 階	備 考
1171	明宗 元	辛卯	1	刊定都監判官	甲科權務	出生 母亡
1190	明宗 20	庚戌	20	屬內侍府 闈門祗候 尙食局奉御 戶部員外郎 工部郎中	正 7 品 正 6 品 正 6 品 正 5 品	登上舍 權進士第
1196	明宗 26	丙辰	26			金에 奉使
1197	明宗 27	丁巳	27	大僕少卿·太子宮門郎 楊廣忠清道按察使	從 4 品	

21) 同上, 趙冲傳.

22) 《朝鮮金石總覽》上, pp. 440~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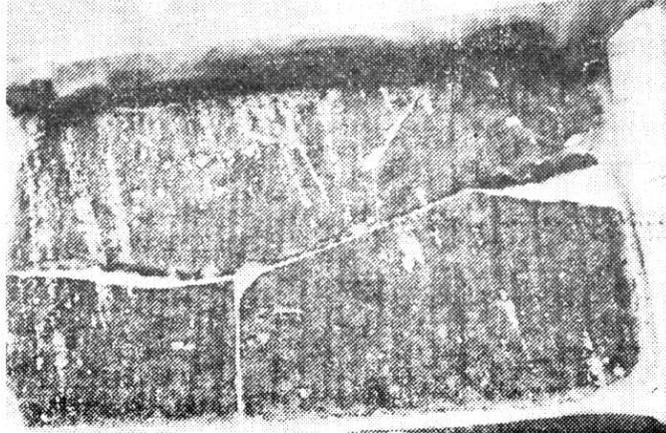
23) 劉冲基·李百順 및 門弟들과 獨樂園에서 遊娛한 기사가 《補閑集》 卷上 No. 52 에도 보인다.

西紀	王	干支	年齡	官職 · 官階	品階	備考
1202	神宗	5 壬戌	32	禮·兵·吏部 侍郎 國子監祭酒 知都省 東北面兵馬使	正 4 品 從 3 品 從 2 品 正 3 品	父亡
1208	熙宗	4 戊辰	38			
1209	熙宗	5 己巳	39			試取秋嶽秀等
1211	熙宗	7 辛未	41	大司成·實文閣學士·知制誥	從 3 品	
"	"	" "	" "	知貢舉		試取姜昌瑞等
1213	康宗	2 癸酉	43	翰林學士 (禮)部尙書	正 4 品 正 3 品	
1214	高宗	元 甲戌	44	西北面兵馬使 銀青光祿大夫	正 3 品 正 3 品階	
1216	高宗	3 丙子	46	樞密院副使·吏部尙書 上將軍·翰林學士承旨 副元帥	正 3 品	出征 罷職
1217	高宗	4 丁丑	47	西北面兵馬使	正 3 品	復職
1218	高宗	5 戊寅	48	金紫光祿大夫 守司空左僕射 西北面元帥	從 2 品階 正 2 品	出征
1219	高宗	6 己卯	49	政堂文學·判禮部事 知貢舉	2, 1 品	試取金仲龍等
				守太尉門下侍郎平章事 修文殿大學士·判兵部事	正 2 品 2, 1 品	
1220	高宗	7 庚辰	50			9月 3日 卒

Ⅳ. 結 語

趙冲은 高麗 武臣政權 初期에 활약한 인물로서 契丹遺種의 토벌에 지대한 공을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이제 그의 墓誌銘이 발견됨으로써 趙冲의 家系와 出仕路에 대한 새로운 知見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의 通婚圈, 貴族間의 交遊 등에 대한 자료도 얻게됨으로써 관계 문헌자료를 보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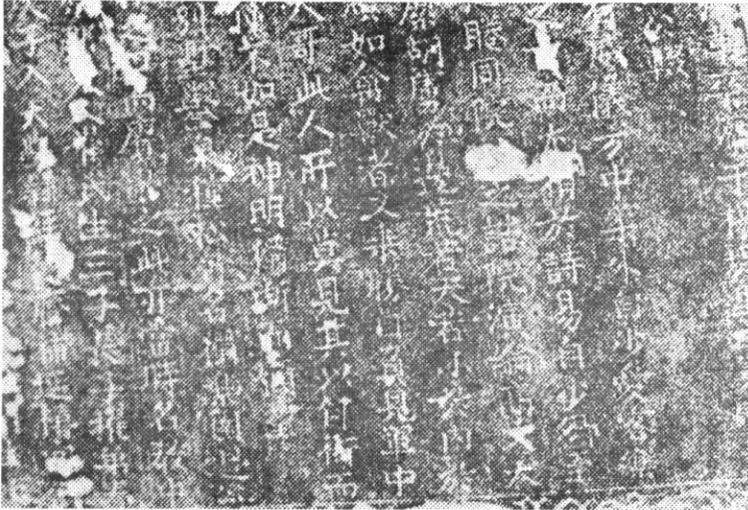
수 있었다. 모조록 이 墓誌銘이 高麗史 연구에 一助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高麗史에 文의한인 紹介者가 本稿를 草하게 되어 그림이 없었는지 모르겠다. 많은 叱正 바란다.



(趙冲 誌石 採拓)



(20~33行 中間部分)



(28~40行 下段)

補1) 《東州崔氏族譜》에 의하면 趙冲은 崔詵의 넷째 사위이며, 高宗 3년에 元帥로 出征한 鄭叔瞻은 崔詵의 둘째 사위이다. 朴龍雲, 1978, <高麗時代의 定安任氏·鐵原崔氏·孔巖許氏 家門 分析> 《韓國史論叢》3 (誠信女大), p.61 참조

補2) 任濡의 셋째 아들 孝順이며 이 혼인관계는 《長興任氏世譜》(朴龍雲, 1978, 앞 논문, p.51) 및 《橫城趙氏世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高麗史》卷 129, 崔忠獻傳 및 《高麗史節要》神宗 5년 5月條에 보이는 「崔忠獻女婿任孝明」은 崔忠獻 墓誌를 따르면 任濡의 아들이 되고 《長興任氏世譜》에 의하면 任元禧의 孫이지만 趙冲의 사위 任孝順과는 별개의 인물이다. 海州崔氏 족보 및 任氏 족보에 의하면 이 任孝順의 사위가 崔滋이다. 그러나 趙氏 족보에 의하면 崔滋는 季珣의 사위로 되어 있다. 그러면 崔滋는 趙冲의 外孫婿 혹은 孫婿가 되는데 《補閑集》에 보이는 趙冲에 대한 상세한 기사는 이러한 인척관계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補3) 墓誌銘의 관독에 많은 도움을 주신 翰林大學校 金龍善교수께 감사 드린다.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 32 △△△東宮行李之△訓導必盡其方由是泰和中有龍潛之△驟承恩臨同院△之誥院演論高文大冊日落於上下文場正選△才茂學舉集於門中或陶煦諸生△序序屬糜糜胡虜於湯荒若大若小於內於外位皆稱職動輒有聲其器宇方略可涯也哉及岱州之戰蒙古帥本頭如禽獸者又乘勝自負見軍中△△驩率皆婢狎無所不至及見公舉止遂嘆服敬憚引坐於上△呼為大哥此人所以莫見其以何術而△也豈△謂行之以躬不言而信者耶噫當 朝廷依違之△△△柄者儻不如是神明獨斷而願望朝△逆忤悍虜之△三韓之業其△△△凱還已來△△△△陳地摘別墅擊泉種松竹名獨樂園退公之餘喜率親戚子弟門生故舊開小酌△△△△和至傳△△好事者之口而廣歌之此亦當時名教中一段奇事也公娶門下侍郎平章事判吏部事文懿公諱誥△△△昌原郡夫人崔氏生三子長子擢第春△累遷考功員外郎△△換虎職神虎衛保勝△△△△牽龍行首次子入大學諱經德齋補延禧宮錄事女五人長適門下侍郎平章事任濡△△△△公而△△△△戶部員外郎安劉佐之第△△公之門生次適兵部郎中徐氏之第二子△幼△△△者有二焉于△△△△中公門下△也△△△公同年登第無日不躍於公之門者考功郎君△△錄見託宜努力子細觀縷△△△△來△次亂矣略為之△試起居郎知制誥尹于一銘曰 德行耶文學耶政事耶可無愧顏閔△△冉路之科敷出而將入而相半百年前功名富貴何恨公不得享年之遐 街兒巷婦△猶△△△△△軍中將吏平生受賜之多耶 九重軫△△△△吊生贈死之禮有加 謂功之大△△△△△會 其方略施設也 無炳炳圭 發乎外 △△△△△援瀾三韓之父孝△△再△△丈夫之事業已了 烏呼大哉公之功乎 落於形迹之(以下缺)

大金貞祐八年(以下缺)

- 15 公即受餞△賊壘戰再捷賊畏△入保岱州城時會有蒙古國軍帥合珣札刺等率勝兵萬餘人自東鄙入
 16 公即受餞△賊壘戰再捷賊畏△入保岱州城時會有蒙古國軍帥合珣札刺等率勝兵萬餘人自東鄙入
 17 公即受餞△賊壘戰再捷賊畏△入保岱州城時會有蒙古國軍帥合珣札刺等率勝兵萬餘人自東鄙入
 18 公即受餞△賊壘戰再捷賊畏△入保岱州城時會有蒙古國軍帥合珣札刺等率勝兵萬餘人自東鄙入
 19 公即受餞△賊壘戰再捷賊畏△入保岱州城時會有蒙古國軍帥合珣札刺等率勝兵萬餘人自東鄙入
 20 公即受餞△賊壘戰再捷賊畏△入保岱州城時會有蒙古國軍帥合珣札刺等率勝兵萬餘人自東鄙入
 21 公即受餞△賊壘戰再捷賊畏△入保岱州城時會有蒙古國軍帥合珣札刺等率勝兵萬餘人自東鄙入
 22 公即受餞△賊壘戰再捷賊畏△入保岱州城時會有蒙古國軍帥合珣札刺等率勝兵萬餘人自東鄙入
 23 公即受餞△賊壘戰再捷賊畏△入保岱州城時會有蒙古國軍帥合珣札刺等率勝兵萬餘人自東鄙入
 24 公即受餞△賊壘戰再捷賊畏△入保岱州城時會有蒙古國軍帥合珣札刺等率勝兵萬餘人自東鄙入
 25 公即受餞△賊壘戰再捷賊畏△入保岱州城時會有蒙古國軍帥合珣札刺等率勝兵萬餘人自東鄙入
 26 公即受餞△賊壘戰再捷賊畏△入保岱州城時會有蒙古國軍帥合珣札刺等率勝兵萬餘人自東鄙入
 27 公即受餞△賊壘戰再捷賊畏△入保岱州城時會有蒙古國軍帥合珣札刺等率勝兵萬餘人自東鄙入
 28 公即受餞△賊壘戰再捷賊畏△入保岱州城時會有蒙古國軍帥合珣札刺等率勝兵萬餘人自東鄙入
 29 公即受餞△賊壘戰再捷賊畏△入保岱州城時會有蒙古國軍帥合珣札刺等率勝兵萬餘人自東鄙入
 30 公即受餞△賊壘戰再捷賊畏△入保岱州城時會有蒙古國軍帥合珣札刺等率勝兵萬餘人自東鄙入
 31 公即受餞△賊壘戰再捷賊畏△入保岱州城時會有蒙古國軍帥合珣札刺等率勝兵萬餘人自東鄙入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隨 筆

- ♣ 우리 신혼여행 가래울로 가자 / 최 정 희
- ♣ 방부제 시대 / 권 용 환
- ♣ 고향을 그리며 / 전 인 석
- ♣ 6. 25전쟁과 폭격에 돌아가신 할머니 / 곽 영 기
- ♣ 횡성사람 / 김 세 기
- ♣ 나의 故鄉 / 임 교 순
- ♣ 고향, 어머니의 품 / 한 경 숙
- ♣ 나의 歸去來兮辭 / 林 一 鎮

수필

“우리 신혼여행 가래울로 가자”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268-5 최 정 희

남편은 결혼하기전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우리 신혼여행은 말이야 가래울로 갈려고 하는데” 하길래 “가래울? 처음듣는 명소 같은데” 하고 반문했더니 “여하튼하고 말야 굉장한 곳이니 기대해 보라구” 하면서 의문점을 두고 꿈을 영글게 했던 곳인데 결혼해서 알고 보니 시집오게된 동네가 「가래울」이라고 하길래 깜짝 놀랐었다.

남편이 사는 곳은 일명 「새제미」라고도 해서 집안 어른들은 “새제미댁이잖아?” 하면서 닉네임이 어느 새 새제미댁으로 바뀌기도 했었다.

시골 농촌은 이렇게 정이 듬뿍 든 요소마다의 이름들이 특이해서 정이 들기도 했다.

갓 결혼한 새댁시절 집안 웃어른들의 사랑을 듬뿍받으면서 흥에 겨웠던지 매사에 실수를 연발해서 웃기기도 했고 겸연쩍은 것도 여간 많지 않았다.

어느 날은 식사하는 도중

“오늘은 광주리로 배추심으러 가자”고 하길래 덩씩 “광주리에다 배추 몇포기나 심겠어요?” 하면서 “뒷발에다 심지”하고 참견했다가,

“애야 광주리에다 심겠다는 것이 아니고 광주리라는 재너머 밭이 광주리라고 부른단다” 하셔서 얼마나 무안했는지 모른다.

또 설날이 닥쳐와서 그때만해도 집에서 떡매로 치는 떡을 만드는데

“애야 안반쯤 가져오너라”

하는 분부를 받고는

“안반이 뭔데요?”

하고 물었어야 하는데 똑똑한척 으스스대면서 냉큼 떡시루를 힘자랑 한답시고 들고가서 집안 어른들의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또 실수했구나 하고 쥐구멍이라도 찾아나설 만큼 미안해서 찢찢 매기도 했었다.

지방마다 언어가 다르고 하나하나 조심하며 반문하고 물었어야만 했었는데 신혼재미에 들떠 있어서 총애받는 것에만 집착하다 실수연발도 수용해 주시고 시댁의 법도를 가르침 받는데 노

력 또한 짝 했었다고 기억된다.

남편의 전근, 아이들의 성장, 건강을 잃은 핑계삼아 타의에 의해서 도시민이 됐지만 아직은 땀흘려 일했던 보람들이 남아준 땅마지기가 고향에 턱 버티고 있고 살았던 집도 낡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믿지요" 하면서 기다림 해주는 태를 묻은 옛 것 옛 멋 그대로 손때 묻은 채 조상의 일이 폭신히 나와 가족을 반겨줄 고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밥 먹잖아도 배부르고 손짓하는 곳이 있다는 곳에 가슴 설레임을 만끽하고 살고 있다.

앞뒷산이 단풍으로 물들때면 장남은 종두레미랑을 앙증맞게 허리에 차고 도토리 줍던 회상을 하고 알토란 같던 산밤을 털던 생각도 또렷이 기억된다고 한다.

"옛날 우리 형제가 어렸을 땐 딸기, 복숭아, 사과, 배며 먹을것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비싸게 사먹잖아요?"

하면서 차남의 고향 예찬은 남다르다.

군대 나간다고 고향찾아 선영묘소도 찾아 보고 동네 어른들께도 일일이 인사드렸다고 하면서 흙손을 털면서 꼬깃꼬깃 싸지돈도 쥐여 주더라면서

"내가 태어난 곳은 참으로 인심 좋고 정이 가며 그리움 가득한 곳" 이라고 입심 좋게 극찬한다.

산등성이를 오르내리며 송화파던 어미 따라 송진 그득한 손을 씻어 달라고 조르던 것도 기억하며 약국이 멀어서 돈 주고 사다 먹는 약보다는 송화다식으로 실사를 멎게 하는 것하며 뽕새 고약하던 산초뿌리 캐던 것까지 그림처럼 펼쳐지는 추억이라고 소중스럽게 감싸고 도는 두아들에게

"우리 가족이 가래울로 관광 떠나자꾸나"
하며 하하 호호 허허하며 가을밤을 밝힌다.

출생지 : 황성읍 추동리

신사업대상 대상과 새농민 여성상, 농업기술상, 강원도 농민대상(소득중대 부문)을 받았음.

방부제 시대



권 용 환

라디오도 전화도 없었다. T.V도 전기도 없었다. 깡통도 비닐도 없었다. 농약도 폐수도 몰랐다. 전자오락, 비디오도 몰랐다. 바캉스, 캠핑도 몰랐다. 라면도 초코렛도 몰랐다. 공해와 자연보호도 몰랐다.

날이 새면 평화스러운 새소리, 바람소리, 짐승소리 뿐이었다. 밭가는 농부의 소모는 소리 구성지고 한서런 목멘소리에 하염없이 맥 놓고 허공을 쳐다보는 촌노(村老)의 주름진 목덜미와 이마가, 유난히도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였다. 말매미 요란한 한낮이 되면 신작로 미루나무 그늘에서 개미뒤로 금을 긋는 땅뺨기 놀이가 재미있었다.

햇감자 넣은 콩보리밥을 호박 넣고 마늘쫑 넣은 된장찌개에다 명발(목화발)매추 곁절이 김치 넣고 썩-썩-썩-썩 비벼 한 양재기 다 비우고 개울로 띈다. 햇별에 그을린 새까만 아이들은 인디언같이 물속에 덩벙대는 모습들이 물개들 같았다.

저만치 아래쪽 얇은 물에는 옷입은 채 텀벙대는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있었다. 걸으로는 관심이 없는채 했지만 재미있고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갔다. 가끔 훑쳐보는 그들의 가늘어 보이는 허리와 나약한 어깨가 예뻐보였다.

물을 튀기며 물싸움을 신나게 하더니 갑자기 조용해졌다. 한 아이가 코로 물이 들어가 기침을 하더니 물을 토하며 울었다. 물가로 옹기종기 나왔다.

입술이 파래진 두 아이가 붙어있다. 가려진 쪽에서 한 여자아이는 옷을 벗어 비벼어 힘을 주어 짜더니만 두어번 털어 급하게 넘어질 뻔하며 옷을 입는다. 번갈아가며 한참만에야 다 짜 입었다. 삼삼오오 풀을 헤치며 집으로 간다.

개울은 갑자기 부인이 친정간 집 같았다. 누가 말한 일도 없는데 남자아이들도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그늘 바위에 앉는다. 쪼그려 앉은 밑으로 꼬추(잠지)가 뽀죽이 매달렸다. 몸에서 흐르는 물이 고여 쪼르르 흐르다 툭툭 떨어진다. 한기를 느껴 몸서리쳐 흔들어 흐르는 물이 끝났다. 한참만에야 몸에 물이 마른후 증의(광목천으로 만든 반바지와 팬티의 중간형의 옷)만 입고 여자아이들이 갔던 길로 사라진다.

예의범절과 도덕성과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개짓는 소리만으로 도둑은 줄행랑을 쳤다.

여자는 남자를 하늘같이 생각했으며 남자는 여자를 어려워 했고 귀하고 소중히 생각했다. 참는 것이 덕이며 한을 속으로 삭여 주름으로 나타내 보였다. 동네 어귀에 효자비와 열녀비가 성황당 아랫쪽에 있었다.

개척자의 모험보다는 효자, 열녀가 더 위대했던 시절이 왜 자꾸 한숨으로 그리워지는가?

중의적삼 바지저고리에 두건맨 호미든 횡성들(별)의 우리 선조들!

점심때면 흰웃입은 아낙네들이 머리에 또아리 바쳐이고 눈매는 일꾼 수만큼이나 줄을 이었다. 녹색응단에 흰 백로가 모여드는 것 같았다. 점심을 머리에 이고 사립대문 나오는 아낙네들을 보고 “똥다” 먼저 본 사람이 소리칠라 치면 더 힘이 솟고 흥이 난다. 선 소리쟁이 흥을 돌우면 받아 넘기는 합창은 신명이 솟구쳐 찌렁찌렁 울림이 남산기슭까지 메아리 쳐진다. 거침 거침한 다랭이 마무리 짓느라 논 구역지에 우글대며 함성지르고 논 독을 올라선다. 그제서야 장단지 파먹는 거머리 모진년 뺨치듯 후려갈기며 떼어낸다. 옆눈 맑은 물에 손발을 씻고 어슬렁 어슬렁 논둑길을 걷는다.

앞치마 끈에 허리 잘룩한 아낙네들은 가운데 큰 합지밥 주위에 반찬을 고루 배치하느라 바쁘다. 걸썩미끈한 아욱국, 씩이 가슴뼈 드러난 콩치졸임, 열무김치, 걸절이, 두꺼운 종이같이 튀긴 미역건포, 가지나물, 고사리 볶음, 풋고추에 멸치조림, 짹짹한 오이지, 남자한테 좋다는 도라지 나물, 고추장에 무친 비름나물, 얼큰한 두부조림……

지게 옆에 있는 도랭이 가져다 깔고 바짝 들어 앉는다. 나이많은 어른이 수저들기만 기다린다.

“어이들 들어……”

소담스럽게 먹음직하게 먹는 모습을 보는 아낙네들은 행복한 표정이다. 남정네들을 섬기는 본능이 있어서인지 그렇게 호뭇하게 느껴지는 모습들이다. 여인들의 행복의 근원은 남정네로부터 흐른다. 한국의 여인상이다. 주인은 먹을 생각은 않고 주위의 이웃들을 다 불러들인다.

“여봐! 개똥아범 어여와 어서……!”

“아저씨 진지 드시러 오세요……!”

“여보게 어서오게……!”

논물 보러 나온 이, 논두렁 깎는 이, 지나가는 객일지라도 오라고 한다. 훈훈한 인심과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참 한민족의 이웃사랑을 느끼게 하는 모습들이다.

횡성들 앞의 훈훈한 인정이 밥 합지 큰그릇에 차고 넘친다. 비비고 말아 목뭇 힘줄 세우고

딱벌린 입에 큰대집 봉두밥을 그려 넣는다. 서너번 씹어 침 발라 꿀꺽 삼킨다. 새끼난 암소 뜰 물 마시듯 냉수 한그릇 비우고 트림 두어번 한 후에 도랭이 들고 어슬렁 어슬렁 논둑 그늘진 언덕배기에 앉는다. 배불러 숨가쁨을 누르고 담배한대 피워문다. 코풀어 팽개친 후 풀잎에 쓱 쓱 비비곤 도랭이 깔고 비스듬이 눕는다. 잘못 구어낸 배부른 항아리 같은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금방 잠들어 버린다.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다가는 콧 막혀 한참후에야 입으로 풍선 터지듯 푸~ 하고 내신다. 잠도 푸짐하게 게걸지게 겁나게 잘도 잔다.

맨나중 잡수시던 이의 수저농기를 기다리고 있던 아낙네들은 먹다 남은 반찬을 거듬거듬 같은 종류끼리 모은다. 빈그릇은 포개 포개놓고 수저를 던져 모은다. 어지간이 정리를 하고는 “갯골 아주머니! 우리도 먹고 가지유 머-”

“그려 어여들 먹어-”

누가 먹다 놓은 수저인지 들고는 엄지 손가락으로 훑어내고는 코풀어 문지르던 앞치마 뒤집어 두어번 돌려 닦고 젓가락은 손으로 서너번 훑어내고는 치마폭 그러모아 무릎세워 쪼그려 앉아 먹기 시작한다. 젓가락에 익숙치 못한 이는 손으로 음식 집어 하늘 쳐다보며 긴 걸질이 입에다 집어 넣는다. 맛좋은 생선, 두부, 미역건포, 도라지 나물은 다 없어지고 국물만 남았다. 구릿들 큰덕 아주머니는 생선 냄비를 기울여들고 박박긋어 알뜰히 먹어댄다. 셋골(새골)아주머니가 반찬이 짜니 싱겁니 하던 화제를 돌려 말한다.

“아 글세 칠성이네 혼사가 파혼되었대-.”

수다가 터지기 시작했다. 주막거리 여자가 애를 낳았는데 XX를 닮았다는 등…… 누구네집 며슴이 어느 과부네집을 드나든다느니…… 올봄에 결혼한 뽕구멍이(배웅구덩이) 박씨네 며느리가 바짝 말라가는 노랑병이 들었다느니…… 행기말(향교마을) 누구네 며느리가 일곱달 반만에 낳은 아이를 잃었다느니…… 어느집 소실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막 웃어대는 아낙네들……(그 남편은 팔십먹은 노인이었다.)

낮 뜨거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며 깔깔대며 먹다보니 배가 부르다. 주섬주섬 큰 함지에 빈그릇을 담아 이고 여자 백로들이 집으로 줄지어 간다.

“저누리 늦지않게 나와요!”

주인의 소리처럼 뒤로하고 마을로 사라진다. 잠자던 일꾼들 뿌시시 일어나 논둑머리에 피워논 불씨에 담배 피워물고 논으로 어슬렁 어슬렁 들어간다. 점심을 그렇게 먹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시작한다. 돌을 먹어도 내려갈 만큼 위가 튼튼한 것인가! 위가 튼튼하기보다는 먹은 음식이 좋았다. 방부제와 화학조미료가 전혀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무공해 식품을 먹었기

때문이라.

요즘 사람들은 왜 모두 허약해졌나? 약도 많고 건강식품(뱀, 개, 고양이, 지렁이, 곰팡이, 사슴, 곰, 인삼……)도 많고 병원, 의원, 한약방, 의학박사도 많은데 왜 사람들은 왜 자주 허약해지는 것인가?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 베고 눕는 것이 아니고 갈비먹고 커피 마시고 자석 베개 베고 누웠는데 왜 허약해지는 것인가?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 자연식품, 무공해 식품을 그리고 생식하게끔 만들었는데 문화와 과학의 발달로 말초적인 쾌락만을 위해 먹고 마시는데서 오는 것인가?

그럴싸하다. 그러나 또하나의 큰 이유는 방부제를 많이 먹은 때문이라. 요즘 모든 식품에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은 식품은 없다. 허용치의 것이기는 하지만 장기간 계속 쌓여 많이 먹는 관계로 빛좋은 개살구가 된 것이 아닌가? 위모는 허영고 크고 살찌지만 허약하여 어지럽고 견디지 못하며 강인한 노송의 기상은 사라지고 말았다. 현대인은 방부제를 먹을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산다. 인스턴트식품, 가공식품, 수입식품 모두 방부제 식품이다. 방부제에 항생제까지 녹아들어 현대인의 몸은 휘청거리는 것인가? 계란도 돼지고기도 물고기도 사료에 항생제를 과다하게 넣어 모두가 항생제 식품이라고 한다. 방부제, 항생제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는 약품들이다.

몸은 항생제 방부제를 먹고 허둥대지만 정신은 어떤가? 뜻있는 이들은 큰일이야!! 큰 일!! 다 썩었다고 한다. 타락했다고 한다. 권모술수 없이는 성공을 못한다고 한다. 정의에 고집을 가지고 애쓰는 이를 유통성이 발전성이 없다고 무능으로 고지식으로 외면당하고 만다.

젊은이는 타락해야 선진스럽게 보이며 절망적인 염세적인 비정상적인 생활모습이 멋있어 보임은 어떤 일인가?

인기있는 신인가수의 이상한 춤과 볼 수 없는 의상으로 노래부르면 비명을 지르며 꽃을 던지며 어쩔 줄 모르는 젊은 청소년들…… 좋다는 표현이 환락의 도가니 같아서야……

다 나열할 수 없는 부정부패들.

방부제를 먹고 사는 현대인이여! 정신의 방부제는 없는 것인가? 현대인은 약물중독과 면역과잉으로 방부제의 힘으로는 역부족인가?

장기복역자의 의식조사 자료에서 “나는 잘못으로 들어온 것 보다는 재수없어 붙들려 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법의 방부제보다는 문화로 사상으로 교육으로 전통문화로 한국인 회복으로 순수예술과 정서 교육으로 건전한 대중예술로 무공해 예술로 방부제 섞인 외국문화 수입은 없어야 하는 것으로

토속전통예술로 생활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이는 세상이 좋아졌다고 한다. 살기가 편해졌다고 한다. 과학의 발달로 좋은 물건이 많아졌다고 한다. 옛날 사람들은 불쌍한 삶을 살았다고 하며 지금 태어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다.

그런데 나는 왜 자꾸 옛날이 그리워지는가? 어렸을 때 도랑에서 고기잡고 가을의 들판을 뛰며 소물고 매뚜기 잡던 생각. 여름이면 수영복 없이 먹 감던 일. 희미한 등잔불 밑에서 이숙한 밤에 언 배추꼬리 먹던 생각. 정초의 세시풍속을 누리며 즐기던 생각. 새옷입고 차례지내기. 집집마다 세배하고 음식먹던 생각. 굳은 인절미 화로 숯불에 노랗게 구워 노릇노릇 부풀어 오른 것을 조청에 찍어 입에 넣고 시원한 물김치 마시던 생각. 여름이면 모깃불 해놓고 옥수수 밀개떡 감자를 무쇠솥 속에서 꺼내먹고 명석에 누워 밤하늘을 보며 별을 헤던 일. 겨울이면 앞 들 큰논 다랭이 물대놓고 얼음 얼면 앉은뱅이 썰매타기, 지게타고 밀어주기, 팽이치기,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고 지금 생각하니 너무나 아름다웠다.

무궁해, 무방부제 시절이 나는 그림다. 지금보다는 그때가 그림다. 사람이 무섭지 않는 세상, 사람을 의심하지 않던 세상, 이웃이 좋던 세상, 나그네 길 가다 사랑방에서 쉬어가던 세상, 영업집 변소에 자물쇠 없던 세상, 강아지 놓으면 이웃집에 그냥 주던 세상, 동네 어느집에 불이 나면 다음날 석가래 이영 들고 와서 다 고쳐주던 세상, 장례일을 내일처럼 해주던 세상, 잔치날이면 다 모여 축하 환영이 빠속까지 스미게 하던 세상. 굶은일, 슬픈일이면 먼저 뛰어가던 세상, 불효 못된 늙은 몽둥이로 내쫓아 집안 가문을 닦하던 세상, 어른 노인말이면 거역하지 않던 세상, 쌀과 장이 떨어져도 걱정없던 세상, 김삿갓 붓이 김선달이 걱정없던 세상, 거짓, 겁탈, 강간, 도둑이 없던 세상, 인신매매란 말이 없던 세상, 인정과 상식과 도덕이 양심이 법이었던 세상.

옛날로 돌아가자! 음식도! 마음도! 놀이도!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걱정이 없던 평화와 고요와 온화가 넘치던 옛날이 그림다.

방부제가 필요없던 그 때가 그림다.

고향을 그리며……

在京橫城郡民會 전 인 석

이곳은 제법 한갓진 도하의 언저리

유록화홍(柳綠花紅)의 봄치장이 한창인 요즈음 희미한 보릿고개의 잔상이 있는 듯 없는 듯
동양화 화폭같은 해사한 목련의 꽃그림자만이 창창이 일 비친다.

그리운 시냇가 버들개지 만산홍엽(滿山紅葉) 진달래꽃, 우물가 셋노란 개나리의 향연 등.

이 계절에 떠오르는 고향의 그림자는 자못 풍요로운데 고향떠난 客老의 마음은 궁색키만 하
니 이는 다름아닌 고향에 무심한 자에 대한 신불의 果報가 아닐까 여겨진다.

매화산 발치 웅기종기 의초롭기만 하던 여내곡 아랫마을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마을이
다.

매화산 골짜에서 흘러내리는 산골물의 청렬함.

마치 은쟁반에 옥구슬이 구르는 듯한 청량한 그 소리. 생각만 하여도 절로 지상신선이 되는
듯하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 조출한 草堂이라도 마련하여 남은 생을 樂天爲生하고픈 맘
간절하나 현실여건이 여의치 못함을 탄할 뿐……

아련히 어린시절이 추억된다. 가세가 가멸치 못했던 우리집 형편에 그래도 부모님의 교육적
열의에 힘입어 12km(30리)거리의 중학교를 통학했었다. 그것도 걸어서 말이다. 지금은 상상도
안되는 얘기지만 정말 어려운 학문여건이었다. 어쨌든 부모님의 자애로운 자식을 위한 敎學의
은공을 절대 잊을 수 없다.

비록 타관에 살고 있을망정 난 언제나 부모님과 고향을 잊어본 적이 없다. 결코 잊어서도 안
되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할것 없이 고향을 그리워한다. 여우란 짐승도 종당엔 首邱初心 고향을 그린다
는데 하물며 사람입에랴. 그러나 현 세대가 점점 고향을 空洞郷으로 만들어 가는 것 같다. 生
財가 그렇고 교육환경이 그렇고 문화적 인간다운 삶의 향유 등, 出郷을 부추기는 사회적 요인
들이 상존하는 한 내고장의 그 옛날의 영화를 회복키란 어려울 듯 民의 귀감인 公人의 참된 歸

去來가 태무할진대 生計에 급급한 고향떠난 民草의 귀향인들 어찌 쉬울손가.

윤달만난 화양목처럼 시나브로 변해가는 내고향.

술한 고향사람들, 친·인척 그리고 죽마고우 지금쯤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립기만 하다.

晩時之嘆이나 내고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길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고심하곤 한다.

늘 고향을 잊지는 않으나 고향 위한 이렇다할 기여도 없이 헛된 늙마의 客居의 회포를 토로 한다는 것이 居鄉人士 諸尊에게 그저 면구스러울 뿐이다.

犬馬의 노력이나마 경주하여 작게는 내고향 마을 나아가 크게는 於斯買의 번영을 위해 미력이나마 다할 것을 지면을 통해 약속하는 바이다.

끝으로 於斯買의 발전을 충심으로 기원한다.

6. 25 전쟁과 폭격에 돌아가신 할머니



한국시조시인협회 총무이사 **곽 영 기**
(문화체육부 예술원사무국 근무)

며칠전에 어사매 10호의 원고청탁과 함께 그 내용을 유적, 지명, 전설 또는 향토발전을 위한 제언중에서 하나 고르라 하였기에, 나는 1950년 6.25 전쟁시 내고향 개나리(갑천면 대관대리)에서 폭격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얘기를 몇 줄 써서 43년전 6.25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었는지를 단편적이거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알려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쓴다.

1. 횡성은 1950년 1.4후퇴 때 중부전선 최대격전지였다.

「충절의 고장 횡성」이 말은 구한말부터 삼일운동 그리고 해방될 때까지 횡성군민들의 줄기찬 항일운동과 독립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횡성에서의 3.1독립만세 사건이라든가 최양옥 독립투사 또는 황소 별명의 김순이 할머니 같은 분들의 항일 투쟁에서 연유된 것으로서 많은 군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6.25전쟁시 「승전의 고장 횡성」이란 말은 아마도 많은 군민들이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6.25 전쟁 3년중 1951년 1.4후퇴 때 횡성지역은 연합군과 중공군이 군단급의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적군은 물론 많은 연합군과 군민들이 희생되었고 결과적으로 중공군의 인해전술이 횡성-원주지역에서 저지-격퇴된 중부전선 최후, 최대의 격전지로서 연합군의 대승을 거둔 것이다. 연합군의 일원인 주한 네델란드군사령관 에이텐오우텐 중령(대령추서)이 중공군과 싸우다가 1951. 2. 12전사한 곳이 바로 횡성 땅이어서 네델란드군 참전 기념비가 우천면 새말 고속도로변에 세워져 있으며, 또한 우리가 1.4후퇴 때 피난지에서 매일같이 「칠봉산 전투대승」이니 「국사봉대전투」니 「옥동리 전투」니 하는 신문기사 얘기를 들은것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기억된다.

그러나 6.25당시에는 전국토가 거의 모두 전쟁으로 폐허되고 또한 모든 지역이 격전지였기 때문에 구태여 횡성만을 격전-전승지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거의 잊혀져 가거나 또한 모르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2. 소설가 박계주씨는 횡성을 6. 25의 격전지 - 전승의 땅으로 소설속에 상징하고 있다.

박계주씨는 (1913 - 1966) 그의 소설 『포화속의 십자가 (砲火속의 十字架)』에서 (1982. 11. 15 일 조광출판사 발행, 박계주 문학전집중) 책머리를 이렇게 시작한다.

「저 광야에 맑은 깊고
양퇘에 자던 목자를
메시야가 나신 소식
천사로부터 듣도다
노엘 노엘
노엘 노엘
생명의 왕 내 혼에 사옵소서」

「1952년 크리스마스날, 한강의 굽어 보이는 송림이 우거진 고아원『相愛園』의 찬송가 코러스」로 시작되어...

최 소령, 머피 중사, 썩은 이등상사 등이 전쟁고아 채옥이를 위문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이 소설의 그 다음 장은 또 이렇게 시작된다.

「그렇다, 그렇다, 여기는 코끼리다. 지금 상해 북방 6키로지점에 있다. 지금 미친개 무리들은 홍수같이 밀려 내려간다. 추정병력 5개사단, 평지만이 아니고 좌우 산야에도 뒤덮여서 예의 인해전술을 감행한다. 그렇다, 그렇다, 거의 오랑캐들이다. 무차별 포격을 감행하라」

「이렇게 박 하사는 무전기를 두들긴다」라고 이소설은 계속하며 또 다음 줄에는 「코끼리」는 어느 국군 수색대의 암호며, 「상해」는 횡성읍의 암호, 오랑캐는 중공군을 뜻하는 무전 암호라고 설명을 달고 있어, 당시 유명한 박계주씨가 이 소설의 무대를 횡성 북방 6키로지점으로 잡은것은(횡성북방 6키로지점이란 곳을 나는 횡성읍 옥동리의 국사봉, 또는 공근면 수백리의 칠봉산으로 추정하고 싶다) 이 당시 작가 나름대로의 전사에 의한 격전기록과 희생사례 그리고 전쟁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등 여러가지 각도로 사건을 종합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횡성이 승공의 땅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3. 1. 4후퇴와 피난살이

1950년 12월 어느 날 아침 버들골로 양곡 후송 부역에 동원되어 갔던 개나리 사람들이 갑자

기 저녁 때 모두 돌아와서, 오늘 오전에 인민군이 서석에서 먼드래재를 넘어 버들골로 쳐들어 오고 있다면서, 오늘중에 횡성을 빠져나가야 살 수 있다며, 동네사람들 거의 모두가 당장 피난길에 나섰다.

우리는 부모님과 형과 나 그리고 동생 5식구 모두가 이고 지고 피난길에 올랐으나, 큰댁에는 큰어머니 건강이 나빠서 할머니가 간호하기로 하여 두 분은 집에 남고 나머지 식구들은 모두 피난길에 함께 올랐었다.

어느 빈 집에서 잠을 자고, 그 이튿날 단구에서 아침밥을 지어 먹고 3개월간의 기나긴 피난길에 올랐다. 나는 그 때 국민학교 6학년, 만 13세가 되었으나, 키가 너무 작아서 이불 하나 겨우 등에 걸머지고 따라 다녔는데, 우리 일행은 원주-계천-단양-다시 계천-충주-괴산-보은-옥천 이렇게 머나먼 천리길을 엄동설한에 걸어 다녀야 했다. 결국 옥천군 청산면 장위리에서 피난보따리를 풀고 한 두달간 머물다가 이듬해 봄 다시 걸어서 귀향했는데, 피난지 장위리에서 여동생이 돌립병으로 죽은 것이 아직도 생생이 기억된다.

피난살이 4-5개월 동안의 얘기는 지면상 생략하지만 그때 그시절 모든 국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은 그저 한마디로 생지옥이란 표현밖에 다른 말이 없다.

4. 귀가해보니 우리 동네는 폐허의 잿더미였으며 전쟁과 열병과 폭발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1951년 4월경쯤으로 생각되는데, 피난길에서 귀가해 보니 우리동네 100여호 중에서 산 밑에 있는 대여섯 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에 타서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타다 남은 곡식으로 죽을 쑤어 먹으면서, 집집마다 움막을 지어 살림을 차렸는데, 마침 이 때 장질부사가 유행되어 동네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죽어 갔고, 어떤 집은 일가족이 전멸하기도 했었다.

거기에 설상가상 전쟁 때 버려진 각종 폭발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했으며, 동네 젊은이들은 국군으로 인민군으로 국민병으로 가서 싸우다 죽고, 굶어 죽고해서 그야말로 개나리가 생기이래 전무후무한 흑심한 전쟁재해를 치렀던 것이다.

우리 동네 개나리를 비롯하여 인근 지역에서는 어쩌나 전투를 많이 했는지 모든산의 숲밭들이 네이팜탄에 새까맣게 타버렸고 산 봉우리, 골짜기는 모두 방공호 개인전투호로 파헤쳤으며, 폭탄 껍질, 버려진 무기류, 탄피 등이 산과 들에 더미로 쌓여져 있었다.

세목다리 강가에 중공군 시체 10여구를 비롯하여 서낭당 부근에, 우물골 우물옆에, 흥씨덕 화단에 그리고, 주막집 불탄자리에 인민군 유해 수십구 등 동네에 적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널

러져 있었고, 산골짜기 방공호에는 많은 중공군 시체들이 썩어가고 있었다. 한가지 아픈 사연은 우리 동네에서도 국군이 일시 패전한 적이 있어 수 십명 전사하여, 그 해 늦은 여름에 국군 화장대가 들어와서 약 두 주일쯤 주둔하고 동네에 있는 국군시체를 모아 무리고개 어귀에서 화장을 했었다.

하여간 나는 시체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먼 거리에서 시체를 가끔 보았으며, 그러다 보니 결벽증이 심한 나로서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놀다가도 물만은 산에서 나는 샘물을 먹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먹어야만 했었다.

5. 할머니는 폭격에 돌아가시고

우리 식구들이 피난길에서 돌아와 보니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당시 나이가 어렸고 여러가지 일들로 매일같이 노느라 할머니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늦은 봄날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디를 가자고 하기에 형과 같이 따라가 보니 회사집터 불탄자리에 동네사람 10여명이 모여서 안방자리를 파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

알고보니, 그전해 음력 12월 10일, 동네 모두가 피난가고 텅빈 마을에 노인들 몇 분이 남아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날이 마침 회사집 노인 생신이어서 동네에 남아 있던 노인들이 오랫동안 이집에 모여서 밥 한그릇씩 나누어 잡수시려고 아침준비를 했는데, 때마침 지나가던 경찰기가 이집의 연기를 발견하고 한바퀴 돌더니 순식간에 폭격기가 날아와서 네이팜탄을 떨어뜨려 한순간에 여기 모인 노인 다섯분이 폭사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조금늦게 도착하다 목격한 노인의 증언) 그래서 오늘 이 노인들의 자손이 대부분 참가할 수 있는 날이어서, 이제 유골 발굴 작업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우리 어린이들은 마대자루를 붙들고서서 어른들이 삽과 가래, 그리고 호미로 파내는 흙속에 서 하얀 뼈조각이 나오면 그것을 주어 담는 일을 했다.

한나절만에 발굴작업이 끝났는데 뼈다귀가 모두 2자루 정도였다. 그래서 여기 모인 자손들이 그 뼈를 각각 뭇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어느집은 무덤없이 매장했고, 어느 집은 불에 다시 태워 물에 띄워 보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때 큰아버님이 병환중이어서 시우를 건너 남궁씨택 뒷산 잣나무 밑에 할머니 뭇의 유골을 자루에 넣은 채 가매장했다가 한달쯤 뒤에 가족들이 모여 새말 조상님 산소 끝머리에 할머니 뭇의 유골을 간략히 매장하고 이 유골이 순수한 할머니 유골이 아니라해서 봉분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할머니 산소에 성묘할 수 없는 서러움때문에 약 10여 년후

에 집안이 다시 모여서 할머니 산소 봉분을 다시 만들었고, 그 후 부터는 해마다 명절에 성묘를 하면서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복하신 할머니는 사후에도 다시 수난을 당하셔야만 하는 불행이 있어 1977년경에 삼거리에 저수지를 크게 만들면서 이 수로가 바로 할머니 산소를 통과해서 개나리로 이어져 가게 되었기 때문에, 할머니 산소를 다시 이장하려고 발굴해 보니 이 때는 이미 유골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 할 수 없이 할머니 지방을 한장 써서 할아버지 산소 봉분 옆에 묻어드리고, 할머니 산소는 영영 없어지고 만 것이다.

6. 할머니를 위한 시조 한 수

할 머 님 생 각

광목치마 저고리에
까만머리 나무비너 꽃고
눈웃음 따스해서
마냥 좋던 할머니
지금은
어느 별에서
편안하게 사시는지
6.25 난리통에
폭격에 돌아가신 후
그 동네 그 집터엔
개나리꽃 다시 피었지만
회억의
아픈 상처들은
내 가슴에 구멍을 낸다

— 광영기 제3시조집 세월을 삭힌 노래 에서 —

이 시조는 내가 할머니를 그리워 하며, 잊지 말고자 하여 쓴 시인데 여기에 비쳐진 대로 우리 할머니는 언제나 광목 치마 저고리를 입으셨고 새까만 머리에 나무비너를 꽃으셨으며, 인자

하시고 부지런 하셨는데, 왜 이렇게도 비참하게 6.25의 무거운 짐을 혼자지고 가셔야만 했는지 하늘의 일이란 참말로 모르겠다.

7. 맺으면서

머리를 들면 질푸른 하늘과 이글거리는 태양, 땅을 내려다보면 확확달아 오르는 지열속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무논의 벼포기들, 사방을 둘러보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푸른 산, 푸른나무 그리고 평화로이 둘러앉은 개나리의 농가들,

나는 눈을 감는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강산은 옛모습대로 복원되어, 언제 어디에 6.25의 상처가 있었느냐는 듯 의연하게 미소 짓고 있다. 변한 것이 있다면 43년 전 이 자리에서 뛰어 놀던 13세의 촌뜨기 소년은 어데 가버리고, 그 대신 비바람에 머리가 모두 벗겨진 초로의 3류시인이 쓸쓸하게 옛 일을 회상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일 것이다.

하여간 박계주씨의 포화속의 십자가 얘기가 내가 말한 우리 할머니의 죽음 같은 인가들의 사건은 순간의 바람이요, 한 조각의 구름일 뿐, 위대한 자연은 언제 어이서나 사건과 기억들을 모두 정화하여 새 생명이 약동할 수 있는 질푸른 대지를 사람들 앞에 다시 깔아 놓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지를 「내 고향 횡성땅」이라고 부르며, 자연의 복원력에 맞서 아픈기억들을 되살리는데 부지런하면서, 자긍심과 명예로 지켜가야 하리라 생각하며, 새말에 있는 네덜란드 참전기념비 앞에서 시조 한 수 읊어 본다.

풍차야 돌아라, 어서 돌아라

역사의 부름 앞에
달려온 화란병사들
자유의 최전선에
768개의 풍차 세우고
변영이
약손된 땅 횡성에
큰 한 돌 되어 섰다
통일 그 날을 위해
돌지 않은 풍차의 날개는

돌 철모 깊숙히
침묵을 삭히면서
세월의
조각들을 모아
서넛 하늘로 흩는다.
이제 미움의 역사는 돌아
남북 화해의 빛이 뜬다
세월은 바위를 삭혔고
삭은 바위에는 솔이 크나니
풍차야
이젠 어서 돌아라
자유롭게, 힘차게

[1993. 5. 24]

(주) 6.25전쟁시 네덜란드 해군과 육군은 1950년 7월 16일 한국에 도착하여 혁혁한 전과를 거두고 1955년 5월 15일 개전 귀국했는데, 768명의 희생자를 내었으며, 참전기념비가 횡성군 우천면 새말 영동고속도로변에 세워져 있다.

박영기 / ○ 약 력

- 39. 10. 20 강원 횡성 갑천면 대관대리에서 출생
- 82년 시조문학으로 등단
- 강원시조문학회장
- 한국문인협회회원
- 한국시조시인협회 총무이사(현재)
- 저서 제1시집「개나리」
제2시집「대관령」
제3시집「세월을 삭힌 노래」
- 돌기와문학 동인
- 북원문학동인, 해안문학동인
- 강원시조문학동인
- 강릉대학서무과장(81-89년)을 거쳐, 강원대학교 교무과장(89-91년)으로 근무하다. 현재 문화부 예술원
- 사무국에 근무중임.

횡성 사람



춘천군수 김 세 기

나는 내 고향 횡성의 산과들 그리고 우리들만이 간직한 조상의 빛난 얼과 현세에 사는 부모 형제 자매 이 모든 것들을 숭배하고 사랑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 몸속에 맥이 이어져 내려오는 조상의 얼을 더 한층 숭배한다.

지금 사회 각계 각층에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거기에는 부조리 척결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제 희생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 희생을 위해서는 종이 한장의 절약으로부터 라는 실천요강을 내 놓고 이면지 사용을 적극 권장 내지는 실천하고 있다.

관공서에서는 각과별로 이면지함을 설치해 놓고 쓰다가 버린 종이를 확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던 습관을 버리고, 한자의 글이라도 쓸 수 있는 종이의 여백은 연습지라도 사용하고 버리자는 것이다.

요즈음 신문지상을 보면 억단위 금품이 뇌물 또는 증여로 전달 되었다는 기사가 연일 계속적으로 보도 되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한갓 종이 한장을 아껴서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고 의아심을 가지는 이가 없지 않으리다만은, 거대한 산 봉우리를 정복하는 알피니스트들의 영광과 환회에 찬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영광과 축복도 한 걸음의 발길로부터 이루어 졌다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 종이 한장의 경제 이론을 누가 감히 경솔히 생각 할 것인가

우리 횡성군민의 피 속에는 오래 전부터 이 종이 한장의 경제 원리가 배어 있어 현세에 까지 그 맥이 축축히 젖어 이어져 오고 있다.

그것을 증명하는 좋은 일화 한토막을 소개해 볼까 한다.

때는 이조 말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흔히 개성 사람이 각정이 소리를 듣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뒤엎고 이씨 조선을 창업하고 서울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겼다. 지금도 도청이나 아니면 면사무소를 도시 발전의 흐름에 따라 옮기려고 할 때 무수한 주민들의 반대 의사에 부딪치고는 한다. 거기에는 그들 나름대로 생계

의 회비가 엇갈리는 크나큰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읍·면·동 사무소가 그러할진대 하물며 수도 서울을 옮기는 과정은 어떠하였을까

갑자기 수도 서울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니 모든 것이 정반대의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한쪽은 건설의 함마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의 모습이 활기에 차있고, 그와 반면에 한쪽에서는 끈 떨어진 뒤용박 신세가 되었으니 그들의 표정은 가히 짐작을 하고도 남으리라 생각된다. 조정의 관리나 벼슬아치를 상대로 하여 영업을 하던 즐비한 상점들은 문을 닫아야 될 것이며 그들을 상대로 하였던 농민들은 생산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을 것이니 하는 말이다.

개성 사람들은 이러한 난세를 극복하려고 무던히도 고심한 끝에 터득한 것이 상업전선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그들은 보부상(떠돌이 상인)의 원조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만큼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성각정이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각정이를 우리 횡성인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어느 초겨울 나그네 두사람이 어느 주막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게 되었다. 한사람은 개성각정이 이고 한사람은 횡성사람 이었다. 마침 주막집 여인도 술과 국밥을 팔아 돈을 쟁기는 일에만 급급했지 나그네들이 쉬어갈 방의 온돌은 언제 불 맛을 보았는지 사람 신세를 질려고 하고 있고 창은 듕성듕성 찢어진 것이 그 냉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나보다. 이에 개성사람이 생각하기를 어차피 하루저녁을 보내려면 문이라도 바르고 지내야 되겠는데 이를 어찌할고 하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문을 바르려면 종이와 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물건값을 저울질 해보니 종이 값이 월등히 비쌌던 모양이다. 그럴수 밖에 풀은 한줌 밀가루로 쭈기만 하면 되지만 종이는 닥나무 껍질을 벗겨 짓이겨서 창호지 한장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알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누가 종이값을 대고 누가 풀값을 댈 것이냐고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는데 우리의 횡성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횡성사람이,

“여보시오 어차피 하루저녁 보낼려면 문을 바르지 않고는 안되겠소, 그러하니 내가 종이를 살테니 당신은 풀을 사시오”

라고 말하였다.

이에 개성사람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값이 싼 풀을 자기가 사고 비싼 종이는 저 사람에게 사게 할까 하고 궁리하던 끝에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당신 말대로 내 나가서 풀을 사올테니 당신은 종이를 사 오시오”
라고 하더라.

둘은 창문을 바르고 하룻밤을 보내고 그 이튿날 떠나려 할제 횡성사람이 물을 한바가지 퍼들고 한입 입에 물고 우물우물 하다가 문짝에 확 뿌리는 짓을 몇 번한 후 살살 뜯어서 급게 접어 붓집속에 넣고 떠났던 것이다.

이것을 본 개성사람이 속으로

“세상에 이럴수가 있는가? 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큰 손해를 보다니! 내가 바른 풀은 어떻게 뜯어낸단 말인가”

하고 통탄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이 횡성사람이 개성깍정이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이 코믹한 이야기 한토막을 듣고 그냥 웃어 넘기면 안될 것이다.

지금 경제 대국을 이루고 있는 일본이 기라성 같은 경제대국과 겨룰 때 상기와 같은 이권의 저울질이 없었던들 지금의 경제대국을 이루었을까 하고 한번 되짚어 봄직도 하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깍정이는 인색한 사람을 욕하는 말로 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말로 구두쇠와 자린고비가 있고 그 반대로는 몹시 군색하다는 「옹색」이라는 말이 있다. 깍정이 소리를 들으면 어떠랴 옹색보다는 낫지 않는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다. 이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과 일맥 상통하는 말이다.

우리는 개성 깍정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인색함을 제거해 버린 깍정이를 현세에 재조명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수도는 횡성을 만들어 신한국 창조에 선봉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세기/○ 출생지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 근무지 : 내무부 지적과장

인제군수

횡성군수

춘천군수

나의故郷

문인협회 원주지부장 임 교 순



내 故郷은 安興面 所思里 台五地 마을, 지금의 영동고속도로 소사휴게소 자리가 바로 내가 어려서 살던 집의 우물터이다. 그 때는 우천으로 가는 소로길 면화재가 있고 동편으로는 지금의 둔내 현천리로 가는 아홉사리 고개가 있고, 동남간으로는 안흥으로 가는 여우재와 덧재가 있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봉우산 기슭으로 정금리를 가는 봉우재가 있었으니 그 어느 쪽으로 가도 고개를 내려가야 하는, 아주 하늘아래 첫동네라 할만큼 고지대에 자리한 松林으로 우거진 마을, 여기서 나는 중학교 시절까지 자랐다.

지금 눈을 감아도 생생하게 그려지는 우리집, 초가 삼간에 안방문을 열면 멀리 치악산 시루봉이 바라 보이던 그 때, 나는 치악산이 나의 먼 대처 세계였다. 그 산 빛에 따라 일기를 짐작 할만큼, 언제나 바라 볼 수 있었다. 국민학교는 처음에 台五地에 있는 개량서당에 다니다가 해방되면서 안흥국민학교 4학년부터 학교 공부를 시작 했었다.

바로 이 학교가 지금의 안흥중학교 터인데, 그 때 국민학교 터를 잡아 산비탈을 정리하는 작업을 안흥면내 각 동리별로 부역을 나갔었다.

어느 날인지 어릴 때 일이라서 기억을 못하지만 여름철로 생각된다. 우리 마을 태오지 사람들이 부역을 나간 날 산비탈을 파내는 어정을 칠때 불행하게도 어정이 무너져 마을 사람들 십여명이 흙더미에 깔려 그 자리에서 아홉사람이 즉사하고, 내 부친은 척추와 갈비뼈가 부러져 원주에 있는 도립병원에 실려 나갔으나, 그 때 의술로는 도저히 구명이 될 수 없다고 집이나 데려가라해서 인력거에 실려 태오지 집으로 돌아 오셨다. 어머니는 우셨고, 나는 같이 따라 울었다. 당시의 면사무소는 마을 유가족에 의해 부서지고, 면장은 도망치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유독 생명만이 붙어있는 내 아버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들 했지만 우리 집안은 온갖 좋다는 약을 구해 들이느라 전지를 모두 팔았고, 이 때 나타난 한의사 한분이 치료를 맡았다.

매일 세번씩의 아편 주사를 놓고, 개를 잡아 백수로 다려 짜서 국물만을 아버지 입에 넣어주었다. 그렇게 3년을 지나자 천행으로 아버지는 거동할 수 있었다. 정말로 신효한 치료였다.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것을 돌팔이 한의원이 아편 주사를 놓으며 개소주를 먹인 덕분인지는 몰라

도. 아버지는 5년만에 구멍이 되시어 문밖 출입까지 하시게 됐다.

이 때 나는 아버지가 다치신 학교터에 지어진 안흥국민학교 4학년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면서 비오고 음산한 날이면 변소에서 머리 깨진 귀신이 온다는 아이들의 말이 전교에 퍼져 변소를 못 갔던 일이 기억 난다. 어쩌면 우리 마을의 청년들의 영혼이 깃들인 학교터에서 유독 우리 아버지만은 살아계신 덕분에 다니는 학교에 깊은 감회로 하루 빠짐없이 소사에서 안흥까지의 등교길은 이십여리 꽤나 힘들게 다녔다.

구멍을 한 아버지는 치료시에 맞은 아편주사 때문에 그 때 말로 아편장이가 되어 남아 있는 논밭도 모두 팔아버리고 식구들의 연명할 곡식이 없어 어머니는 산나물을 뜯어다 우리 식구는 소처럼 풀을 먹어야 했다. 아버지의 아편을 끊기 위해 내 백부가 감독하면서 매일 아편의 양을 줄이어 3년 걸려 용케도 아편을 끊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나는 일요일이면 동생들을 데리고 산판 벌목장에 가서 장적과 통나무를 산위에서 내리는 일을 했다. 평장적을 지게에 저 내리는 일을 하면서 어깨에 피멍이 맺히고 몇번이고 우는 동생들에게 참으라 참으라 하면서 종일 나무를 저 내리면 한평의 나무를 쌓고, 돈을 받아, 그것으로 학용품을 사 썼다. 그 일을 일요일마다 하지 않으면 나는 공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덧재 고개 산비탈 돌하나 나무 그루 하나가 내 몸을 스칠 때 그것들 모두가 나의 육신의 일부이듯 나와의 동질감으로 살았다. 지금 아득히 먼 옛날로 한 없이 아름다운 추억인 듯 해도 그 당시에는 울기도 많이 했던 그 산 고개, 허기진 눈에는 늘 허연 쌀밥이 어른거렸고, 다른 애들이 쓰던 지금의 선화지 종이가 갖고 싶었다. 산딸기를 너무 따먹어 토사가 나서 죽는 가 하면 살아났다.

돼지 감자 뚱단지기가 있다는 풀섶을 찾아 그걸 캐 먹으면 어쩌나 맛이 있었는지 지금에 무슨 음식이 맛이 있네 없네 하게 된 것이 죄스럽기만 하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못뉜 안흥고등국민학교에 입학 했는데 수석이라고 입학금을 받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그해 여름 6.25가 터졌다. 그래서 나의 공부 길은 또 막히고 산속에 숨어서 장적 나무만 했다.

툭과 도끼로 매일 산속에 숨어 장적을 패고 있으면 전쟁 때라도 빠꾸기는 울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봉우산 숲속에 숨었다가 밤에만 집에 들어와 신발을 신은 채 자다가 개 짖는 소리만 나면 뒷문을 열고 산속으로 숨으며 인민군 눈을 피해 살았다.

포탄이 산에 떨어지면, 포탄 떨어진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어찌 알고, 늘 화약내 나는 포탄 구덩이에서 쓰러진 나무를 잘라 장적을 했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인민군에게 잡히어 갔다고 했다. 어머니와 나는 울고 있었다. 이틀밤을 눈이 빠지게 막연히 기다렸다. 아버지는 총알이 퍼붓는 접전장에서 용케도 도망쳐 집으로 오셨다. 불구가 된 한쪽 다리를 끌고 돌아오신 아버지와 6.25를 살아남아 다시 수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또 산비탈 밭에 옥수수랑 감자랑 심어 식량을 대며 살았다.

고등공민학교가 뒤에 중학교가 되어 졸업하자 나는 부모님 몰래 춘천사범학교를 시험 보았다. 다행히도 합격은 되었는데 입학금을 낼 일이 근심이었다.

어머니에게 실패했더니 외숙에게 가보라 했다. 제천에 있는 외숙에게 찾아가 입학금을 대 달라 했다. 그래서 입학은 했지만 그 외에 먹을 것이며 학용품을 살 돈은 없었다. 그것도 길이 있어 남의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 해결을 했다. 남 모르게 배를 굶으며 눈앞이 노래지는 영양실조에 얼굴이 부었다.

지금의 내 자식들에게 쌀알 한톨이 참으로 귀중하다고 일러도 그들은 당해보지 않을 않아 모른다. 지금 세상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가, 노력만 하면 절대로 굶지 않는다. 너무 잘 먹어서 비계 문제가 대두된 지금, 정말 세상 많이 변했다. 그것이 우리네와 같은 5,60대와 그 이전 사람들의 뼈를 깎는 인내와 손가락 끝에 피멍이 들게 일했던 덕분인 것을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른다.

우리의 전 세대가 등급고 어깨뿔 튀어 나오고, 손가락 마디가 울퉁불퉁 붙어난 것도 그 때문인데 요즘 애들이 모양새 없는 늙은이로 팔세하는 것을 보면, 율화가 치미는 일이다. 어찌 됐건 잘 사는 세상이 됐는데 뭐 불만스러울 게 있나, 지나간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이 행복감으로 우리 사는 시대에 즐거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앞을 내다보는 삶도 중요하지만 뒤를 돌아보는 현재의 만족도 가져 봐야 한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어찌면 고진감래의 말이 현재의 불만을 참게 하는 명구만이 아닌 철학의 의미속에 진솔한 삶의 등불이기도 하다.

故郷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 故郷이 자기 인생에 어떤 의미로 그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는가가 문제이다. 누구에게나 있는 고향이 누구에게나 있지 못하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고향을 마음속에 심는 일이 모든 것을 빼앗긴 마음 때문에 아늑한 자기 고향의 情을 잊은, 잊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실향민이란 말을 들을때 마다 나는 참 가슴 아프다. 절대로 고향을 잃지 말아야 한다.

물리적으로는 잃은 고향이지만 마음과 생각 속에는 고향에 사는 그런 幸福을 잃어서는 정말로 불행한 삶인 것이다.

나는 그동안 아동문학에 평생을 바치면서 내 어릴적 고향의 모든 기억을 나의 작품속에 심었다. 국민학교 교과서에 실린 <방울꽃>이 소사휴게소 있는 마을 台五地 봉우산 속에 피는 방울꽃, 그것이다. 「뒤틀발에 감자꽃」이란 장편 동화가 치악산 산마을의 한 변천사를 그린 것이나, 조국 분단의 아픔과 自然은 南도 北도 아닌 그대로의 自然인 것을 意心 속에 심으려 했다.

얼마전에 K. B. S 文藝産室을 찍기 위해 나의 고향 台五地 산마을에 갔을때, 내가 크던 집, 그터에는 잠초 우거진 언덕이고 우물터에는 휴게소가 들어서 강릉 가고 서울 가는 여객들이 잠깐 쉬며 가락국수, 커피, 호두빵 등을 사 먹고 있었다.

그렇게도 고달프고 배곶았던 옛날에 그곳이 지금은 솔바람도 시원한 쉼터로 변했으니 나도 오랫동안 여기 저기로 돌아다니며 산 까닭에 인생여정의 쉼터인 듯이 PD와의 여담을 나눌 수가 있었다. 動物은 回歸 本能, 귀소본능이란 게 있다 한다. 자기 태어나 크던 자리로 돌아와 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어찌면 고상한 말로 愛郷일 것이다. 한마리 날짐승이 앞에서 깨어나 넓은 허공과 산야를 휘젓고 살다가도 한 번쯤은 옛 동지로 날아와 보는 본능이, 사람엔들 없겠는가. 나이 먹으면 고향땅 초가 뒷마루에 앉아 보고 싶다 한다.

바쁘게 살아가는 現代의 물질 속에서 자라난 부화지 같은 곳이 바로 고향인데 그곳에 情을 못두고 각박해져만 가는 世情에 많이도 변한 모습으로 한번쯤은 回歸의 旅程이 되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임교순/○ 출생지 :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태오지

○ 경 력 : 1957년 춘천사범학교 졸업

1971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당선으로 문단 데뷔

1974년 강원도 문화상 수상

1980년 현대 아동문학상 수상

1983년 강소천 아동문학상 수상

1971년부터 강원도 아동문학회창립 회장 역임

1980년부터 한국문인협회 원주지부장 역임

○ 근무지 : 횡성 공군 상창국민학교 교감.

고향, 어머니의 품 —어느날 찾아간 버들고을—

강원도부녀복지과장 한 경 숙



일상의 생활에 쫓기어 바쁘게 살아가는 나날들속에 고향을 잊고 산다. 오늘은 모처럼 큰맘먹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찾아뵙겠 남편과 함께 고향 나들이를 하게 되었다. 고향은 생각만해도 가슴벅차고 두근거리며 흠 냄새만 맡아도 가슴뿌듯함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심정일게다. 고향은 나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횡성집에 도착해 갑자기 유년의 고향 청일에 가고싶은 충동에 추억이 서린 버들골(청일면 유동리)을 향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그리고 난 6.25를 전후해서 내가 살았던 40여년전의 어린시절로 돌아가고 있었다.

아픔의 기억…… 전원의 평화를 송두리째 앗아간 전장의 상흔은 머언 기억속에 묻고 살았는데, 멀지도 않은 고향을 왜그리 찾지 못했을까? 옛날을 더듬으며 나를 기억해 줄 만한 어른을 찾아뵙기로 했다. 이웃에서 함께 살며 귀여워해 주셨던 순이 어머니를 찾아 뵈었다. 88세의 노구에 기억력도 쇠하셔서 잘 알아보지 못하셨으며 거동이 불편해서 앉아 계신다고 했다. 내가 그집에 놀러가면 화롯불에 고구마를 물어 놓았다가 주곤하셨다. 순이도 일찌기 저 세상 사람이 되고 자식들만 성장해 가정을 가꾸며 살고 있음에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고 어릴적 친구인 양환이 민자도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앞길이 막막하다. 머리속에 그려져 있는 고향의 모습도 많이 변했지만 전쟁으로 타버린 우리집의 모습은 어떨까 궁금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40 여년 전 내가 살았던 집을 찾아 들어갔다. 내가 이집에서 출생했고 유년기를 이곳에서 보냈으니 감회가 남다르다.

어머니도 사뭇 상기된 모습으로 그때의 집모양은 안채와 사랑채가 이렇게 배치되었고 외양간 일꾼방은 저쪽에 있었으며 대추나무 고목은 옛날에도 있던 나무며 물길던 샹터의 얘기며 어머니의 회고담이 실감이 났다. 세월은 잠깐 사이에 모든것을 앗아갔는데 마음에 자리한 유년의 고향, 향수는 잊을 수가 없다.

어른들 따라서 산나물 뜯었던일 물당골의 짙레 꺾어먹던 기억, 뽕나무의 오디를 따먹어 입이

잉크빛으로 변했고 붓뚜랑에서 미역을 감으며 철병거리던 일, 어슴프레 날이 밝은 새벽이 되면 풀쭈를 뒤적이며 알밤을 주워서 우리 형제들은 각자 자루에 담아 재뭉을 챙겼었다. 밤하면 생각나는 6.25의 슬픈 기억이 있다.

작은 오빠를 따라 산땀을 따라 짐뒤편에 올라갔는데 귀를 찢는 굉음이 우리를 자지러지게 하더니 읍내는 폭격에 불바다를 이루었다. 그날 먼서기를 지냈던 작은 아버지께서 폭격으로 돌아가셨다. 1.4후퇴 당시 우리 가족들도 피난민의 대열에 끼어 나갔는데 늙으신 할머니와 나만 집에 남겨 놓았다. 여름 피난 때 어린 것이 하도 보채니까 아예 떨궈놓고 떠나신 것이다. 인민군의 총부리 앞에서 할머니 치마폭에 싸여 얼마나 울어댔는지 그 인민군은 슬그머니 돌아가버리고 나는 죽음과 삶의 찰라를 실감했다. 지금 내가 와 있는 이 곳 고향집 뒤편에 잠드신 그리운 할머니…… 나는 유년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음에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하고 소중하다. 그리고 나의 두딸은 이러한 고향의 향수가 별로 없어 가끔 옛날 얘기삼아 들려주곤 한다.

한여름 밤 모기불 피워놓고 명석위에 누워 하늘의 별을 세었고 반딧불 잡아서 눈에 붙이고 뛰놀던일 안반에 칼국수를 미는 어머니의 치마자락에 붙어 앉았다 밀가루 반죽을 칼로 똑잘라 주시면 아궁이 앞에 가서 구워먹던 기억도 새롭다.

그렇게 자연속에서 자라난 나는 8살때 아버지의 직장 이동으로 횡성읍내로 이사를 나왔다. 그리고 횡성에서 성장했고 직장생활도 군청에서 보냈으니 지금의 내가 있게 된것도 바르게 키워준 내고향의 은사님들, 어른들의 은덕이다.

40 여년 전의 유년으로 돌아가 몇시간을 헤매다가 중년의 여인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아련했던 고향, 이제 오솔길이 시멘트로 포장된 넓직한 길이 됐고 싸리나무다리가 육중한 철근콘크리트로 변했으며 웬만한 농가의 마당에 서있는 승용차를 보면서 문명의 이기속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실감한다. 그러나 농촌은 옛날의 순후한 인정은 보이지 않는다. 부디 잘사는 농촌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향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한다.

잘닦인 포장길을 달리면서 고향을 가끔 찾으며 잊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유년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채색할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고향, 나를 키워준 고향을.

한경숙 / 출생지 :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
경 력 : 現 강원도부녀복지과장

나의 歸去來兮辭



林 一 鎮

歸去來兮，田園將蕪胡不歸。

따지고 보면 이번 나의 경우도 도연명의 이런 심회와 다를 게 없었다. 눈에 비치느니 그저 언제나 깊은 산골짜ق과 푸른 냇물과 구불구불한 황토길 뿐이었다. 띄엄띄엄 앉아 있는 농가들, 돌덩이가 많은 비탈의 발똥기며 아름답리 적송과 피나무, 전나무, 참나무에 머무다래 엉킨 울창한 덩불들, 정녕 눈이 어지러운 십일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그리고 그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서 나는 한시도 강원도 두메산골을 잊어 본 적이 없었다. 더더구나 既自以心爲形役이었다. 부림 받은 몸과 마음. 覺今是而昨非,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곰곰이 생각하면 주변의 야속함 없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쪽에서도 의당 치러야 할 인과응보였었다. 그래 끊자, 끊어 버리자, 오직 그 길만이 진정한 나의 평화이며 자유일 것이란 확신을 굳히기에 이르렀던 셈이었다.

드디어 오월 십륙일, 나는 이삿짐 트럭 두 대와 함께 이곳(청일면 고시리 백사십륙 번지)으로 옮겨 앉았던 것이다. 그저 몸과 마음이 홀가분하고 그 지긋지긋한 얽매임에서 풀려났음을 실감하며, 벌써 축발이 되어버린 풀포기를 뽑는 일과도 고달프지가 않았던 것이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옥신거렸으나 앉아서 땀을 들일때 건너다보는 맞은 편 산자락과 봉우리는 탁 트인 후련함 바로 그것이었다.

‘어쩜 이렇게 깨끗하고 맑을 수 있지?’

아내도 같이 쉬면서 몇 번이고 연두빛으로 물든 산 그림자와 투명한 공기를 감탄했었다. 저 안개도 연기도 아닌 수도권쪽의 회뿌연 오염된 공기를 얼마나 저주하며 살았었던가, 그뿐인가, 심심찮게 눈에 띄는 끔찍한 차 사고의 현장들 강도가 들끓고 별별 입에 담지 못할 해괴한 소문들이 나도는 거리, 사람들은 대뜸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는다. 모두가 적, 적이였었다. 그래서 그들은 철조망부터 친다. ‘그렇죠?’하고 물으면 보나마나 ‘글쎄요...’이다. 그들은 이미 ‘예’란 대답은 아예 잊어버렸는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끈이 듣지를 않는다. 그 순간의 삭막함.....

따지고 보면 강원도는 나의 제2의 고향이다. 교직과 공리로 40년을 보낸 곳, 춘천, 홍천, 철원, 동해, 안 다닌 곳이 없다. 도에 있을 때는 출장으로 어느 면 소재지나 다 밟아 보았었다. 개울에서는 피라미와 격저기 메기를 낚았었고, 산에서는 더덕과 도라지를 캐고 버섯도 따왔다. 아내와 함께 고사리 고비 참나물도 뜯었었다. 그러니 나는 이고장과는 진작부터 끊을 수 없는 혈맥을 대고 있었던 것이다. 저 사방이 논배미로 이어진 호남같은 쪽과는 아예 기질부터가 다르다. 가까이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맑은 계류가 있어야만 마음이 놓인다. 산 산 산, 산자락 하나 없는 편편한 들판에서 뭘 기대고 살 수 있단 말인가.

지난 가을이었었다. 가까운 산에 올라갔더니 초가을인데도 벌써 도토리가 떨어져 있었다. 아주 푸짐하게, 비탈에는 콩 널려 있듯 떨어져 있지 않은가, 주워도 주워도 한이 없었다. 알이 굵었다. 동그란 것, 길쭉한 것, 아마 한 열흘남짓 주웠는데 100킬로는 주웠을 것이었다. 마당에 거죽을 깔고 말리고 또 따다가 말리고 퍼담고 벌레가 나오면 골라서 버리고... 서울에서 다니러 온 아이들도 재미가 나서 거들고 또 한 쪽으론 망치로 껍질을 까서 말리고 하여간 지난 가을은 이렇게 신나게 도토리 때문에 시간을 보냈었다. 가루를 내어 목을 쭈었더니 이젠 진짜 무공해 식품이라며 다니러 온 아이들은 이것만을 먹었었다.

그뿐이 아니라 발똥기에는 콩, 옥수수, 팥, 들깨, 오이, 가지, 토마토, 수박, 참외, 고추, 파 등 안 심은 게 없었다. 마디마다 주렁주렁 달리는 오이와 넝쿨을 번기가 무섭게 맺히는 수박, 수박은 금시에 풋볼만큼 커져서 아이들이 다니러 왔다가 한성을 질렀었다. 옥수수는 찰옥수수를 심었는데 아마 동네에서도 제일 많이 수확을 했을 것이다. 따가지고 껍질을 벗기면 퍼지는 그 그윽한 냄새는 정녕 몇 십년만에 맡아보는 즐거움이었다. 미리 걸어놓은 양은솔에다 삶아서 온 아이들과 함께 먹곤 했었다. 더구나 아궁이 불에 올려놓고 구워먹는 운치는 각별했다. 가뭇가뭇 탄 옥수수알을 한 톨 두 톨 때어내 입에 넣으면서, 어렸을 적 그 걸 들고 다니면서 아껴가며 먹었던 기억을 되살리기도 했었다.

콩 수확도 실해서 서울과 안산 쪽 아이들 장담글 메주를 썬고도 여러말이 남았다. 검은 콩은 금새가 좋아서 한말에 일금 35,000원씩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 딸아이가 왔다가 차에 싣고가서 아파트 이웃들과 나누어 가져 그렇게 쳐주더라는 것이었다.

울적하면 뒷산, 등성이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싸리틀 몇 대궁씩 꺾어왔었는데, 나는 그걸로 빗자루를 만들었었다. 유난히 이 고장은 칙닝쿨이 많아 그걸로 묶으면 제품에 훌륭한 물건이 되었다. 둘째아이가 횡성에서 사왔다는 플라스틱 제품을 쓰다가 보니 한결 더 멋이 있었다. 그래서 아예 낫을 갖고 올라가 얼마를 더 베어다가 세계를 더 매었는데 요즘은 그걸로 눈을 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나는 일은 양은술을 건 아궁이에 불 때는 일이다. 겨울에도 얼어붙지 않는 샘물을 길어다가 솥에 붓고는 주워온 삭정이에 불을 붙이면 빨갛게 타오르는 불꽃! 그 진하디 진한 원시의 색깔이 얼마나 황홀스러운가. 동굴 속에 둘러 앉아서 원시인들은 이렇게 불꽃을 즐기며 살았었을 것이다. 저 제철소 용광로의 그것과는 아예 다른 다사롭기만한 불꽃...

이렇게 나는 남은 여생을 살 것이다. 歸去來兮, 돌아가자 돌아가자며 나는 결국 돌아왔다. 누가 시로 썼듯이, 이 모두의 삶은 저 한 포기 짙레 그루터기 밑으로나 모이는 것을 냉이 대궁 밑으로 돌아가는 것을 撫孤松而盤桓, 외로운 소나무 쓰다듬으며 도연명이 서성이듯, 나 또한 이들과 교감하며 살아갈 것이다. 왜 도연명이 소나무를 쓰다듬었는가, 그것 모르긴 하거니와 같은 삶의 실체로서의 헤이람, 측은함, 무연함이 들어서의 소이일 것이다. 무슨 애당초 바다 진흙에서 태어난 생명체가 육지로 기어 올라와 나무도 되고 길동물들도 되었다던가, 나는 정녕 모처럼 얻은 평화와 자유와 안락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林一鎭 / ○ 1926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남

- 1947년 11월 월남
- 1948년~1983년까지 강원도에서 공리 및 교직생활
- 1984년~1992년까지 서울과 안산에서 생활
- 1993년 5월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고시리 146번지로 이사
- 1972년 1월 조선일보 신춘문에 시부분 당선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분과)
- 한국문인협회 안산지부 사무국장, 지부장
- 성호문학상 수상(1992, 제3회)
- 시집 '광야에서'의 산문등 약 200편 발표
- 전화 : 43-8608(주소 : 청일면 고시리 146번지)

小 說

♣ 동지선달 꽃 본듯이 / 정 재 영

동지 선달 꽃 본듯이



정재영

소여물 끓이는 방이라면 다 그렇지만서두 유독 양짓모테이 종구네 사랑방은 윈 겨우내 찢찢 끓었다.

동네사람들은 구들장 잘 생겨 먹었던 소리 보다는, 토역쟁이 종구 아버지 솜씨를 추켜 세우길 더 좋아했다.

거기애다가 안안팎이 모두 다 사람 좋기로 동네서 들쎄 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좋다보니, 종구네 사랑방은 마실꾼들로 빼죽할 때가 조금도 없었다.

하다못해 고평(감기몸살의 일종)이 들어 배피탕을 한사발 퍼 마시고 폭 취안을 할 때도, 동네사람들은 자기네 방구석을 마다하고 종구네 사랑방으로 몰켜 들었다.

그래도 나름대로 통하는 내규가 있어 마실을 가서 종구 또래의 소동패들이 먼저 진을 치고 떠들썩 할라치면, 중년배들은 몇번 헛기침을 해 대다가는 미련없이 발길을 돌리곤 했다.

준이가 종구네 사랑방문을 열었을 땐 벌써 서너명의 또래또래의 마실꾼들이 두런거려대는 모습이, 꺼물럭 거리는 등잔불빛에 어른 거려 대고 있었다.

사랑방 윗목엔 뒹박만한 노룻덩이(자리를 땀때 줄로 쓰는 삼겹질로 끈 끈의 일종)가 새벽잠 없는 종구 아버지 증명이라도 해 주는 양 천장에 매달려 건드렁 대고 있었다.

양짓말 30여호 통털어 한해 겨울에 돛자리만 열두어개씩 매서, 내다 파는 집은 준이네 말고는 그어디에도 없었다.

「야-! 이게 뉘기야 양짓말 풍생원 나리 아녀?」

「그렇구먼 그래 사람 오래 살구 불 겨여 -옹 오날은 무슨 바람이 요러크롬 불어 생원 나리 께서 밤마실을 다 오시구 -」

「야 이거 뉘 우리 동네 신문에 대서 특필 되지 아마!」

「원 녀석들도 난 밤 마실 좀 땡기면 안 되냐?」

허기사 친구녀석들이 준이를 향해 그렇게 오두방정을 떨만 했다.

아버질 그대로 빼다박아 일년 열두달 그저 일 밖에 모르고 살며, 농사일과 관계없이 바깥 나들이는 일절 모르고 사는 준이라, 시도때도 없이 내질러대는 친구들 편통아리도 아주 아니라고 할 수는 없었다.

이날 이때까지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서당까지 합쳐 십여 년 넘게 동구머리 노루목젤 도시락 싸 가지고 넘나들었지만, 남 다하는 중간치기 한번 못해 봤고, 들이 먹다 한놈 죽어도 모른다는 참외서리 콩서리 한번 못 해 본 위인이기도 했다.

그렇기로는 준이 아버지도 마찬가지로였다. 양짓말에서 태어나 오십 여 년을 넘게 살아 왔지만 이제껏 어느 누구와도 싫은 소리 한번 안 하고 살았으며, 누구네와도 십원 한장 돈거래 한 적 없는 위인이었다. 그저 제털 속 뿔아 그 구멍에 고대로 디미는 그런 평생원이었다.

이적지 몇 수십 년을 장엘 다녀도 국밥 한 그릇, 막걸리 한 사발 친구들과 어울려 사 먹어 보질 못한 게 바로 준이 아버지였다.

그래서 동네 아낙네들은 남편과 주색문제로 다들 뎨 꼭 준이 아버지가 단골로 메뉴에 오르곤 했다.

그래서 한 두번 마누라한테 당한 마을 친구들이, 준이 아버지 한번 망거트릴려고, 노루목젤 입구 색시집에다 반강제로 납치 해다시피해서 불러다 앉히고는 디립다 술잔을 앵기고 삼삼한 술집 작부를 시켜 건수를 만들어 불러고 단수 높은 입체 양동 작전을 뒀지만, 술이 떡이 된 준이 아버지는 네발로 기어서 밤새도록 노루목젤 넘고 말았다고 한다.

그 다음날 히떠운 짓거릴 작당한 남정네들은 마누라들한테 오줌이 젼젠 거릴 정도로 바가질 급했음은 동네가 다 아는 일이었다.

집안 내력이 이러할 정도니 이날 준이의 밤 마실은 정말 몇달은 공공 거리다 내린 커다란 용기요 모험이랄 수 있었다.

「자 앉으라구 수수깡집 아니니까루.

어때 생원어르신내도 한대 드릴까? 이래봐도 이거 진짜 장거리서 산 풍년초란 말씀이야」

「아니! 느들 벌써 담배를 피니?」

「야-야- 옛날 같으면 우리 나이면 벌써 장가 가서 애 아버지 됐다-? 괜찮아 어른들 앞에서 안 피우면 되지 뭐」

「그래도 그렇지……」

담배를 마는 숨씨나 담배연기를 들이 마셨다 콧구멍으로 내 뱉는 숨씨가 준이가 보기에다 꽤 속달된 것 같이 보였다.

「야야 순진한 총각 망거트리질 말고 망거질랩 느들이나 망거져 알 간. 그건 그렇구 니도 한판
꺼 볼 거여? 꽃 맞추는 민화투니까 니도 할 수 있겠지. 마침 끈도 한사람 모자르니까 말야-」

준이와는 동갑내지만 벌써 턱에는 거뭇거뭇 수염이 돋고, 목소린 패서 왕탱이 소릴 질러대는
상철이가 멍기적 거리며 자릴 내 주었다.

상철이 말마따나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짓구멍이나 섯다가 아니고 그저 같은 꽃을 맞춰 오
기만하는 민화투는 준이도 몇번 해 본 경험이 있는지라, 별 부담없이 지시지시 들어 앉았다.

썩썩째 종구는 농 대상으로 쓰이는 나무 껍죽에 얹혀 있는 군인 담요를 두르르 방바닥에 깔
고, 성냥통 안에 들어 있던 성냥개피와 옥수수 알갱이를 꺼내 냐다.

담요는 얼마나 많은 화투장과 사람들이 멍기적 거렸는지 털은 다 빠지고 반들반들 했다.

「요령은 전과 동.

송아지(성냥개피) 한마리는 백씩이구, 옥시긴 열씩이다. 준이 니도 알지」

암만 헛대보밑에서만 활개짓 치는 준이지만 그런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는 터수라 고개를
끄덕 거려 주었다.

「약은 비, 풍, 초, 똥, 월약있고 팔십띠기 구십띠기, 백띠기 다 쓰는거다. 참 이팔청춘도 있
는거여-」

상철이가 능숙한 솜씨로 화투를 치며 단숨에 네리 생겨됐다.

열두달 민화투는 정월달 부터 시작 됐다.

약값으로 옥시기알이 들락거리고 송아지가 팔러 가고 들어 왔다.

「야 이거 둔내장 영 안맞네 이거. 내가 삼살방에 앉았나 지랄나게 뒷장 안 맞아주네」

「사둔 남 말허네 그래도 니 앞엔 송아지가 서너마리가 있는데 죽는 소리냐? 난 송아지고 옥시
기고 거덜나기 일보직전이야-」

「어이그 이 안달 할미들 같으니라구 야 한방에 백띠기, 구십띠기에 이팔청춘이면 판 쓰릴 할
텐데 초작부터 왜 죽는 소리냐- 남자는 배짱 여자는 절개야--」

상철이가 역시 프로답게 통바리를 주자 모두들 잠시동안은 입을 붙들어 댔다.

누가 평생원 아니랴까봐 준이는 양말 모가지 속에다 기본인 성냥개피 다섯개를 꽂아 놓고는,
앞에 놓인 옥시기 알갱이를 한판이 끝날때마다 세어 놓고는 본에서 모자라는 옥시기 알갱이에
안달복달 했다.

또한 일송 서너장이나 구 서너장이와 확실한 패라고 생각 되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화투판에서 콩무늬를 뺐다.

그러니 준이 앞의 옥시기 알갱이는 더 늘지도 줄지도 않고 맨날 그타령이었다.

「야 쪼다야 그 밴데이 속 하고는. 맨날 들어 가기만 할렘 뭐 하러 화투판엔 꺼서 자리만 차지하고 자빠졌나? 자꾸 되든 안되든 쳐야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지- 어휴 그래도 사내라고 달릴 건 다 달렸겠지?」

「그래서 공생원 아니냐 저 인간이~」

친구들이 아무리 그래도 준이는 가슴이 별름별름해서 웬만큼 패가 들어서는 도저히 칠 자신이 없었다.

이제 열두달도 두달 밖에 남겨 놓지않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큰소리 뺨뺨 쳐 대던 상철이와 종구앞에는 성냥개피는 아예 없고 옥수수 알갱이만 몇개 있을 뿐이었다.

그많은 재물은 백띠기와 구십띠기를 연달아 한 삼베이 앞으로 고스란히 옮겨져 있었다.

열판을 그렇게 안달복달한 덕택에 준이 앞에는 그래도 성냥개피 세개와 옥수수 알갱이도 좀 있어 이대로 현상유지만 하면 최소한 밤참거리를 준비하러 가야 할 꼴찌 둘에서는 제외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겉으로는 안 그런척 했지만 준이는 자꾸만 실실 웃음이 터져 났다.

이제껏 십수년을 살아 왔지만 지금 같은 그런 기분은 별로 느껴 보지를 못했었다.

‘야-! 이런 기분 때문에 화투를 하고 노름들을 하나 보구나 이 짜릿한 쾌감이 끈들을 붙잡아 매는 모양이구나- 두판만 잘 버티자 두판만’

똥달엔 웬일로 패까지 잘 들어왔다.

팔깎데기 두장에 약자가 몇장.

한번 해 볼만한 패 였다. 더군다나 이번 판에 붙은 사람은 재산이 부도 직전인 상철이와 종구였다.

‘그래 이번판만 제대로 마무리 하면 두녀석은 아주 마침표를 찍는거다.’

상철이가 먼저 쿵쿵거리며 백송 껍대기를 내 던졌다.

‘일이 몇장인데 저런걸 초작에 내 버릴까?’

그러자 종구가 독수리 닭채가듯 일을 찍어 갔다.

조금전까지만해도 안온하던 준이 가슴이 다시 똥덩겨려됐다.

이번에는 종구가 심각한 표정을 짓는 척 하더니 구 껍대기를 내 던졌다.
약속이나 한듯 상철이가 득달 같이 구 껍대기를 채 갔다.
아뿔싸 당했구나!
그러나 이미 그때는 기차 떠나고 손 흔들고 난 후였다.
순식간에 준이 창고는 텅 비어 버리고 옥시기알갱이 몇알만 탱그러니 남아, 주인 보기 빛 하
다는듯 뒤실력 거려댔다.
노오란 현깃증이 준이 머릿속을 휩 지나 갔다.
중간이나 가자던 준이의 바램은 바램 그 자체만 남고 말짱 헛것이 되고 말았다.
애시당초 프로와 아마추어의 게임이었다.
행여나 하고 한동안 가슴 졸였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우습게 보여 준이는 속으로 픽 웃었다.
「어허 이거 화투가 영물은 영물이며 이거 오늘 침 오시는 손님이라고 착 알아 모시는대,
다 우리도 비싼 학채 내고 배운 거라고,
너무 속상해 할 것 없어.
오늘만 날인가 뭐」
「공생원 오는 날이 장날이었구면 그라」
「야-꼴찌 두사람 약속 한거 빨리 지켜야지 이거 동양화 감상허느라 뇌동했더니 출출 허구면
그래」
「오늘밤 무꾸(무)맛 기똥 차겠는걸 공생원 첫 작품이니 말여-」
「우리집에서 가져 오면 정말 안 되겠니? 우리 무 구멍이에도 많은데…」
「이런 푼수 하고도 그럴래 미쳤다고 이제까지 팔 아프게 신경 쓰며 화투를 쳤냐?
이건 분명 게임이고 패자는 말이 필요 없어」
「야마- 그래도 너 오늘 침 왔다고 많이 봐 주는 거여. 영아들 침 입문 할 땐 노루묵 넘어 가
서 닭 서리 해다 잡아 올렸어.」
문고릴 잠은 준이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눈덮힌 마을은 그림처럼 조용했다.
동네개들도 이웃동네로 마실을 갔는지 쥐 죽은 듯 했다.
그런 적막이 더 준이의 마음을 더 뒤 흔들어 댔다.
분명 추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만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쿵덕거렸다.

‘이대로 내 뼈 버릴까?’

‘어휴 그래도 저것두 불알을 찢다고 낄낄낄’

정말 버라벌 생각들이 준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래 어차피 쏟아진 물이다. 부딪쳐 보는거다.’

이렇듯 마음을 다잡아 먹다가도 언제 주인이 등뒤에서 나타나 목덜미를 확 움켜 쥘것 같아 눈길을 걸으면서도 연실 뒤를 휘휘 둘러 봤다.

「야- 떨리냐?」

「으? 아 아 안 떨려. 안 떨…」

「넌 어쩌냐 종구야?」

「아주 하나도 안 떨리는 건 거짓말이고 좁은 떨리는데 이까짓 무꾸 서리가 서리축에나 드냐? 닭서리나 토끼 서리 정도는 돼 야지」

종구의 어깨 으쓱거림이 그래도 준이에게는 적으나마 힘이 돼 주어서 기증 다행이었다.

꿈무니에 늘 갈가지를 달고 다닌다는 으시시한 부영이가 매화산 칙칙한 어둠속에서 심심찮게 울어 제키며, 살얼음같이 고요한 겨울밤을 가끔씩 뒤 흔들어 대고 있었다.

무우구멍이가 가까워 올수록 준이는 목이 바짝 바짝 말라오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기분 나쁘게 내 뻗었다.

발소리를 들었는지 달을 보고 짓는지 선 하품 하듯 이따금씩 동네개들이 저 멀리서 쾅쾅 짖어 댔다.

바우형네 무우구멍이는 하필 사랑방 봉당 밑에 있었다.

「바우형네 무꾸를 꺼내 와야 한다. 그 무가 기다란 왜무래서 달단 말여 알겠어 다른집건 절대 안 돼」

종구네 집을 나서기전 상철이는 준이가 행여 탄 짓을 할 까봐 단단히 못을 박았었다.

안채는 불이 꺼져 있었지만 이숙한 지금까지 바우형은 뭘 하는지 사랑방은 불이 켜져 있었다.

「야- 불이 아직 있잖아 형 안 자는거 아녀?」

「괜찮아 바우형은 가는 귀가 먹어서 염려 없다니까」

많이 해 본 가락이라 땅에다 배를 깔고는 종구가 무우구멍이 짚마개를 잡아 뽑았다.

날씨가 오지게 추워서 그런지 요즘 무를 안 가져다 먹어서 그런지, 단참에 마개가 뿔히질 않았다.

준이 까지 합세 해 냅다 잡아 당겨서야 짚마개는 뽑혔다.

복영 캔때 쓰이는 쇠꼬챙이가 준이 손에 들러 가늘게 떨고 있었다.
 복영 꼬챙이가 달빛을 받아 새하얗게 빛났다.
 잠자던 현깃증이 다시 준이의 온몸을 스르릉 거리며 내리 달렸다.
 「암마- 뭘해 빨리 꺼내지 않구」
 꼬챙이에 찍혀 나오는 무가 준이에게는 쇠몽치 보다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한개- 두개- 세개-」
 「야 이제 그만 가--자」
 「암마-아직 열개도 안됐는데 그걸 가지고 누구 코에 거냐?」
 「열개씩이나?」
 다시 준이의 손이 무구멍이를 들어 갈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사랑방문이 벌컥 열리며 눈부신 등잔 불빛이 봉당 한가득 쏟아져 내렸다.
 동저고리 바람의 바우형이 저벽 거리며 봉당을 내려 섰다.
 준이와 종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구멍이 위에 배를 깔고 납죽 엎드렸다.
 금방이라도 솔뚜껑같은 바우형 두손이 목덜미를 콕 움켜 잡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동네 사
 람 모두에게서 손가락질 받으며 개챙피를 당하는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도 보이는듯 했다.
 ‘암전한 개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더니 아 글썽 그 샌님 같던 준이가 엿저녁에 바우네 무구
 멍이를 작살 낼려 다 들켜서 바우한테 경을 쳤대요 나 원 참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더니까’
 ‘아 그래서 옛말에 뒷걸에서 호박씨 간대잖아요.’
 ‘그건 그렇구 골샌님 준이 아버지는 그일로 얼마나 상심 했을까?’
 ‘아- 그까짓 무꾸서리 좀 한 게 뭐 큰 죄나 된다고 이렇게 방정들을 떨고 그래요. 왕년에 그
 런 짓 한번도 안한 사람 있으면 어디 나서봐요.’
 ‘아 누가 뭐래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암전이 준이가 그랬으니 그렇지요’
 준이는 두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 대는것 같애 미칠 지경이었다.
 「어유-줄립다. 달님이 노루목재에 걸리신걸 보니 꽤 밤이 이숙 했네…」
 이어 바우형은 부시럭 거리며 바지춤을 까 내리고 밤새 참았던 불일 들을 눈발에 보길 시작
 했다.
 정말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까지 오줌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제발 빨리 끝내고 아무 일없이 들어 갔으면…」

제아무리 길어 봐야 1분 안팎 이었겠지만 준이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한시간도 더 넘게 느껴졌다.

불일을 다 본 바우형이 졸린 눈을 비비적거리며 방으로 들어 가자 준이는 맥이 탁 풀리며 그자리에 탈썩 앉으려 질 것만 같았다.

「휴- 십년 감수 했네- 웬 오줌은 밖에 나와 싸느라고 사람들을 놀래켜? 그집 구석엔 오강두 없나?」

종구가 툭툭거리며 먼저 일어섰다.

「암마 준이야 조금만 더 꺼내고 빨리 가자. 찬 눈발에 한참 배 깔고 앉드렸더니 영 안 좋으네-」

「난 싫어. 난 못해. 난 갈 거야」

준이는 선불 맞은 멧돼지 처럼 벌떡 일어나 들고 있던 복영 꼬쟁이를 저쪽 산수유나무 쪽으로 휘 집어 던졌다.

「번쩍!」 달빛에 복영 꼬쟁이가 하얀 빛을 통기며 눈속에 푹 꽂혔다.

준이는 두번다시 안 올 사람처럼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눈길을 뛰었다.

「암마- 너 미쳤니?」

눈길을 달리는 준이 귀에 놀래서 어쩔줄 모르는 종구 목소리가 아련히 들려왔다.

‘그래 내 오늘 저녁 정말 미쳤었다.’

아녀 악몽을 내가 지금 꾸고 있는거여 악몽을...’

‘별 아침엔 바우형을 찾아가 사실대로 얘기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그리고 조선무지만 우리 무꾸도 한 삼태기 보내 드리고...’

양젓모테이 끝집인 준이네 집에는 아직도 바지런 하신 아버지가 모자리 새끼라도 꼬시는지 등잔불이 까물럭거리고 있었다.

「떡해 먹자 부우-영」

양식 없다 부우-영」

멀리 매화산에서 칩부영이들이 두런거리는 소리가, 잠자는듯 조용하기만한 눈덮힌 마을들을 아주 조금씩 뒤 흔들어 놓고 있었다.

정재영/○ 小說家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 현 문화원 이사
- 횡성문화회 회장

어사매 창간호 수록 차례

創刊辭	文化院長 金仁煥	5
祝創刊	橫城郡守 柳在珪	6
郡의 象徵	郡 公報室 提供	7
郡 歌		7
郡 木		8
郡 鳥		8
〈漢時〉創刊 祝時	金 台 鎮	10
〈遺稿〉祝 文化院 發展	韓 秉 洙	11
漢時的 歷史		13
○ 三國時代		15
○ 統一 新羅時代		15
○ 高麗時代		16
○ 朝鮮時代 以後		16
民族의 運動		19
○ 임진왜란과 橫城		21
○ 동학운동		22
○ 의병운동		24
○ 암흑기		26
○ 三·一운동과 橫城		33
橫城의 큰별		47
○ 거란족을 몰아낸 조충		49
○ 순국열사 徐禮元		52
○ 道學으로 官風刷新한 鄭宗榮		53
○ 元天錫, 具陞, 韓相烈, 안삼교, 沈志英, 安光瑾		57
遺蹟 篇		59
○ 遺蹟		61
○ 文化財 現況		65
民謠 篇		67
○ 미나리 타령		69

○ 시집살이 노래 (1)	70
○ 시집살이 노래 (2)	70
○ 訃	71
○ 연잎 댓잎	72
○ 자 장 가	73
傳 說 扁	75
○ 말 미	77
○ 꿩(꿩)골	80
持 報	83
○ 橫城文化院의 基本事業	金 鼎 基 ... 85
○ 橫城과 가스텔시와 자매결연	홍 재 옥 ... 88
○ 향토지 발간 방향에 대하여	金 正 雄 ... 90
創 作	95
〈동시〉 횡성아이들 외 1편	이 연 승 ... 97
〈시〉 얼굴 바라보며 외 1편	金 鑿 起 ... 100
배 암	金 亮 洙 ... 101
〈만화〉 향 토 지	김 용 환 ... 103
〈동시〉 눈 길	송 수 영 ... 104
〈時〉 기 원	공 영 옥 ... 105
〈수필〉 바 득	허 양 회 ... 106
탈 바 꿈	조 원 천 ... 108
〈동화〉 꽃샘바람	조 대 현 ... 110
던재 고갯길 얘기	임 교 순 ... 119
〈단편소설〉 엮어짜기	정 재 영 ... 124
橫城文化院에 바란다	141
○ 최정근... 12 ○ 남궁선... 74 ○ 도희관... 94 ○ 조대현...143	
○ 양승순...144 ○ 신재진...145 ○ 김종근...146	
生活講座	147
○ 法律 코너	金 世 雄 ... 149
○ 橫城이 繁榮하는 길	鄭 鎬 逸 ... 153
橫城 文化院 任員	155

어사매 제2호 수록 차례

참 간 사

○ 문화원장	한 중 회 ...	9
--------------	-----------	---

축 사

○ 국회의원	김 용 대 ...	11
○ 횡성군수	장 재 현 ...	12
○ 교 육 장	류 흥 수 ...	14
○ 경찰서장	라 상 극 ...	15
○ 한 시	김 주 옥 ...	17
○ 횡성의 유적〈향교〉.....	김 기 원 ...	18
○ 축산으로 농가소득증대	정 연 덕 ...	20
○ 새마을문고 운영	김 정 기 ...	23
○ 잊지 못할 내고향 횡성	함 재 윤 ...	25
문화원에 바란다	정 호 일 ...	28
	이 진 우 ...	29
	유 관 회 ...	31

시

○ 설날의 1편	이 연 승 ...	35
○ 타향살이	곽 영 기 ...	37
○ 고향산수	이 진 우 ...	38
○ 가을정적	김 성 기 ...	39
○ 폭 설	김 량 수 ...	41
○ 갑 자 송	김 기 원 ...	42
○ 징검다리	송 수 영 ...	44
○ 작은 풀잎과의 대화의 1편	권 용 환 ...	45
○ 노을이 있는 저녁 소묘	양 승 준 ...	49
○ X-mas-Eve	공 영 옥 ...	50
○ 별	이 상 천 ...	52
○ 새	이 아 영 ...	54

○ 바지랑대	김 행 용 ...	55
○ 새의 추상	김 영 수 ...	56
독서실 운영 안내	김 정 기 ...	59
간 화		
○ 향 토 지	김 용 환 ...	60
수 필		
○ 횡성 청소년에게	김 정 기 ...	63
○ 횡성 깍쟁이	유 장 희 ...	65
○ 역사와 문화	김 승 기 ...	68
○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이 상 천 ...	71
공 트		
○ 월 칙	오 상 건 ...	75
동 화		
○ 불씨	임 교 순 ...	83
○ 로봇트군의 죽음	조 대 현 ...	88
소 설		
○ 몽 상	정 재 영 ...	97
특 집		
○ 횡성 회다지 소리	김 승 기 ...	121
1. 서론		121
2. 작품의 내용과 해설		122
3. 횡성 회다지소리의 노랫말		126
4. 출연자와 구성		142
5. 발인제와 노제		143
6. 결론		147
부 록		
○ 횡성문화원 임원 명부		153
○ 문화원 산하 어사매 회원 명단		155

어사매 제3호 수록 차례

권 두 언			
○	횡성문화원장	한 중 회	5
서 시			
○	햇살이 사는 동네	이 연 승	8
○	애향심	국회의원 김용대	9
○	향토에 관한 소망	국회의원 함종한	11
○	문화원의 역할과 기대	횡성군수 한상철	14
축 사			
○	횡성경찰서장	김 용 진	16
○	횡성군번영회장	정 호 일	17
수 상			
○	고 향	이 진 우	21
○	횡성문화원에 바란다	함 재 윤	24
○	학교발전과 지역발전	횡성고등학교장 박선철	26
○	농촌청소년에 붙인다	횡성군농촌지도소장 이홍우	29
○	남도의 유적순례	횡성정화협의회사무국장 김기원	32
○	산업사회와 청소년	횡성경찰서보안과장 정진철	38
○	인간성의 논리	어사매회장 이상천	41
○	지도자상	횡성문화원 부원장 김정기	44
○	작지만 몇몇한 문화	횡성군 문화공보실 김승기	47
○	흔들리는 백세성도	횡성고등학교 유장희	50
기 행 문			
○	자매도시 "가스텔을 다녀와서"	횡성문화원장 한중회	55
문 예			
<시조>	원앙의 2편	곽 영 기	65
	시조짓는법 기초	곽 영 기	68

〈시〉	○ 이사가던날의 1편	이 연 승	... 71
	○ 고향 하룻밤	이 진 우	... 73
	○ 할머니 꿈속으로 내리는 눈의 1편	김 성 수	... 74
	○ 나그네길	김 성 기	... 77
	○ 다쓰지 못한 시외 1편	양 승 준	... 80
	○ 소녀의 기도	권 용 환	... 82
	○ 대한의 영웅들	김 기 원	... 83
	○ 파도의 2편	이 상 천	... 87
	○ 저녁강에서의 1편	홍 석 운	... 90
	○ 북소리의 1편	홍 명 남	... 92
	○ 스물한살의 비망록	엄 미 자	... 94
	○ 안개밭	김 영 란	... 95
만 화	김 용 환	... 96
수 필			
	○ 고향	임 교 순	... 97
	○ K 간호원에게	송 수 영	... 100
	○ 고진감래	조 원 천	... 101
공 트			
	○ 조숙한 아이들	김 양 수	... 104
단편소설			
	○ 신바람	정 재 영	... 108
논 단			
	○ 국가발전과 문화의 기능	서울대학교 교수 신문학박사 차배근	... 129
	○ 황성인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뿌리정신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 교수 조상현	... 139
황성의 재발견			
	○ 황성의 항일항쟁사	김 승 기	... 149
움직이는 황성문화원			
	○ '86황성문화원 사업계획		181

어사매 제4호 수록 차례

군민현장	
화 보	
목 차	
권 두 언	한 중 회 ... 7
애향논단	
○ 농촌의 앞날	김 정 기 ... 8
○ 어사매 그 뜻과 음은?	유 장 회 ... 11
○ 횡성지명고	김 준 기 ... 12
○ 고향의 뿌리의식	차 배 근 ... 17
어사매논단	
○ 건강한 성격이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	안 범 회 ... 21
○ 유학사상에 관한 소고	김 기 원 ... 25
초 대 석	
○ 향토문화의 역할과 기대	조 원 혁 ... 28
○ 87학년도 횡성교육의 방향	조 진 행 ... 30
○ 87학년도 학교 설계	김 광 수 ... 31
○ 87학년도 학교운영 방향	신 동 하 ... 33
○ 87학년도 본교 장학방향	한 태 수 ... 36
어사매 칼럼	
○ 애향동참 의식으로 뭉친 재춘천 횡성군민 회원들	조 상 현 ... 38
향토순례	
○ 이인거의 난	김 기 원 ... 42
수 상	
○ 내고향 태오지	임 교 순 ... 44
○ 어느 여인이 일깨우는 향수	이 진 우 ... 47
○ 토끼해에 꼬끼리를 생각하며	유 수 룬 ... 49
○ 애정교육	송 수 영 ... 51
○ 지렁이속에 낚시를 생각하자	권 용 환 ... 52
○ 가을	최 인 숙 ... 56

시			
○ 설날을 기다리는 아이의 1	이 연 승	...	59
○ 가야금 산조의 1	김 성 수	...	61
○ 구름 꽃 외 1	곽 영 기	...	63
○ 그림달 외 1	김 기 원	...	65
○ 청솔가지외 1	김 성 기	...	68
만 화	이 병 현	...	71
풍 트			
○ 떠나는 여름	김 양 수	...	72
학원문학			
○ 태극기	김 현 주	...	74
○ 몽계 구름	임 영 선	...	75
국민학교			
○ 국어사랑 나라사랑	장 은 자	...	76
○ 어 머 니	정 연 순	...	77
○ 고향의 봄	최 미 정	...	79
중학교			
○ 금수강산	최 은 경	...	80
○ 우리땅 우리고향 어사매의 얼이여	권 금 옥	...	81
○ 조 국	김 영 주	...	83
고등학교			
○ 민족의 염원	허 속 이	...	86
○ 우리의 태도	박 회 자	...	87
단편소설			
○ 살 가르기	정 재 영	...	89
특집 : 황성의 재발견 3			
○ 이 영원한 삶의 터전을 위하여	김 승 기	...	111
86년도 주요 사업실적			120
87년도 주요 사업계획			122
황성문화원 임원 및 회원명부			124
편집후기			124

어사매 제5호 수록 차례

권 두 언			
○ 황성문화원장	한 증 회	9	
서 시	이 연 승	10	
논 단 : 1990년 지방화시대를 맞으며			
○ 지방화시대의 문화원의 역할	김 승 기	11	
○ 지방자치시대를 맞기 위한 황성인의 의식 무엇이 문제인가	유 장 회	14	
○ 지방자치제와 농협의 대응	농협조합장	18	
○ 더불어 살자	부원장 김정기	27	
○ 인간화 교육	황성고등학교장	33	
문 예			
시			
○ 송 어사매	조 상 현	36	
시조			
○ 요즘에 피는 꽃	곽 영 기	40	
○ 고집쟁이	곽 영 기	41	
○ 미친하늘	곽 영 기	42	
시			
○ 계촌별곡 (I)	김 성 수	43	
○ 계촌별곡 (II)	김 성 수	45	
○ 계촌별곡 (III)	김 성 수	46	
○ 계촌별곡 (IV)	김 성 수	48	
○ 수 탐	김 양 수	49	
수 필			
○ 미 련	이 연 승	50	
○ 방울꽃	임 교 순	53	
○ 선산을 바라보며	최 성 침	56	
○ 사랑을 먹고사는 기관차	권 용 환	59	
○ 우리집	김 종 구	63	
○ 전통윤리의 현대적 이해	최 성 침	65	
건강상식			
○ 간장과 우리건강	김 정 용	68	

중국기행

○ 죽은 사람이 산사람을 살리는 나라 중국 유 장 회 ... 72

학생문예

- 89년 글짓기 대회 입상작 -

• 들 꽃	우 천 중 3년	박윤희	... 81
• 산 길	현천국교 5년	김익주	... 82
• 웃음뎌 각시탈	황성여고 3년	이금숙	... 83
• 산 길	공근국교 6년	윤신영	... 84
• 들 꽃	대동여중 1년	이화순	... 85
• 탈 춤	둔 내 고 1년	송금자	... 86
• 꿀 벌	창림국교 6년	김영은	... 87
• 하늘과 구름	대동여중 1년	박수희	... 88
• 탈 춤	둔 내 고 2년	심철호	... 89
• 진달래	황성국교 5년	정소현	... 90
• 슬픈봄의 소나타	공 근 중 3년	권희순	... 92
• 마 중	황성여고 2년	최혜경	... 95
• 진달래 꽃피는 고향	황성국교 5년	정주화	... 98
• 우리의 길	둔 내 중 2년	최수미	... 99
• 화려한 외출	갑 천 고 2년	정명희	... 101
• 도시락	수백국교 6년	이정은	... 103
• 어느봄날 유난히도 외로웠던 꽃산	대동여중 3년	한지혜	... 105
• 남아선호사상에서 느낀일	황성여고 1년	김남희	... 108
• 사적지 순례단에 참가하여	황성여고 3년	김원춘	... 111

특 집

• 황성지방에 구전되는 전래동요 연구	정 재 영	... 117
○ 문화원 행사	사무국장 한창일	... 145

부 록

○ 황성의 전래동요	149
○ 채집 및 정리	정 재 영 ... 151
○ 임원명단	179
○ 편집후기	180

어사매 제6호 수록 차례

국민현장		
화 보		
목 차		
권 두 언		
○ 문화의 민주화와 자율적 참여	한 중 회	5
논 단		
○ 지방화시대를 열자	김 정 기	6
초 대 석		
○ 농촌 청소년 교육에 관한 일고	조 진 행	10
○ 경로효친의 윤리	최 성 침	13
논 단		
○ 자녀와의 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류 장 회	15
향 토 사		
○ 그 날의 함성	박 순 업	18
연 구		
○ 의병장 최인순	박 순 업	27
○ 강림 태종대와 원천석의 고사	조 상 현	32
○ 의병총 앞에서	최 성 침	37
○ 횡성의 성씨	편 집 실	39
문 예 란		
○ 청자항아리.....	곽 영 기	49

○ 송광사에는.....	곽 영 기 ...	50
○ 석양에.....	곽 영 기 ...	51
○ 초상화.....	곽 영 기 ...	52
○ 어느 여인의 상심처럼	이 진 우 ...	53
○ 개 화.....	김 성 수 ...	56
○ 은장도.....	김 성 수 ...	57
○ 눈 내린 밤에	김 양 수 ...	58
○ 병실에서.....	송 영 수 ...	59
○ 어사매 사랑	김 종 구 ...	60
○ 사랑이 앙금되어	권 용 환 ...	61
○ 고닭은 이순의 고개	김 기 원 ...	66

학원문예

○ 나의 고향	박 현 숙 ...	67
○ 나의 고향	이 용 미 ...	68
○ 어 사 매.....	이 도 경 ...	69
○ 두레박에 담긴 고향	원 순 진 ...	70
○ 옥시기.....	심 철 호 ...	71
○ 나의 고향	이 상 순 ...	72
○ 나의 고향	이 보 람 ...	73
○ 발전하는 내 고향	조 성 란 ...	74
○ 뒷 동산 산마루에 앉아	연 정 미 ...	75
○ 향수에 젖은 고향	한 지 례 ...	77
○ 내 삶과 사랑의 시작	원 지 연 ...	79
○ 서원면 순례기	한 기 자 ...	82

어사매 제7호 수록 차례

발간사

○ 횡성문화원장	한 중 회	11
○ 횡성군수	김 세 기	12
○ 경찰서장	전 용 찬	14

논 단

○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김 훈 동	17
○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조 태 진	21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민 영 진	23
○ 그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말자	유 장 희	25
○ 국민학교학생들 얼마나 매를 맞은 일이 있나?	이 윤 호	27
○ 교양을 위한 한시습작	최 성 침	30

시

○ 비어있는 집	이 연 승	36
○ 동해휴게소에서	곽 영 기	43
○ 한순간 나 기러기되어	곽 영 기	44
○ 가을의 유혹	김 양 수	48
○ 느티나무	강 정 식	49
○ 한줌의 흙이 되어	강 정 식	51
○ 코스모스	김 기 원	53
○ 大同耽羅	김 기 원	54

수 필

○ 땅뻐기	권 용 환	56
○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권 용 환	59
○ 소사 휴게소	임 교 순	63

○ 잠 못 이루는 밤에	최 증 식	65
○ 파리	백 영 호	67
만 평		
○ 낙수대의 참물맛	조 상 현	70
일 기		
○ 동해안 일기	김 양 수	72
소 설		
○ 바우	정 재 영	75
특 집		
○ 횡성우밀 어러리 타령		97
학생문예		
○ 봄비	용문국교 1년 박설화	102
○ 산	성북국교 6년 정재금	103
○ 산	횡성국교 6년 김태수	104
○ 이름없는 산이여	우 천 중 3년 엄주현	105
○ 밤거리	대동여중 3년 안선희	107
○ 그 길로	둔 내 고 1년 원철호	108
○ 꿈	안 흥 고 3년 이은경	110
○ 어머니	우천국교 5년 이혜정	112
○ 어머니	횡성국교 6년 정소현	114
○ 어머니	성북국교 6년 윤인아	116
○ 어머니의 생신	청 일 중 2년 조정숙	118
○ 우정의 병문안	우 천 중 3년 홍금자	120
○ 어떤 만남	안 흥 고 3년 김미숙	122
○ 가을날의 소나타	횡성여교 2년 김남희	124
○ 문화원행사		127
○ 임원명부		131

어사매 제8호 수록 차례

발 간 사		
○ 황성문화원장	윤 재 택	... 11
○ 황성군수	김 세 기	... 12
○ 황성군의회의장	이 일 영	... 14
논 단		
○ 지방자치는 속성수가 아니다	조 상 현	... 16
○ 원이야기	김 승 기	... 21
○ 청소년범죄문제	최 성 침	... 28
시		
○ 老 詩人	곽 영 기	... 30
○ 사장님	곽 영 기	... 31
○ 섬강	곽 영 기	... 32
○ DESSIN	김 량 수	... 34
○ 낙엽의 일생	강 정 식	... 35
○ 아들의 용돈	강 정 식	... 36
동 시		
○ 프리즘	김 성 기	... 37
○ 겨울눈	김 성 기	... 39
한 시		
○ 歎水沒地(甲川貯水池)	김 기 원	... 40
○ 秋聲	김 태 진	... 41
○ 願南北平和統一	송 인 석	... 42
향토사순례		
○ 최양옥의 구국운동	박 순 업	... 43
○ 두보의 시감상	최 성 침	... 47
향토사연구		
○ 애항심 함양을 위한 지명유래 고찰	박 순 업	... 52
수 필		
○ 마지막 이발	탁 락 구	... 57
○ 덧	권 용 환	... 59
○ 잃어버린 동심(童心)	최 중 식	... 64
○ 황소갈보	백 영 호	... 67

○ 애기막내	김	중	구	...	71
동 화					
○ 아파트	임	교	순	...	73
학생문예					
○ 봄바람	횡	성	국	교 4년	박혜빈 ... 79
○ 봄바람	횡	성	국	교 5년	강영지 ... 81
○ 봄바람	용	문	국	교 5년	박철화 ... 82
○ 봄바람	우	천	국	교 6년	박지영 ... 83
○ 봄바람	창	림	국	교 6년	김영주 ... 84
○ 봄바람	횡	성	국	교 6년	이규용 ... 85
○ 민들레	대	동	여	중 3년	이화순 ... 86
○ 초승달	서	원	중	3년	이은자 ... 87
○ 민들레	우	천	중	3년	홍정훈 ... 88
○ 꽃씨의 거듭남	횡	성	여	고 2년	장지혜 ... 89
○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청	원	국	교 6년	공분선 ... 90
○ 우리엄마	성	남	국	교 4년	허선화 ... 91
○ 우리엄마	덕	천	국	교 6년	손은경 ... 92
○ 우리엄마	우	천	국	교 6년	강영순 ... 94
○ 우리엄마	횡	성	국	교 6년	이석정 ... 96
○ 우리엄마	횡	성	국	교 6년	윤복희 ... 98
○ 희망의 새싹	우	천	중	2년	박복녀 ... 99
○ 고향의 봄	둔	내	중	2년	김정하 ... 101
○ 고향의 봄	공	근	중	2년	오영숙 ... 103
○ 우리마을	횡	성	여	고 3년	진경미 ... 105
○ 어머니	횡	성	여	고 1년	박순미 ... 107
UN가입경축 글짓기 작품					
○ 우리나라 좋은나라	횡	성	국	교 6년	이석정 ... 112
○ 기쁨의 날	횡	성	국	교 4년	박혜빈 ... 114
○ 통일이 어서오길	성	북	국	교 3년	김은영 ... 116
○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공	근	중	2년	원현식 ... 117
○ 따로 따로 다시 하나로	대	동	여	중 2년	최혜숙 ... 119
○ 긴급뉴스	우	천	중	2년	장하용 ... 121
○ 마음의 문이 열린 한반도	횡	성	여	고 2년	박윤희 ... 123
○ 세계로의 발돋움	둔	내	고		이미자 ... 125
○ 91년도 문화사업					127
○ 임원 및 회원명부					130

어사매 제9호 수록 차례

序	詩	
	○ 맥(脈)	尹 載 宅
發	刊	辭
	○ 황성문화원장	尹 載 宅 ... 11
祝	辭	
	○ 황성군수	柳 在 珪 ... 12
	○ 황성군의회의장	李 日 寧 ... 14
特	輯	
	○ 고 이연승 문학의 특성	임 교 순 ... 15
	○ 泰豊樓를 바라보며	김 승 기 ... 18
詩		
	○ 현충일(顯忠日)	곽 영 기 ... 24
	○ 「산(山)	곽 영 기 ... 25
	○ 어담산 유정(御踏山有情)	곽 영 기 ... 26
	○ 도심의 밤	곽 영 기 ... 27
	○ 바위와 숲	곽 영 기 ... 28
	○ 지나가는 비	김 성 기 ... 29
	○ 밤 비	김 성 기 ... 30
	○ 나의 일상적인 것	강 정 식 ... 32
	○ 한라산 억새꽃	강 정 식 ... 33
	○ 쓰레기	임 회 경 ... 34
	○ 곁 실	양 경 애 ... 36
한	시	
	○ 韓中修交	金 台 鎮 ... 38
	○ 登寒溪嶺	金 基 元 ... 39
	○ 方晞文民治世	金 基 元 ... 40
	○ 公明選舉	宋 寅 錫 ... 41
특	집	
	○ 고향예찬	이 일 영 ... 42
	○ 농경문화의 유지보전을	허 석 구 ... 44
	○ 선열의 얼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자	정 호 일 ... 47

○ 짧은날의 추억	최 정 희	52
○ 횡성 며느리	박 수 자	54
향토사 순례		
○ 반구선생의 반구정	이 병 덕	57
○ 홍석규와 매일리 충혼탑	박 순 업	64
○ 석불유감	박 순 업	66
수 필		
○ "사람의 냄새"가 그림구나	조 상 현	68
○ 간폐이(당이)가 분 사람들	권 용 환	72
○ 무덤앞에서	최 성 침	82
○ 꿈	홍 성 윤	84
○ 꿈	백 영 이	86
○ 해외동포	박 명 순	88
○ 꿈	이 정 재	90
○ 친정어머니께	김 용 순	92
동 화 ○ 사람 도깨비	김 양 수	94
소 설 ○ 화(火)	정 재 영	102
학생문예		
○ 우리 소	심 현 기	122
○ 우리 소	이 은 경	124
○ 우리소 소니	최 정 민	126
○ 나의 보급자리	정 은 선	128
○ 품앗이	오 영 숙	131
○ 나의 꿈	박 은 진	134
○ 일기장	김 성 범	135
○ 일기장	김 현 미	136
○ 그리운 통일	최 화 성	137
○ 밤 길	윤 신 영	138
○ 밤 길	최 정 화	140
○ 꿈	장 지 혜	142
○ 일요일 오후	안 선 희	143
○ 임원명부		145
○ 회원명부		145
○ 문화원행사		149
○ 편집후기		151

○ 1993년도 문화사업 실적

1. 제2회 횡성군민 연날리기 대회

- 일 시 : 1993년 2월 6일
- 장 소 : 횡성읍 교항리 전천교 제방

2. 미술 전시회

- 일 시 : 1993년 10월 15일~16일
- 장 소 : 횡성문화관 전시실

3. 사진 전시회

- 일 시 : 1993년 7월 9일~12일
- 장 소 : 횡성문화관 전시실

4. 청소년 사생대회

- 일 시 : 1993년 5월 31일 마감
- 장 소 : 각 학교별 미술작품 공모

5. 청소년 백일장

- 일 시 : 1993년 5월 31일 마감
- 장 소 : 각 학교별 문예작품 공모

6. 청소년 초청 음악회

- 일 시 : 1993년 5월 9일
- 장 소 : 횡성문화관 대극장

7. 태기산 그룹 불우아동돕기 자선공연 지원

- 일 시 : 1993년 11월 6일
- 장 소 : 횡성문화관 대극장

8. 제11회 태풍문화제

- 일 시 : 1993년 10월 15일~16일
- 장 소 : 횡성읍 시가지 및 공설운동장

9. 대전 EXPO 박람회 견학

- 일 시 : 1993년 9월 18일
- 문화원 회원 참석

10. 제2회 태풍 예술제

- 일 시 : 1993년 12월 18일
- 장 소 : 횡성문화관 대극장 및 전시실
- 행사내용
 - 제1부 : 한국 전통예술과 클래식의 만남
 - 제2부 : 부녀단체 주부노래자랑
 - 수석. 서예 전시 (문화관 전시실, 12월 17~18일)

11. 향토 문예지 발간

- 어사매 10호 1,500부 발간

임 직 원 명 부

직 책	성 명	직 장 및 주 소	전 화 번 호	비 고
원 장	윤 재택	횡성읍 읍하리 115	43-2121	
부 원 장	권 용환	횡성읍 읍상1리 359-2	43-4396	
이 사	조 경택	횡성읍 읍상리 274	43-2742	
"	이 병현	횡성읍 입석리 188	43-2874	
"	정 재영	횡성읍 북천리 영진APT 201호	43-3326	
"	유 영길	횡성읍 읍하리 112	43-2302	
감 사	도 회관	횡성읍 읍상리 276-3	43-2964	
"	진 기범	횡성읍 읍상리 278-7	43-2687	
사 무 국 장	조 임식	횡성읍 청룡리 175	43-2979	

고 문 명 단

직 위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비 고
고 문	정 호 일	횡성읍 읍상리 36-12	43-2275	
"	정 병 용	횡성읍 읍상리 284	43-2335	
"	변 규 성	횡성읍 읍하리 102-6	43-2450	
"	이 철 구	횡성읍 읍하리 543-13	43-2358	
"	정 계 향	횡성읍 읍상리 528	43-2203	
"	한 중 회	횡성읍 읍하리 80-2	43-2579	
"	최 성 침	서원면 압곡리 160	42-8188	
"	한 순 기	횡성읍 북천리 태우APT 3-608	43-0841	
"	탁 락 구	횡성읍 교항리 58	43-2573	

회 원 명 부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 고
원 장	윤재택	횡성읍 읍하리 115	상 업	43-2121	
부원장	권용환	횡성읍 읍상 1리 359	교 사	43-4396	
이 사	조경택	횡성읍 읍상 3리	상 업	43-2742	
"	이병현	횡성읍 입석리 188	교 사	43-2874	
"	정재영	횡성읍 북천리 영진아파트 201호	교 사	43-3326	
"	유영길	횡성읍 읍하리 112	상 업	43-2302	
감 사	도회관	횡성읍 읍상리 276	상 업	43-2964	
"	진기범	횡성읍 읍상리 278-7	상 업	43-2687	
회 원	이관술	횡성읍 읍하리 92-1	사 무 원	43-3344	
"	홍재욱	횡성읍 읍상리 277	수 의 사	43-2246	
"	김정웅	횡성읍 읍상리 313	약 사	43-2707	
"	이상천	횡성읍 읍하리	숙 박 업	43-2607	
"	박충원	횡성읍 읍상리	상 업	43-3221	
"	박순갑	둔내면 자포리 409	약 사	42-1024	
"	김상원	횡성읍 읍상리	상 업	43-2796	
"	김명수	횡성읍 읍상리	상 업	43-2549	
"	정두영	횡성읍 읍하리 366	인 쇄 업	43-2404	
"	함소훈	횡성읍 읍하리 93	한 약 업	43-2636	
"	한상근	횡성읍 읍상리	양 조 업	43-2720	
"	전인환	횡성읍 조곡리 433	사 무 원	43-4813	
"	윤춘식	횡성읍 읍상리 333	공 무 원	43-3349	
"	고락홍	횡성읍 교항리 61-1	공 무 원	43-2855	
"	김상겸	횡성읍 마산리 451	공 무 원	43-3514	
"	송인호	횡성읍 읍상리 294	보 건 업	43-3015	도의원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 고
회 원	이 일 영	횡성읍 읍상리 69	양 복 점	43-2669	군의회의장
"	정 병 익	횡성읍 입석리 150-6	사 무 원	43-4813	
"	민 영 석	횡성읍 읍하리 363	상 업	43-2664	
"	한 상 동	횡성읍 읍상리	상 업	43-2505	
"	진 기 원	횡성읍 입석리 19	농 업	43-2821	
"	엄 기 호	횡성읍 곡교리 139	축 협 장	43-0004	
"	윤 재 기	횡성읍 읍하 1리 10	상 업	43-2233	
"	정 삼 영	횡성읍 읍하 3리	공 무 원	43-3130	
"	허 남 열	횡성읍 모평리 96	농 협 장	43-3018	
"	민 영 진	횡성읍 읍상 3리	건 축 업	43-2965	
"	구 본 섭	횡성읍 읍하3리	상 업	43-1000	
"	박 종 일	횡성읍 읍하리	사 진 업	43-2380	
"	조 형 정	횡성읍 청룡리 175	교 육 업	43-3220	
"	이 석 원	횡성읍 읍상1리	상 업	43-3518	
"	김 영 학	횡성읍 읍하리 116-9	상 업	43-0259	
"	박 종 훈	횡성읍 읍하리 95-2	상 업	43-9944	
"	남 문 섭	횡성읍 북천리 126	회 사 원	43-4125	
"	임 최 순	횡성읍 읍상리	광 고 업	43-8090	
"	원 중 춘	횡성읍 읍하1리	상 업	43-3162	
"	임 화 순	횡성읍 읍하리 116-9	광 고 업	43-2949	
"	정 재 혁	횡성읍 읍상리	대영전업사	43-5001	
"	최 강 현	횡성읍 읍상1리	상 업	43-2229	
"	박 승 기	횡성읍 읍하3리	상 업	43-0222	
"	김 원 영	횡성읍 읍하3리	운 수 업	43-3132	
"	장 성 희	횡성읍 중앙APT 5-507	공 무 원	43-4751	
"	진 연 문	횡성읍 청룡리 226	상 업	43-5544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 고
"	유재준	횡성읍 읍하리 112	상 업	43-9483	
"	김승현	횡성읍 읍하3리	상 업	43-2773	
"	박상선	횡성읍 읍하리 368	상인마을금고	43-3059	
"	한장희	횡성읍 읍하리 251	공 무 원	43-0910	
"	석인국	횡성읍 읍하3리	회 사 원	43-3735	
"	홍승익	우천면 정금리	농 업	42-2671	
"	양증하	우천면 정금리	농 업	42-2602	
"	이종호	우천면 정금리	농 업	42-2647	
"	이철우	우천면 정금리 507	농 업	42-2665	
"	김운수	횡성읍 읍상5리	공 무 원	30-2260	
"	이각구	횡성읍 묵계리 221	공 무 원	43-2208	
"	임태규	횡성읍 읍상3리	공 무 원	43-2101	
"	고석용	횡성읍 읍하2리 300	공 무 원	43-2101	
"	채수일	공근면 공근리 504		42-3474	
"	채희승	횡성읍 태우APT 1-906	서예학원	43-9060	
"	김창식	횡성읍 읍하리 306-7	광 고 업	43-4900	
"	방규진	횡성읍 중앙APT 1-107	공 무 원	43-9661	
"	고석범	횡성읍 재림연립 가-101	공 무 원	43-4376	
"	이복수	공근면 가곡리 194	상 업	43-3717	
"	심상호	횡성읍 읍상4리 112	관 광 업	43-4340	
"	이원봉	횡성읍 읍하리 118-1	상 업	43-2290	
"	김승기	안흥면 안흥리	공 무 원	42-4031	
"	조종호	횡성읍 조곡리	횡성산업	42-9933	
"	김정희	횡성읍 읍상리 385	상 업	43-4404	
"	고명규	횡성읍 읍상리 292	상 업	43-2382	
"	이광수	횡성읍 읍상리 386-11	한 의 원	42-2347	

편집위원

권용환 - 횡성문화원부원장

정재영 - 횡성문화원이사

조임식 - 횡성문화원회원

어사매 제 10호

인쇄일	93. 12. 25
발행일	93. 12. 30
발행처	횡성문화원
발행인	원장 윤재택
편집	어사매 편집실
인쇄	강원출판사

(비매품)

